THE MISSILE

月刊 미사일

1963年 1月 28日 印刷
1963年 2月 1日 發行

1963
2

間接侵略과 精神武裝

間接侵略과 反共組織

제 22 호

미 사 일

22 호

1963

목차(目次)

한국적(韓國的) 리더쉽의 모색(摸索) · · · · · · · · · · · · · · 한태수(韓太壽) 2

특집 · 간접침략(間接侵略)을 분쇄(粉碎)하자

간접침략(間接侵略)과 우리의 정신무장(精神武裝) · · · · · 김팔봉(金八峰) 22
간접침략(間接侵略)과 반공조직(反共組織) · · · · · · · · 박관수(朴寬洙) 25
평화공존(平和共存) · 평화공세(平和攻勢) · 간접침략(間接侵略) 조성직(趙誠植) 28

부(富) · 자유(自由) · 민주주의(民主主義) · · · · · · · · · · · M · 메비트 16
승공(勝共)에의 길 · 송민호(宋敏鎬) 3

항공기설계(航空機設計)의 경향(傾向) · · · · · · · · · · 홍성표(洪聖杓) 18
달나라로 간다 · · · · · · · · · · · · · · · · · · · 유한홍(劉漢興) 41
세계(世界)를 뒤덮는 항로(航路) · · · · · · · · · · · · · · K · 나이트 42
항공과학(航空科學)을 진흥시키자 · · · · · · · · · · · · 위상규(魏祥奎) 68

북한애국동포(北韓愛國同胞)는 나를 살렸다 · · · · · · · · · · · · 이준수 75

특집 · 1973년에의 조망

생활윤리(生活倫理) · · · · · · · · · · · · · · · · · · · 조풍연(趙豊衍) 54
세계정세(世界情勢) · · · · · · · · · · · · · · · · · · · 김광섭(金光涉) 57
한국민주주의(韓國民主主義) · · · · · · · · · · · · · · · 신일철(申一澈) 60
앞으로의 세계(世界) · B · 럿셀 61

현대철학(現代哲學)강좌 ② 실존철학(實存哲學) · · · · · · · 김형석(金亨錫) 49
연재(連載)심포지움 ② 한국의 산수(山水) · · · · · · · · · · 이은상(李殷相) 64
탄스의 대사원(大寺院) · 김영주 46
위기(危機)의 공산주의(共産主義) · · · · · · · · · · · · · · · · · 민철웅 79

군인(軍人)을 위한 청년심리학(靑年心理學) 제1장(第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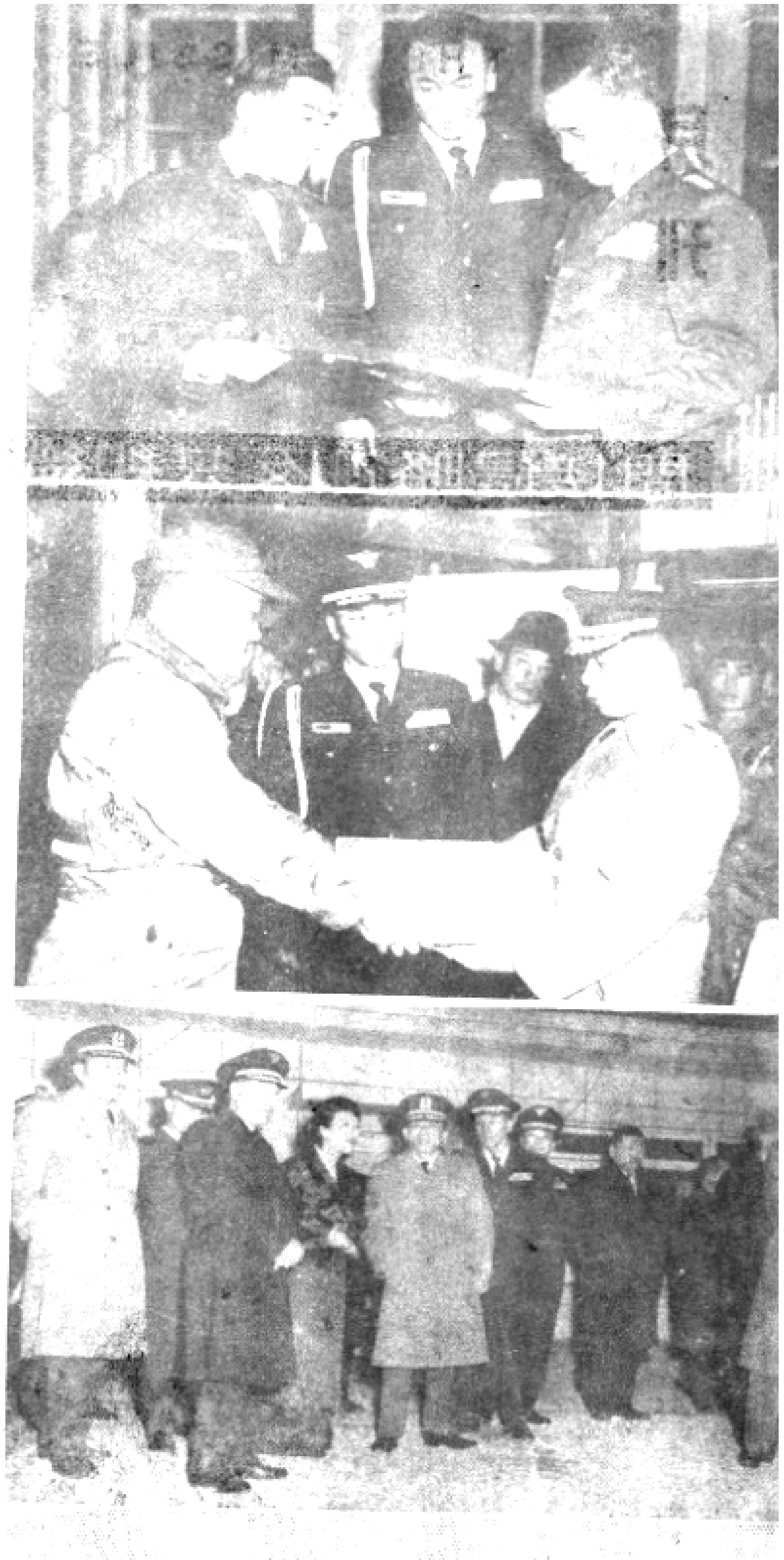
청년지도(靑年指導)의 원칙(原則) · · · · · · · · · · · · · 권순영(權純永) 6
반항(反抗)하는 심리(心理)와 그 지도(指導) · · · · · · · · · 최거해(崔巨海) 9
회의(懷疑)와 신념(信念) · · · · · · · · · · · · · · · · 김재준(金在俊) 12

제대군인(除隊軍人)과 농촌개발(農村開發) · · · · · · · · · · 한동대(韓炯大) 71
<글 · 그림> 1원이 더 왔어요 · · · · · · · · · · · · · · · · · · · 이순재 82
시(詩)
윷놀이 · 박두진(朴斗鎭) 89
매화(梅花)에 부치는 노래 · · · · · · · · · · · · · · · · 신석초(申石艸) 87
수필
내가 본 세분 · 어효선(魚孝善) 84
요지경 · 석주선 85
곁방살이 · 남 욱(南 郁) 87
연재소설(連載小說) 신판(新版) 토끼전(傳) · · · · · · · · · 계문수(桂文樹) 90
단편소설(短篇小說) 눈내리는 밤 · · · · · · · · · · · · · · 홍성유(洪性裕) 93

발행처 · 공군본부 공훈감실(政訓監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金榮浩)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박의장(朴議長) 10전비(十戰飛) 시찰(視察)

국가재건 최고의 박정희(朴正熙) 의장은 장성(張盛) 환(煥) 참모총장의 안내로 10전투비행단을 시찰하고 불철주야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에 진력하는 공군장병을 위무 격려하였다.
(1월 18일)



위(上)는 박 의장에게 기념비를 증정하는 장 참모총장
중(中), 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박 의장
하(下), 야간비행훈련을 참관하는 박 의장

한국적(韓國的) 리더쉽의 모색(摸索)

한태수(韓太壽)
〈한양대학교정경대학장(漢陽大學校政經大學長)〉

一. 서언(序言)

한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민주주의는 해방 후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된 서구사상으로서 한국의 실정(實情)에 어느 정도 적합한 것인지가 늘 의문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한국의 현실을 결부(結付)시켜 고찰해 봄으로써 그 적부(適否)의 한계선을 추출하고 이에 부응(副應)할 수 있는 한국적 리더십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강구(講究)해보고자 한다.

二,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념(理念)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에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 근대적 민주주의정신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운동은 물론 고대문예부흥운동으로 시작된 것이나 그러한 복고운동을 자극한 것은 중세기 암흑상태(暗黑狀態)였기 때문에 이 운동은 그 실상에 있어서 중세기에 대한 반항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신(神)로부터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요. 둘째 자아를 각성하자는 것이요. 셋째 개성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출발 당시와 같이 단순히 고대문예를 부흥시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종교개혁운동으로 달아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정신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에까지 뻗쳐가서 근대적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대적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은 르네상스 운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은 이미 16세기에 결실하였다. 당시의 국가계약설은 그 소산인 것이다. 영국의 토마스 홉스는 국가의 기원을 중세기와 같이 신의 의사(意思)에 구하지 않고 인간의 의사에다 구한 것이다. 즉 그는 국가를 인간 상호간의 계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군주는 절대정치를 하는 것이며 국민은 군주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여 또다시 절대정치를 옹호하는 이론이 되고 근세초기는 전제군주 정치가 되었지만 신본위사상(神本位思想)에서 인간본위사상으로 옮긴 것은 확고부동(確固不動)하였고 17세기에 들어가 종교개혁에 수반(隨伴)된 사회적 혼란이 16세기 전제정치 하에서 일단 안정되자 일시 잠자던 개성존중사상이 다시 대두(擡頭)하여 군권에 대한 민권의 투쟁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6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에 민권사상이 고조(高調)되어 유명한 1789년(年)의 대혁명이 되고 그 결과 근대민주정치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근대민주정치의 성립과정을 볼 때 국가에 관한 인간본위의 계약사상(契約思想)을 토대로 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조(基調)로 한 정치제도가 곧 민주정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대혁명이후(大革命以後) 세계 각 국은 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保障)하는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에 부심(腐心)하여 왔다.

三, 한국(韓國)의 현실(現實)

상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는데 한국의 현실이 이 이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정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서구민주주의가 "르네상스"정신의 발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술한 바이거니와 그렇다고 하면 "개성존중사상"이 민주주의의 가장 토대가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휴머니즘"이 민주주의의 기초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싹트기 전에는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곤난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현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군주정치를 벗어나본 일이 없다. 근대에 와서도 이조시대는 물론 한일합방 후에도 비록 일본이 입헌정치를 하였다고 하지만 한 국민에 대하여는 일본 천황이 전제군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민은 노소를 막론하고 민권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일이 없다. 정치라면 으레 통치자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민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해방 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 이 박사를 국민은 국부라고 불렀고 그의 전제독재를 감수하였다. 골수에 깊이 박힌 관존민비사상은 생리 화하다시피 하여 장관은 물론, 지방군수까지도 옛날의 원님같이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4·19혁명과 5·16혁명을 거쳐가는 동안에 사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봉건의식이 우리국민에게 지배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벼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반의식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알 일이다. 각하, 대감, 영감하는 칭호를 쓰기 좋아하는 심리도 이것과 일맥 통하는 것이다. 자유당정부당시에 모 국무총리가 국민에게는 생활의 절제를 강조해 놓고 자기는 호화스럽게 음주를 하다가 신문기자에게 들켜 질문을 받자 "일국의 재상이 이만한 일도 못해!"하고 노호하였다는 사실과 가장 똑똑한 척하는 일류신문기자가 박의장 생일에 "박의장 서민의 하루를 즐기다"라고 대서한 것은 모두 동일한 심리표현이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스스로도 놀랠 정도의 봉건의식을 무의식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에게 공통된 현상이다. 양반이 되면 상인은 멸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인은 또 양반을 존대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민권사상이 싹틀 여지는 없는 것이다. 순경 정도만 되어도 관리(양반)의식에서 일반인을 하대하는 우리나라에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기적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급관리들이 노동자 농민 기타 소상인들을 대하여 사용하는 언사와 행동을 보라. 그네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겠는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대를 받는 자들은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존대를 하면 오히려 상대를 깔보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인권사상" 즉 "개성존중사상"이 싹트지도 않았거니와 그 각성을 촉구하는 분위기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개성존중사상은 과학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조성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민중은 아직도 깊은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정도령(鄭道令)을 기다리는 그 심정은 마치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심정과 같다고나 할까? 자유당 정부 당시에 모 씨는 이 박사를 대망하던 정 도령이라고 신문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민주당의 모 씨는 자기를 정 도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으며 최근에는 또 이우 씨라는 자가 꿈에 천제로부터 차기 한국의 집권자로 지시를 받았다고 무민 하였다. 지금도 계룡산을 찾아가는 인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신비사상은 주역사상(周易思想)에 유래한 것이며 양진(陽陳)을 따져 점을 치고 오행(五行)을 따져 사주(四柱)를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는 이 조잡한 신비주의와 결탁하여 사람의 복(福)을 비는 것으로써 업(業)을 삼는 것이 태반(太半)이며 기독교는 또 이것과 결탁하여 무수한 사이비 기독교를 형성하고 인권을 유린(蹂躪)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서구의 근세 초기가 과학사상의 발달로써 민주사상을 촉진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세기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감(感)이 드는 것이며 따라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서구민주주의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즉효를 낼 수는 도저히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의 교도민주주의(敎導民主主義)와 "파키스탄"의 기초민주주의가 그 나라 그 실정으로 보아 일단은 수긍되기도 하는 것이다.

四, 한국적(韓國的) "리더십 "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현실은 서구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방 후 10년간의 한국정치는 혼란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이 박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재부산(在釜山)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대통령직선제개헌을 하였으며, 역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사오입개헌, 3월 부정선거 등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역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개헌투쟁을 하다가 호헌투쟁을 하고, 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합당을 했다가 분당을 했다.

이와 같이 정치지도자들이 자기편의에 따라 민주주의를 도용하고 서로 싸우는 동안에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이익을 쫓아 이리 저리 나부껴서 국가적인 이익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수십억 불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도 과거와 다름없는 빈곤 속에서 자주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민적 토대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지도자마저 훌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잘 자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 하지 못하는 책임도 민중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민도(民度)가 낮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택하는 이상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국가에 대한 책임은 민중보다도 지도자가 더 크게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원래 정도가 낮은 국민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므로 이 순종을 악용하고 선용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린 것이다. 따라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잘 육성되지 않는 죄는 지도자에게 있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지도자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책임이 지도자층에 있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한 죄가 역시 그들에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는 각별한 각성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고도의 비판력을 가진 국민에 의하여 선택되고 봉사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는 국민을 선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자기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자가 아니고 국민을 위하여 자진 헌신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웅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성자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3차 대통령입후보를 거부한 "워싱턴"과 같은 영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감성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이성력을 가진 자, 국내외정세를 세밀히 검토하고 국가적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력과 국가정책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용단력을 겸비한 자가 아니면 한국의 영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는 필요치 않다. 그들은 국내외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파의

충언을 경청할 만한 아량이 없었던 것이다. 감성적인 정권욕에만 사로잡히는 광신적인 독선자로서 저속한 말로서 표현하며 일종의 "깡패"두목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제 능력을 구비한 자는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그 제요소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한다면 희생적인 헌신정신과 풍부한 지적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영도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지도자층에 속한 자도 이 두 가지 요소만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도 과거와 같은 협잡배 또는 "깡패"는 되지 말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한갓 희망에 그치는 것이고 그러한 지도자층을 배양할 수 있는 현실적 보장이 문제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도면의 문제점을 일별할 필요성이 있다.

五, 요구되는 제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인간적인 결함"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물욕과 권력욕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사회에 부패는 따르기 마련이다. 물질을 얻은 자는 더욱 큰 물질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경향성을 견제하는 길은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요구하는 상술한 바 지도층을 배양하는 제도로서는 첫째 충실한 권력분립제, 둘째 완비된 지방자치제, 셋째 지도층 범법에 대한 엄벌주의, 넷째 지도층 통제를 위한 강력한 법제 등을 들 수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법강에 걸리는 자는 송사리떼이고 대어는 모두 이 법망(法網)을 뚫고 나가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무법천지와 사회 혼란을 조성한 중대 원인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자는 또 그 권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집권제와 권력통합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부패의 중대한 원인이 된 것을 또 누가 부인하겠는가?

六, 결론

요컨대 한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한국민의 현실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국내외적 요청인 이상 이것을 바로 육성할 길을 찾아야 하겠는데 이 길은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는 일반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층에 있다. 즉 지도자층을 단속하는 법제와 인간적인 결함을 견제(牽制)하 합리적 제도 확립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도자(指導者)와 피지도자(被指導者)

지도자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상대적인 것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피지도자의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의 길"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하더라도 이 올바른 지도를 받아들일 피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피지도자들로서 그 올바른 지도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할진대 모든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유명한 학자 아인슈타인의 깊은 "상대성 원리(相對性 原理)"를 이 정치적 지도자라는 문제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요,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성이 있고 부귀가 있으면 비천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대적 관계는 우리들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피지도자의 존재와 그 성질 여하를 알아야만 할 것은 논리적으로나 사실 면에서나 필연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공보부간(公報部刊) 「지도자(指導者)의 길·국민(國民)의 길」에서-

특 집

군인(軍人)을 위한 청년심리학(靑年心理學) 제1장(第一章)

청년지도(靑年指導)의 원칙(原則)

-청년(靑年)이란 무엇인가-

권순영(權純永)
<소년법원장(少年法院長)>

청년을 잘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청년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라 하면 정신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를 말한다.

청년기의 구분이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의견을 참작해 보자면 Elizabeth Hurlock는 청년기를 2기로 나누어 청년전기를 13-16 세, 청년후기를 17-21 세라 하였고 Paul H Landis는 12-16 세를 사춘기라 하고 17-24 세를 청년기라고 하였다.

청년기를 또한 춘계 발동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적(性的)으로 성숙하여 가는 시기 즉 생식능력이 발현하는 시기를 말한다.

청년기가 시작되는 연령은 기후, 생활환경, 성, 도시와 촌락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청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는 자아(自我)의 발견이니 제2의 탄생이니 반항기나 하는 말들이 청년심리 연구학자들에 의해서 청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들의 과격한 정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Hall의 (Storm and stress)『폭풍과 긴장』이라는 말이다.

물론 청년기를 가리켜 "폭풍기'라고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날 청년들 자신의 성적(性的)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적 적응 문제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청년기의 특징을 들어 이야기한다면, ① 우울하게 되고 고독하고 싶어진다. ② 부모나 권위의 간섭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③ 지금까지는 성인의 생활이나 일들이 옳다고 믿어 왔으나 실지로 경험하고 보니 그 뒤에는 말 못 할 그릇된 생활이었다고 여기고 여기서 선과 악을 냉정하게 비판한다. ④ 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겉으로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지마는 속으로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성이 모이는 집단에 참가하거나 컴컴한 음악 감상실, 극장 기타 장소의 모임에 참가함으로써 남녀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⑤ 자기의 결점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데 이 결점을 감추기 위하여 멋을 부리고 사치하며 지나치게 점잔을 빼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남에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런 때는 남몰래 여자배우의

사진이나 사모하는 여자(남자) 사진이나 어느 여인(남자)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다니며 보기 좋아하고 음탕한 소설책이나 인체 중에서 특히 성기를 해부해 놓은 의학서적을 읽기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 매력 또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성욕대치(性欲代置))

⑥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고 비평하고 남이 하는 일을 유치하게 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성인(成人)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데에서부터 반응한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더 커진다.

⑦ 기분의 고조가 아주 심하다.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반면에 기분 나쁠 때는 금방 생명을 포기할 것처럼 우울한 기분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자기 좋아했다가 갑자기 슬퍼한다.

⑧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 인생관을 세운다.

⑨ 최후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부모나 기타의 사람들에게 의뢰심을 가지며 때때로 백일몽에 잠겨 있다. 백일몽에 잠기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커다란 위험 같은 것을 스스로 정복 체험해 보지 않으면 마치 누구에게 속은 것 같은 허탈 지경에 빠져 자극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그리하여 윗사람에게 자기의 존재를 재인식시키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변화 없는 일상생활에 억압증을 느끼고 어떤 위험을 행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어 여자는 짙은 화장을 한다든지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여 정상 아닌 기호의 쾌락에 정신을 빼앗기고 유행과 허영을 만들어내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탈선하기 쉽다. 이들이 제일 반항기의 심리상태라고 하겠다.

Bühler는 청년기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반항기를 가리켜 제2의 반항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다.

제1 반항이 정서적이고 미분화적인 생활에서 오는 것임에 비해서 제2 반항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른의 입장에 서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찬조해 보려는 의욕이 강하다. 그러므로 현실을 그대로 보려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부정하여 이상 속에 넣고 기성세대의 행동과 현실적 사회질서는 모두 옳지 않고 틀렸다고만 보아진다. 그러면서도 이상의 의욕은 급하고 초조하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조건이 이상실현과 낭만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것의 추구(追求)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보여주는 정열적인 행동이 제2 반항이다.

이것이 하나의 파괴로도 보이기 쉽고 비도덕적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그들의 본뜻은 발전 의욕의 표시이고 새로운 것의 희구에서 나오는 순수한 성격이다. 물론 여기에는 좋지 못한 뜻을 가진 반항도 없지 않을 것이다. 발전의 의욕이 강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년기에서 반항을 없이 한다면 청년 아닌 늙은 청년이 되고 말 것이다. 즉 청년기의 기백의 반은 꺾어 좋은 셈이다.

돌이켜 보면 광주학생사건 때나 4·19 때의 용감한 그 행동이 바로 이 같은 옳은 의미의 반항의 발로라고 해서 좋은 것이다.

신체적으로도 자랐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것저것을 배웠고 경험했으니 덮어놓고 따르는 식은 이미 지난 것이다. 나도 이만하면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도덕이니 윤리니 삼강오륜(三綱五倫)이니 하는 제도에 억눌릴 대로 억눌렸으나 이제는 담배를 피워도 좋고 로맨틱한 사랑을 속삭여도 좋고 마음에 있는 여자와 성생활을 해도 누가 못 하게 하느냐는 듯이 기세가 당당해지며 나도 이 세상에서 알려질 만하다. 나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다. 나대로 살아야 겠다. 그래서 공연히 한 번 반대도 해보고 자기주장도 내세워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신체적 지적(知的) 사회적 발달에서 오는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이 중에서 직접적인 계기를 이루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막연한 의식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불안의 조성으로부터 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마음먹었던 것을 실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도 해본다. 이 같은 의심은 결국 불안한 정서적인 생태를 말한다. 몇 가지 종류를 들면 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 ②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반성, ③ 실패의 경험, ④ 남과 의견 충돌, ⑤ 속았다고 믿는 경험, ⑥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⑦ 나는 매력이 없다는 생각, ⑧ 경험 없는 행동의 충동, ⑨ 장래에 대한 걱정, ⑩ 정신적인 동요, ⑪ 성취 경험의 만족과 불만족, 이와 같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불안이 조성되면 자연 만족보다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남이 하는 일이 비웃어지고 미워진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나타낸다. 이러한 의식은 상대적이며 사회적이며 의식에서도 비슷하거니와 그들의 생활의 범위는 확대 재 현상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한 상태가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알기 어려운 그릇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해 버리고 무엇인가 그려보는 태도가 생긴다.

청년기는 다른 말로 현실 부정의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간간 지적(知的)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도 알기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며 많은 꿈도 가지게 된다. 이때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나며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의욕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때는 어른 기분을 내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면 장관의 아들이 단체 생활에서 어른의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대접받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관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고 으스대며 기분을 낸다. 이것은 자기의 위치를 높이 올려 어른 즉 아버지처럼 보여 자기 자신을 대접해 달라는 것이다(동일시(同一視)). 이러한 현상이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 안정시키려는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나도 자격이 있으니 인정해다오 하는 심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 반항은 요구의 만족의 불충분, 불안 등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있다면 정신이상일 것이다. 모두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요구를 만족시키고 실현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자기주장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자기주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불안과 같은 것은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얻지 못하고 요구는 잘 만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반항은 4, 5세 때에 나타난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청년기에 들어서면 지적이라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사회에 대하여 미숙하나마 퍽 이론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이론적인 공격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나이고 여러 가지 이론을 부쳐서 공격·반항한다. 물론, 이론이 빈약하지만 그런대로 복잡하고, 현실 생활을 넣어서 새로운 이상을 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적극적이다.

가령, 청년기의 자살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 같은 현실부정의 결과인 때가 많다. 요구가 강하고 또 요구가 이상에서의 것이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일 때 그리고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이해할 때에 현실사회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해 버리는 하나의 반항이다.

자살 쳐 놓고 살고있는 시대와 사회의 바람직함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누구나가 불안·불평만이 있어서의 자기 해결의 불가능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스스로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가 청년전기의 심리 현상들이라면 청년후기의 심리 현상은 어떠할까. 청년후기에서는 청년전기와는 아주 다른 현상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연장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반항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객관화한다. 그래서 작은 일에 일일이 반항하는 일이 적어진다. 그러나 일단 반항하게 되면 문제는 크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반항의 성질을 띄우게 된다.

청년후기의 반항을 군대 생활을 통해서 실례를 들어봄이 용이하겠다.

부하를 통솔·지휘하는 어떤 장교는 퍽 너그러움에 비해서 어떤 장교는 아주 신경질적인 장교가 있다.

신경질적이고 고질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나쁜 층을 말하는데, 이러한 장교는 장병들의 생활을 간섭할 것이고 잔소리가 끝이 없다.

그러다가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하사관들에게 기압주고 심한 욕설을 하는데 하사관들은 그럴 때마다 장교 자신을 비웃고 오히려 반항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됨을 경험할 때는 장교를 상관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질쟁이 또는 잔소리꾼으로 인정해 버린다.

이쯤되면 지휘관의 위치에서 통솔하기란 퍽 어렵게 된다.

무조건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진실 아닌 형식적인 결과인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검열 시나 지휘관 장교 회의 시에 상관에게 지적을 당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 해서 그 나쁜 기분을 더 확대시켜 부하를 상대로 해서 화풀이를 하느라고 심한 기압을 넣고 고통을 주어 자기의 욕구 즉 만족을 채우려는 장교를 가끔 볼 수 있다(승화적 행동).

그리하여 잘 되고, 말 잘 듣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반항심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관과 부하 간에 장벽을 둘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털어 놓고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데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억압으로써 부하들에게 무능하고 열등함을 강조하는 셈밖에 안 된다.

돌이켜 보건대 장교와 사병 간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릇된 일들로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군대에 입대 않겠다고 버티고 기피했던 것들은 앞에 말한 사병들의 불평불만 그리고 반항심에 의한 것들이 그만큼 좋지 못하게 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 되는 데서 오는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 즉 장교들은 어디까지나 부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창의력을 살려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을 지도·통솔할 장교는 청년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청년전기·후기에서 내용이 중복됨을 어찌할 수 없으나 특히 장교들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과 신념으로 청년들의 사기를 꺾는 일들이 없어야 될 줄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때 청년기에 있는 장래의 일꾼을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보는 이른바, 청년의 심리를 연구라고 이해하게 될 때 그 일은 퍽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일의 하나인 것 같이 믿어진다.

반항(反抗)하는 심리(心理)와 그 교도(敎導)

-맹목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아니다-

최신해(崔臣海)
〈의박·청량리뇌병원장[현 청량리정신병원](醫博·淸凉里腦病院長)〉

19세기는 히스테리의 세기였고, 20세기의 전반은 불안의 세기였고, 20세기 후반부터는 반항의 세기로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2차대전 때에 적군의 점령하에서는 민족적인 저항과 영웅적 반항이 유럽이나 중국에서 꾸준하게 계속되었다.

우리 민족도 왜놈들의 지배하에서 민족적인 저항과 반항이 36년 동안이나 맥맥히 이어왔고 퍼져나가는 동안에 수 없는 선열들이 거룩한 피를 흘렸다.

이런 거룩한 반항 이외에도 집단적인 반항이 곁으로 폭발하기도 했다.

3·1운동이 그랬고, 학생사건이 그랬다. 이런 대의(大義)에 선 반항을 우리들은 민족의 자랑으로 삼는다. 강아지도 발로 차거나 미워하면 덤벼든다.

오죽 사람에 있어서랴!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 이름을 본받아서 이 말이 유행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반항에 이유 없는 반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항에는 그 이유가 있다. 다만 옆에 사람이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뿐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하는 자기 자신도 그 이유를 자각 못 한단 뿐이다.

그렇다. 어떤 반항에도 이유는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의식적인 적도 있고, 도는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반항이 더 많은 법이다.

이 무의식적인 반항이라는 불가사의한 인간 행동을 규명하고자 정신분석학은 무의식계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반항(反抗)의 정신분석(精神分析)

정신분석학의 비조(鼻祖)인 프로이드는 사람의 본능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나누고 있다.

삶의 본능이란 섹스의 본능이요, 죽음의 본능은 파괴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파괴의 행동의 방향이 자기 자신으로 향할 때는 자살이라는 완전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요, 만성적으로는 음주나 신체훼손 따위의 음성적인 파괴도 일으킬 것이다.

파괴의 본능의 방향이 거죽으로 터져 나올 때는 살인·격노(激怒)·적의(敵意)·반항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반항이 신경증적(神經症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라면 피하려고 드는 처벌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어린 아이들 같으면, 몰래 아버지가 싫어하는 어떤 장난을 하여서 거기 대한 죄악감을 느끼게 될 때는 하찮은 짓을 저질러서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버지를 성내게 만들어서 자기가 얻어맞는 결과를 만든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저지른 장난에 대해서 죄악감을 느껴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무슨 형벌을 주어야겠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일부러 아버지를 화를 내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시켜서 자기를 처벌한다는 복잡한 과정을 밟으므로써 자기는 형벌을 받았으니 비로소 자기의 죄악감은 청산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다.

청소년들의 이유 없는 반항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 동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른다.

반항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마음의 불안과 열등감과 죄악감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은 정신분석학의 큰 공로라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어릴 때 자라나던 가정환경이 원색판적인 색칠을 해준다. 즉 살아날 때에 아버지가 너무 폭군이었고, 자기가 부모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사랑 즉 자기를 보육해 줄 어머니를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어린아이들에게 파멸적인 불안을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라 한다.

금지당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가정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생기는 것이며, 여기에다가 엄한 아버지로부터 배운 엄격한 초자아(超自我)의 압력으로 아이들은 불안해지고, 사회현실을 부인하는 행동으로 폭발하기 쉬워진다고도 한다.

하여간 불안과 열등감을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외부로 향해서 공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반항이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이 반항하려들 때에는 그룹을 만드는 법이다. 집단의 힘을 빌어서 할 때는 더 쉽게 말하자면 군중심리로 자기의 약점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잔인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자기를 과시시키려고 한다.

반항을 일으키게 하는 민족문화사회적(民族文化社會的) 배경(背景)

반항심(反抗心)을 조장시키게 하는 민족문화 즉 민족의 생활양식이 문제가 된다.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라는 섬과 메이나스 섬에서 청년심리를 연구한 미이드 씨의 연구를 보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우리네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과 아이들은 우리네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과는 다른 점이 많다.

사모아섬 사람들의 남녀청년들은 이 지구 위에서는 가장 행복스럽게 두려움 없이 청년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男女) 다 30세까지는 아무런 책임 있는 일을 맡지 않으니, 정신적 부담이 없으므로 누구와 다툴 필요조차 없다.

메이나스 섬 청년들은 결혼할 때까지는 연장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다. 기후는 덥고 먹을 것은 풍부하므로 악착같이 일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뿐더러 남과 다투어서 힘든 일이나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 유유히 처세(處世)하고 기쁘게 놀고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고 또 청년들은 자라날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아동기로부터 청년기로 접어드는 것이므로 반항(反抗)하는 기풍은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반항할 필요가 없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사회는 어떤가.

청년들은 자라나는 동안에 적지 않은 억압과 전신적인 외상(外傷)을 받고 자라나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모순되는 표준이 있고, 상반되는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서 어리둥절해지고 또 종교 아니면 회의(懷疑)의 양자택일에 고민하고, 사회생활과 직업에서 생기는 경쟁과 욕구좌절이 너무나 많다. 여기다가 문화적 전통과 규율과 자기의 본능에서 생기는 정신적 갈등도 미개인보다는 몇 배나 강하다.

복잡한 사회기구에 적응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불안(不安), 반항(反抗)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과도기세대(過渡期世代)

지금 우리의 세대란 무엇인지 격동하고 있는 세대다. 그중에서도 뚜렷한 것은 가족제도의 변천이다.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이던 대가족제도가 차차 소가족제도로 옮아가기 시작하여 결혼한 자식들은 부모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있다. 이런 형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관념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즉 가족자체는 외적(外敵)으로부터의 방위와, 생각과, 전통과, 인습의 집적체라는 관념으로부터 이탈되어서 가족제도를 기브 앤드 테이크의 개념으로 보게 되어가고 있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보더라도 아버지를 권위의 심볼로 보는 옛날부터의 인습적인 존엄성이 붕괴되어서 기브 앤드 테이크로서의 아버지—더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해주니깐 자식인 나는 자식노릇을 해주겠다는 세계적인 풍조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퍼져가는 형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가지는 옛날과 같은 권위는 차차 깨어져 가고 있으므로 과거에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꼼짝 못 하고 맹종하는 인습은 감소되어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또 반항에서 오는 반사회적(反社會的)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규탄도 적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 노인에 대한 절대복종의 도덕은 급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일면에는 노인들이 지금껏 가져온 국가적 사회적인 보호도 줄어들었다.

경찰국가와는 달라서 지금은 경찰은 법 앞에서는 무력해졌다. 이런 법들의 배후에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완전히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헌법이 있어서, 이것이 젊은이의 유력한 자기방어의 무기가 되었다.

기성세대, 즉 아버지나 노인들의 무력화와는 대조적으로 젊은이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무서운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까.

따라서 지금의 젊은이에게는 열등감이 대체로 줄어들었으나, 그러나 사람의 열등감이란 영구히 없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보다는 퍽 줄어들었지만, 그 남아있는 열등감(없앨 수 없는)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이것의 비중이 커질 것은 뻔한 노릇이다. 하여간 기존 도덕들과 아버지나, 노인이나, 학교 선생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버지의 젊었던 때와는 전혀 각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또는 군대라는 사회집단에서나 윗사람은 그전대로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흔들면서 행세하려 들지만, 젊은 층은 맹종을 안 해주는 것이다. "너는 뭐냐. 단지 나보다 먼저 났다 뿐이 아니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식이다.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반항은 대담해져 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을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건도 났었고, 선생을 집단 구타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군대에서도 하급군인이 상관에 대담하게 대들기도 하고 또는 총질까지 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군대는 도덕가들의 모인 집단은 아니다. 자기는 일시적으로 국민 된 의무로 2, 3년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군대생활이란 자기의 참 생활이 아니라, 위장된 임시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억제력이 약한 사람은 사소한 일로 상관에게 덤벼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하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겠다는 도덕적인 훈육을 한다면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소득은 노력에 대해서 보잘 것 없을 것은 뻔하다.

폭력으로 소위 기압으로 부하를 대하면, 그 반발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에서는 무엇보다 군률 즉 군대의 법률로써 부하를 다스리는 것이 현명한 군대일 것이다.

× × ×

반항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은 복잡할 것이다. 그 사람의 부모의 성격과 자라나는 동안의 가정과 환경에서 받은 영향력이 문제가 될 것이고 보다도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의 성격과 어릴 때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던 경쟁의식, 시기심들이 문제가 될 것이며, 여기에다 그 사람이 속해있는 민족의 문화적 배경이 큰 영향을 끼치어 주는 것이다.

어떻게 교도(敎導)할 것인가?
청년들의 반항심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항은 청년의 미덕이라고 할만도 하다. 그러나 도에 넘치는 반사회적(反社會的) 반항은 어떻게 예방할 수가 없을 것인가?
첫째로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다. 자기의 현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대상자가 너무 많다.
가잔 편한 방법은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는 곳에서는 그 개인 개인을 이해해 주는 길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불안해하는 사람을 대면하여 가정 사정과 개인문제와 현재의 불안의 원인에 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걱정해 주고 그 해결책에 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방법이다. 카운슬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로는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누구나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성격이 신경증적(神經症的)인 사람은 열등감을 올바르게 승화(昇華)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반대되는 행동 즉 공격으로 터지기도 하는 것이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문의 장점을 발전하여 그것을 더 발전시켜줌으로써 자신을 길러주는 방법이다. 누구나 한 가지 재주를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다음은 공격력의 방향을 딴 곳으로 전향시켜주어야 한다. 누구나가 외부로 발산시키려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공격력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쓰레기다.
이 공격력의 발산을 스포츠로 발산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권투·사격·축구·배구·야구·경기, 무엇이든지 좋다. 운동장과 준동시설이 완비된 학교의 학생들에는 스트라이크가 안 일어나고, 학생끼리의 싸움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군대 같은 집단에서도 병사를 휴양시킨다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낮잠을 재우는 것보다는 스포츠를 시켜야 한다. 일본 군대가 강했던 이유의 하나로도, 병사들에게 쉴 새 없이 교련과·격검·유도 따위를 시켰던 것을 드는 사람이 있다. 미국군인 있는 곳에 스포츠가 따르는 까닭이 여기 있다. 소인(小人)이 한거(閑居)하면 잡념만 나는 법이다.
다음은 교육을 들 수 있다. 종교적인 감화도 좋다. 좋은 강화(講和)도 유익하다. 방향은 청년의 특권이다.
사회적인 반항에는 이해를, 병적인 반항에는 사랑과 치료를, 병적인 열등감에는 신앙을, 청년기에 공통된 열등감에는 희망을 줌으로써 병적 행동으로 폭발되기를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의(懷疑)와 신념(信念)

김재준(金在俊)
<한국신학대 교수(韓國神學大學 敎授)>

회의(懷疑)는 물론 진리탐구(眞理探求)를 위한 불가결(不可缺)의 무기(武器)다. 사람들이 일러주는 대로 무조건(無條件) 믿어버리고 만다면 허위(虛僞)가 왕좌(王座)를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실보다도 허위가 더 유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는 비판이 절대 필요한데 비판이란 것을 기존(既存)한 그 무엇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리탐구'는 부단한 '회의'의 부석을 더듬어 행진하는 노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하나의 '진리'로 등장하는 데서 회의'주의'라는 것이 생겨난다. 환경이나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감식(鑑識)의 불확실, 확증할 수 없는 객체에 대한 견해의 불가신성, 원리라든지 '선험성(先驗性)'이라든지 하는 것의 허식성 등등을 지적하여 모든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하여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사에 단정을 보류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상대적인 관계됨에서만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령 이 '세계'로 말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렇다 하나, 동물 또는 원시인이 보는 세계는 이렇지 않을 것이며, 하루살이가 보는 시간은 하루가 굉장히 긴 일생일 것이지만 인간이 보는 경우에는 지극히 짧은 하루일 것이다. 우리가 '위업'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악덕'으로 밖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신'으로 숭배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우스꽝스러운 허수아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 또는 어느 누구가 '만물의 척도'가 될 무슨 절대적인 표준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혹시 갖고 있는 것 같이 자신한다면, 그 자신 자체가 안상(安想)인 것이다. 건강은 병과의 상대관계요, 선은 악과의 상대관계이다.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의 본성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만치 '단정'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그것이 그런 것 같이 생각된다고만 말해 두자는 것이다. "그렇게 입언(立言)하는 그 자체가 역시 하나의 '단정'이 아니냐고 공격한다면, 그들은 이 화살을 쉽사리 피해 버린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런 입언(立言) 자체도 상대적인 보류 상태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견 없는'태도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런 '회의'는 고대 그리스의 궤변가들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기원전 3세기의 피로(Pyrrho C. 365-275B.C.)에 의하여 체계화하여 그 후부터는 '피로니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기원 3세기에 이르러 섹스투스 엠피리쿠스(Sextus Empiricus)가 더 자세히 논술하였고 근대에는 몽테뉴(Montaigne), 베일(Bayle), 흄(Hume) 등에 의하여 재연되었다. 그 극단적인 결과는 16세기의 프랑스 유불주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가 모든 존재와 원리를 의심했었으나 의심하는 자기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하는 유명한 말과 함께 그의 철학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는 '회의'와의 관련에서 의례 연상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심'은 '사고'와 같은 것이어서 회의는 사색의 일면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만테인은 찬부(贊否)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는 판단의 '부유상태'에 머무는 것을 현명한 태도로 여기고 있다. 그런 회의자는 '고정된 개척지를 망쳐놓는 정신적 유목민'이라고 칸트가 불평했다 한다. 하여튼 인간은 이런 미결정 상태에서 오래 거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테인이 이성과 비이성, 진리와 미망의 뒤섞임을 들춰놓은 데 공헌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자체에 안주지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으며 그 자신도 물론 그러했을 것이 사실이다.
회의의 본격적인 대결은 기독교적 신앙과의 관계에서였다. 제3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요, 호교론자(護敎論者)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과 회의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신앙과 전적으로 대립시켰다. 그는 "아테네냐 예루살렘이냐?"의 양자택일이다, 하고 외쳤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는 일이요, 일단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는 다만 절대 신뢰와 복종이 있을 뿐이다. 신앙자가 아직도 탐구한다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주 앞에 겸손하여 그의 뜻을 옳게 분간하기 위한 기원과 노력일 뿐이요, 무슨 온전히 신개척이나 신발견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에 의하여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어거스틴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는 그 자신이 회의와 철학의 왕국을 순례하여 영원한 진리를 몸소 탐색하는 경험자였던 관계로 철학이 그에게 철저한 '절망'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신앙에 소극적으로 이바지했다는 정도의 심정은 갖고 있었다. 그의 회의는 진리채탐(採探)의 피나는 몸부림이었으므로 그런 사상의 격정에 불타는 자로서 '판단보류'의 정지적인 아카데믹한 회의론에 안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카데미 파에 반론을 썼다. 그러나 그의 이 진리에의 몸부림은 광야를 헤매는 보람 없는 질문자밖에 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노라고 자백한다.
회의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신에 대한 회의에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확실성을 기대할 때 그 유일한 방도는 증명으로 나타나는 확실성이다. 그런데 신이란 개념에는 '절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들어 있다. '신은 절대자다.'그렇다면 신을 신 이외의 어떤 전적(全的)으로 분명한 무엇에 비추어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또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신의 성질에 관하여도 그것이 세계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에서 감득(感得)되는 한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선(善)만이라든지 정의만이라든지

사랑만이라든지 하고 단정하여 말할 만한지 분명하질 않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대화형식을 취해 본댔자 물음의 지평선은 끝없이 열려있고 최후적인 대답은 피차 기대하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만다.

신이 인간지식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공론일진대 '신앙에로의 비약(켈케고르) 없이는 무신론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이 부정되는 때 자존적 절대자인 우주와 인생의 창조주를 상정할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모든 존재의 '우연성'과 '단념성'이 여지없이 부조될 것이 사실이다. 이 입장에서의 가장 철저한 철학자로 니체를 든다. 그리고 가장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사르트르를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르트르에 있어서는 창조신이 있어서 만물을 규정한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자연이 상정지어 주는 전제일 수도 없다. 다만 자기가 자기를 실존적으로 규정지을 뿐이다. 인간은 자기가 있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또한 미리부터 지어진 인간본질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윤리적으로 이러하여야 한다든지 당연히 어떠해야 할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짊어질 아무 책임도 없다. 다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무엇을 해도 좋다. 그는 이 자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의 존재는 우연이어서 무에서 던져진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 아무 의미 없이 수집하며 무화(無化)해가는 구토를 자아내는 배리적(背理的)인 실존이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자기원인을 부상시키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것을 실현시키지는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결국 절망, 허무라는 것을 구가하게 된다.

켈케고르의 경우는 다르다. 파스칼이나 켈케고르나 실존에 대한 통찰은 심각하다. 그 우연성에 대해서도 전율을 느낀다. 그러나 켈케고르의 실존에 대한 관심은 우주적 법칙이나 윤리적 법칙이 아니라 실존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종교적 단독성에 경주되었다.

이 '단독자'란 개념이 켈케고르의 기본개념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단독자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이외에는 반려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때 그는 단독자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세계사라는 집단 속에 해소되지 않고 이 '단독자'로 개별화하는 양식을 반어와 권태라는 부정적인 현상이며, 그 밑바닥에 숨어 움직이는 비밀은 부정과 절망이다.

그는 ①인간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발가숭이가 된 생존 위에 세워놓는다. ②이것을 통하여 인간을 무 앞에 세우고 공허 속에 거치한다. ③이런 방법으로써 인간이 절망하고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로의 비약을 감행하든지 해야 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결단을 직면하게 한다. (Kar Lowith : Wissen, Glaube und Skepsis, Gottingen 1956, 임춘신 역 103면) 켈케고르는 지식과 신앙이 절대지 안에서 종합지양 된다는 헤겔식의 일원화를 거부했다. 그것은 인간지식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기독교적 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의 후예인 실존철학자 못지않게 죽음에의 존재를 응시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그는 이 철학에서의 신에 대한 철저한 회의와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 끝이려 하지 않았다.

인간과는 온전히 질적으로 다른 신과 그에 말씀에 대한 인간은 신앙을 그는 권고했다 . 그것은 물론 회의와 철학의 연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절대절명의 경지에서 격정으로 비약해 보라는 것이다. 무 앞에 섰던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의 품에 뛰어들어 보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온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전개된다. 단독자로서의 실존은 긍정적으로 신의 자녀가 된다. 허무와 절망의 영원한 지복으로 변한다. 그렇다고 그가 고정된 안정의 세계에 입주한 것은 아니다. 물결이 드센 대해 위에 일엽편주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는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존재이다. 모든 인간을 평균화한 국교회적인 덴마크에서 그는 오직 단독자로서 신 앞에 스스로 결단하는 길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요건이라고 보았다. 그와 동시에 그는 종교공동체, 사회주의적 공동사회가 시대를 구원하리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천박성의 통매하였다. 수량적인 강화가 윤리적인 약화를 가져오며 근속적인 안면이 약체화할 것이라고 그는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의 그룬드비의 사회개혁운동을 비난했었다. 그러나 그의 수백 년을 지낸 지금의 사회는 거대한 공동체를 뭉쳐서 다만, '단독자' 운동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민중에게 타살되는 순교자가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경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교자의 정신을 전적으로의 사회에 계획적으로 작용하며 경신의 활력을 그 속에서 조성하는 양면작전이 요청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 ×

나는 이상에서 사르트르의 종지점에서 켈케고르의 비약을 희구하는 심정을 암시했다. 그러나 세대에는 세대적 풍조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희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인, 특히 현대적이라는 젊은이들은 역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을 환영하고 실존한 자기 이외의 다른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으려 하며, 그 실존에 앞서는 온갖 전제, 본질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에게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신의 권위, 성서의 권위, 전통, 윤리 또는 습관의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인 인간이 절대자 노릇을 하려들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절망이다. 그들은 각자가 절대자임으로 어느 타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편이 되고 분산한다. 그래서 죽어간다. 니체가 "나는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이 썩는 냄새가 난다"했다지만 현대인은 내가 나를 죽였다. 우리는 지금 나들의 썩는 냄새를 피하려고 스릴러, 극장, 재즈, 음악실, 경기장, 증권회사 등을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회의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적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막다른 골목에 맞부딪혔다는 점에 있다. 일본의 대학들에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채택한 대학제의 과제가 고향상실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제 한 가지 명시해야할 것은 현대인에게는 어떤 주위에 안주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조직된 교회 등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위대한 피안에서의 신적인 인간과 만나는 산 경험만이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오만 강포하던 사울이 다메섹도 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에 불붙은 것 같이 그 실존과 풍조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병역이 있는 때, 혼자서 제국을 상대로 태산같이 서서, 이기는 신념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화

◇그처럼 걸작

시인 스펜서—(1552-1599)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대작「신선여왕」을 탈고하여 그의 후원자인 사우스 햄프턴 백작에게 보였다. 백작은 이 시고를 2, 3페이지 읽다가 부복을 불러

"저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에게 30파운드를 주라." 고 명령했다. 그리고 5, 6페이지를 더 읽던 백작은 뛰어 일어서며 소리쳤다.

"가만있어 20파운드를 더 주라!" 고 외치고는 또 몇 장 읽다가

"어이, 20파운드를 또 더 주라!"

하고는 몇 주 더 읽던 백작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 싸고 고함쳤다.

"그 사내를 집에서 쫓아내라! 내가 이것을 다 읽는 날엔 파산하고 말겠다."

◇키다리 공사(公使)

제임스 1세(1566-1625)의 궁정에 키다리 프랑스 공사가 찾아왔다. 풍채가 별로 좋지 않은 이 신사가 영국왕에게 배알을 마치고 퇴장하자 왕은 대법관인 프랜시스 베이컨(철학자·문학자·정치가, 1561-1626)에게 말했다.

"그대는 저 후작을 어떻게 보는가?"

"폐하, 저러한 키다리는 마치 4층이나 5층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한 건물은 맨 꼭대기에 있는 방이 설비가 가장 나쁩니다."

◇돈

프랜시스 베이컨(철학자, 1561-1626)은 학문의 힘으로써 인간의 자연에 대한 힘을 확대시키려고 생각했다. 어느 회합에서 "돈"의 가치와 무가치에 관해서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가장 좋은 하복(下僕)이며 가자 나쁜 부인이다."

◇묘책

헨리 4세(잉글랜드왕·1367-1413)은 절검령(節儉令)을 공포하여 의족에 황금이나 보석의 악세사리를 금했다. 그러나 좀체 실행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부칙으로 "앞으로 한달동안만 매춘부는 이 절검령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것은 100%의 즉효를 내어 황금이나 보석이 런던에서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의 왕비가 마치 쇼윈도처럼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궁궐에 나타났다. 이튿날, 이 법령은 즉시 폐지되고 말았다.

부 · 자유 · 민주주의

David M. Potter 교수의
<People of Plenty>에서

◇민주열차

민주국으로서 성공하려면 먼저 경제적 여지를 가지던가 또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민주주의 원리란 보편적 진리가 아니고 지성이 계발되지 않았던 수 세기의 결친 암흑지대는 무시되어 왔고 미국 독립 전쟁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왔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부가 제1위라는 사실에서이다.

물론, 이것은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다. 즉, 우리들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널리 채용시키고자 할 때, 우리들은 단지 민주주의의 신념을 타국에 불어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육성시키는 조건을 장려시켜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최근 미국을 방문한 영국인이 사회주의와 자유기업의 민주주의와를 비교하고 자유기업의 육성 여하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의존되고 있는가를 적절하게 예증하였다.

그 비교로는 여객열차가 출발하는 경우, 문제의 두 가지 제도와 어떠한 양상을 가질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취급하였다. 그 기술에 의하면 사회주의의 철저한 제도하에서는 여객정원의 좌석은 지정될 것이며 역원은 차표 소유자의 착석을 점검할 것이다. 또 역원은 빈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조절할 것이며 착석정리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규정을 어겨가며라도 발차시각을 지연시켜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운영의 수속절차는 많아질 것이며 여객은 화를 낼 것이고 열차 발차 시간표는 사실상 소용이 없게 될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식 민주주의(기술에 의하면)에서는 좋은 좌석을 탐내는 사람은 빨리 역으로 올 것이다. 좌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임박해서 오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아 있는 좌석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좌석의 선택권은 승객에게 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좌석을 정리한다. 감독도 필요 없고 비용도 필요 없으며 발차시간은 지켜진다고—.

어떠한 유추에도 관점이 있다시피 이 비교론에도 하나의 가정이 빠져 있다. 흠을 뜯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민주열차에는 누구라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여객이 언제라도 좌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 열차가 미국의 경제를 상징한다고 하면 내가 지적한 가정에는 타당성이 있다. 타국에 있어서는 이 가정은 들어맞는 경우도 있겠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민주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좌석 선택의 방법과 더불어 충분한 좌석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좌석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보수가 있었다는 것이 미국의 민주 제도의 유지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평등주의로 하여금 구세계의 평등주의와 다른 점의 특징이다.

◇유럽적 사고

본질적인 상위점은, 유럽은 일부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다른 자의 재산을 증대시켜야 하겠다는 필요에서 언제나 부의 재분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부의 재분배를 생각해 왔다. 유럽에서는 계급투쟁을 통하지 않고 사회의 제 분야의 상호관계를 변경할 수는, 일방(一方)이 타방(他方)의 희생이 됨이 없이 다시 말하면 적대자를 만들지 않고 상호관계의 변경을 오늘까지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부의 총량은 고정한 것이고 잠재적 부의 과반은 이미 구체적 부로 바뀌어졌으며 이 구체적 부는 항상 소유자의 수중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부를 가지려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은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부를 탈취해야 한다고 유럽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가령, 영국 노동당은 만약 미국 노동당이 있었다면 부과했으리라고 보는 부유층에 대한 중세()에 민감한 반면, 생산력의 증대를 그만큼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인은 부의 총량을 동적인 것이며 잠재적인 부의 과반은 현재 변형 중에 있다고 보아 여러 가지 다른 집단 (이를테면 자본가와 노동자)이 계급투쟁의 해서 상대로부터 탈취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부를 협동에 의해서 입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유럽의 과격사상은 부자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양복 등을 탈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대량생산 주장을 보이고 있다 부자를 미워하는 슬로건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적은 반면에 "나도 그 일에 한몫 거들자"고 하는 미국인은 많다.

◇미국인의 사고

미국의 부는 모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미국인은 확신하고 있다. 이 신념은 미국의 역사를 일관해서 여러 곳에서 명시되고 있다. 미국 독립 전쟁 전에만 해도 펜실베이니아 주의 변경 지를 불법 점거한 개척자들은 이처럼 많은 기독교도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원하고 있는데 이처럼 광대한 토지를 방치해 둔다는 것은 신과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고 선언하고 자기의 행동을 변호하였다. 그들은 아마도 땅에 대한 욕구는 자연의 질서의 일부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 여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것이 사회정의의 기준을 변경케 한 것이다. 가령, 노인으로 하여금 주당 30불 이하의 수입으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한 다운센트 박사에 찬성한 자가 많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빈곤을 추방하라는 요구를 공약으로 내건 아프톤 싱클레어를 지사로 당선시킨 것 등은 많은 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미국인은 대체로 계급투쟁의 사상에 반감을 가진다. 이 반감은 대제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미국인의 신념과 사회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증하기 싫어하는 두 가지가 결합된 경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미국인이 계급투쟁이라는 사상을 적시해 온 원인은 미국의 부의 증대가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미국인의 생활수준은 아직도 향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한 사람이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려면 그 증가의 과정은 어떤 다른 사람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그것을 자기의 수입으로 만듦을 의미한다. 만일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의 소득을 줄이지 않고 수입이 적은 사람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전 국민의 총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즉, 기존요소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으로 새로운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으로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사고방식은 이 후자에 속한다. 기존요소를 거부하고 자연의 부와 기술의 비결이 연구해 내었던 것이다.

유럽의 과격주의는 언제나 이로정연(理路整然)한 이론적 근거의 원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과격주의자는 무기를 면도날처럼 세우고 있다. 때문에 심히 복잡한 미로를 헤쳐서 명확한 도정을 세우지만 때로는 쓸데없이 원리나 이론에만 치우쳐서 논쟁을 일삼는다. 그들이 그러한 논쟁에 소일(消日)하는 것은 그들이 취급하는 사회문제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세련된 지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문제는 유럽의 그것처럼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변전양상(變轉樣相)은 이론적 해결을 불필요로 해왔던 것이다. 사실 미국인들의 문제 취급방법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뛰어넘었다던가 옆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었다. 가령 1880년대에서 1890년대에 가르쳤던 중대한 세 가지의 사회문제에는 그 예를 볼 수 있다. 첫째는 금은괴가 부족하여 보급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소수의 독점 기업가가 산업 전체를 장악했다는 것(존 록펠러와 그 일파의 석유 공업계의 예), 셋째는 운수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던 철도 등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는 문제였다.

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의 정치적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가령 통화의 복본위제를 채용하여 금은괴의 궁박(窮迫)을 구한다던가, 록펠러 씨를 억제하기 위해서 독점금지법을 제정한다던가, 또는 철도선박 운송문제에서 선박회사를 보호하는 각 주연합의 상법을 제정한다는 안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 제정은 여러 가지 난(難)문제가 개제하여 여의치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클론다크에서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고 금 재생방법이 발견되어 금괴보급의 궁박 상태는 역전하고 말았다. 또 텍사스 주, 그 밖의 지방에서 광대한 유전이 발견되어 독점기업 금지법도 감히 제정할 수 없을 만한 힘을 사랑하던 석유왕 록펠러의 지위가 역전되고 그물처럼 펼쳐가는 국도는 추락을 질주케 하여 철도의 운수업독점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오랫동안 입법문제로 옥신각신하던 국회는 그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였다. 미국인이 부와 자유를 동일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와 자유가 어느 것이 수단이며 어느 것이 목적인가를 가려낸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려움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목적은 이 두 가지를 요소로 해서 양자가 분리고립 되지 않게 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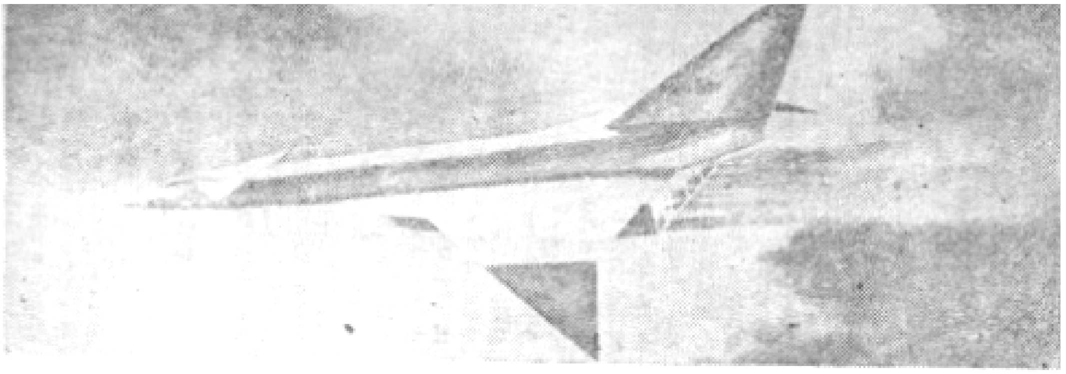
◇부의 정치학

미국 민주주의 사상에는 이 양자가 광범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인의 사고방식은 자유와 부가 일점에로 집합 되게끔 훈련되어 있지만 양자는 원래 그것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 양자가 밀접하게 연결된 일은 결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부를 입수할 줄 모르는 나라들에게 민주주의의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이며 대개는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 민주주의를 외국에 수출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쉽사리 성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실패의 예는 미국의 활동한 다른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

그 중요한 원인을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들 미국인에게는 구체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나라에서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정치학은 개인주의 정치학인 이전에 부의 정치학이며 부를 정확히 증가시키는 정치학이오. 부와 자유를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정치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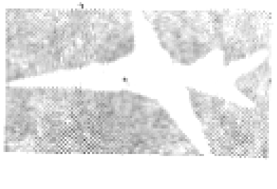
부와 자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소 짓는 정치학인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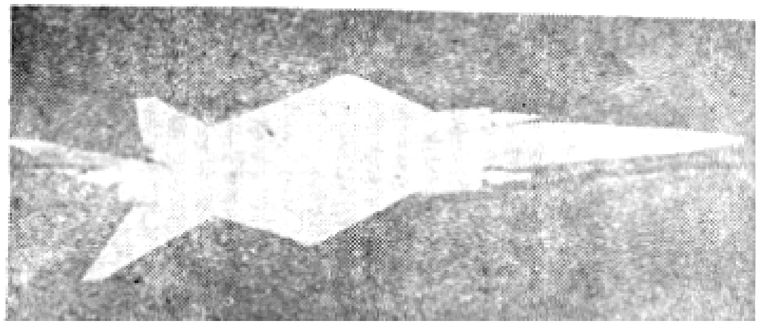


MACH 3.0 민간여객기(CANARD 익기(翼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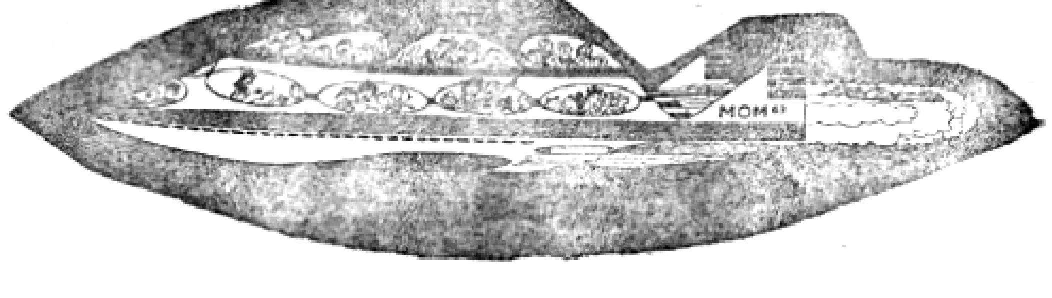
항공기 설계(航空機設計)의 경향(傾向)

홍성표(洪聖杓)
<공군소령(空軍少領)>





TFX(F-111) 전투기



음속 20배 이상의 우주비행

음속7배 이상의 RAM-JET항공기

19세기 초에 태어난 다윈은 그의 유명한 진화론을 발표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거니와 그의 진화론을 빌어보면 사람도 원숭이나 개화같이 하등동물로부터 진화하여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

오직 조물주만이 창조할 수 있는 만물까지도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이 발전하여 어제보다 새로운 것이 등장할 것이다. 하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세계 각국이 인간의 노력과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경쟁적으로 우주권을 정복하겠다는 이 마당에서는 더 재언을 요치 않는다.

이 세상에 인간이 제조한 숱한 것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항공기의 발전만 하더라도 물론 장구한 세월 속에서 연구하였겠지만 사람이 동력을 장치한 항공기에 라이트 형제가 사상 최초로 비행한 후부터 오늘까지 60년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무수한 변환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 가져올 것이다.

라이트형제가 지상으로부터 하늘 위로 비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욕망은 다만 어떻게 하면 동력 기관을 장치하고 잠깐만이라도 하늘을 날 수 없을까 하여 제조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극히 유치한 복엽(複葉)의 직포로 짠 항공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항공기는 벌써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먼 거리를 비행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1909년 7월 25일 당시 프랑스의 비행사 루이 블레리오는 자신이 설계한 지금의 collider의 동력을 가진 것 같은 단엽(單葉) 항공기로 프랑스 파리 구에서 영국의 도바까지 38Km를 37분 비행에서 현상금 10,000파운드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단엽항공기라 해서 설계상의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비록 낮은 속도이지만 장거리를 비행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불레리오에 의한 최초의 해양횡단 대비행에 자극을 받아 미국은 장차 항공기가 국방상의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군사항공에 힘을 기울였는데 프랑스도 이에 대항하여 항공부대를 창설한 것이다.

본격적인 군용 항공기의 필요성은 제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로서 1914년 독일의 한 비행선이 프랑스 진지에 폭탄을 투하한 것이 전쟁 무기로 항공기가 최초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이며, 오늘날과 같은 항공기의 활약은 1915년 여름부터로서 폭탄을 투하하는 데만 목적으로 제조된 대형 폭격기까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항공기는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나는 도구로 이용할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항공기의 설계도 자연히 그의 전투 목적에 따라 제조하기에 이르렀고 또 하늘만 날면 된다는 사고 방법에 의한 항공기가 아니요 상대방 적국의 항공기보다 우수한 항공기를 제조하여야 한다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전투기는 벌써 제1차 대전 중에 공중전을 벌이게 됨으로써 한 공기에는 우수한 무기를 가축에 되었고 이로 인하여 ACE까지 나타나 최고의 기록의 소유자는 실제에 있어서는 136대까지 격추한 비행사까지 있었던 것이다.

1차 대전이 종료되면서부터 평화가 돌아와 전투 목적으로 사용된 항공기는 상호 경기용으로써 속도기록기로 발전하였으니 항공기의 속도도 최소 200Km부터 300Km까지 약진함으로써 양력이 좋고 안전성 있던 복엽기들은 차츰 폐기되고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하여 기체전반에 걸쳐 작은 단엽기부터 시작하여 강력한 발동기 제조에 이르게 되었으니 1925년에는 회전식 공냉성형(空冷星型)의 약간 발동기는 자취를 감추고 전면 면적이 적은 수냉V형 12기통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제2차 대전 전 1939년에는 독일의 ME-109 R이 최대 속도로 시속 755Km의 기록을 수립하였고 장거리 비행에는 1939년에 이탈리아의 S-82가 12.939Km을 비행하여 우수한 기록을 남겼다.

항공기의 발전이 더욱 눈부시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로써 군용기를 가진 국방상의 중요성은 개전벽두(開戰劈頭)로부터 각국의 항공기 설계, 제작기술의 진보 및 생산력의 증강은 전전(戰前)에 비하지 못할 만큼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전쟁이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무대는 종래의 육전(陸戰), 해전에서 일약 공군으로 이전되었으니 아마도 이때부터 "하늘을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여하튼 제2차 대전은 피스톤 엔진의 전성기를 장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2차 대전에 보다 고속항공기를 출현시킬 목적으로 이탈리아, 영국, 독일의 선각자들이 제트엔진을 연구하여 1939년 8월에 독일의 HE-173이 제트기로서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고 1944년 항에 영·독 공군의 선진으로써 실전에 참여하였고 한국 전선에서 본격적인 제트기의 활약이 있었지만 최초로 한국전에 참여한 F-80 Shooting Star도 1944년 1월에 시험 비행에서 성공하였던 것이다.

제트엔진을 장비한 항공기가 이 세상에 출현하면서부터 특이하게 달라진 것은 프로펠러 대신에 흡입구가 필요하게 된 점이다. 그러나 기체의 외형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역시 한국전 중 참여하였으며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되어있는 F-86부터 후퇴익(後退翼)을 가지게 된 것이다. F-86 보다 후에 F-84F 형이 후퇴익을 가졌지만 후퇴익의 선구자는 F-86 이라 할 것이다.

항공기의 속도가 고속화됨에 따라 당연히 기체의 구조도 일변케 되었으니 고속비행을 하려면 날개[翼] 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첫째 날개의 전선 반경이 작아야만 한다. 즉 날개 앞이 날카로워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날개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후선 쪽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셋째 날개 전체가 될 수 있으면 얇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래서 최근 음속을 훨씬 돌파하는 고속기(高速機)의 날개는 굉장히 얇아졌으며 반면 강도가 대단하다고 한다. F -104 음속 2배의 전투기는 직접 본 경험이 없지만 외지(外紙)에 발표한 바로는 그의 날개 전체가 얇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날개 앞머리가 하도 얇아서 면도날 같다고 하며 앞에 대면 비어지니까 비행하기 전에 헝겊을 씌운다고 한다.

F-86이 최초로 후퇴익을 가짐으로써 일약 유명해진 것은 그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일련의 설계 변화인 것이다.

후퇴익을 붙인 것은 음속 0.8에서 음속 1.0을 목표로 둔 고속기이며 이 때에는 전선에 30~45도의 후퇴각을 가진 것이다.

후퇴익(後退翼)을 붙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보통의 직선익과 같은 날개의 두께 부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류의 방향에 대해서는 후퇴각의 경우 익현(翼弦)(주익전선에서 후선까지의 길이)이 길어지는 결과가 되고 익후비(翼厚比)(익현대익후)가 자연히 얇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충격파의 발생을 느리게 하는데 익후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 F-86의 익후는 직선익라고 가정하면 11% ~12% 인데 후퇴익 35도를 가졌기 때문에 비행 방향(기류의 방향)에 대해서는 익현이 길어졌으므로 실제는 9.0~9.8의 얇은 날개가 된 것이다.

후퇴익을 가진 항공기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오늘날 음속 2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후퇴익을 가졌지만 그 반면에 큰 결점으로서는 공기의 흐름이 후퇴각으로 날개 위를 흐르기 쉽기 때문에 익단실속(翼端失速)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소련의 MIG형 전투기들은 설계상 기술적으로 제주 할 수 없어서 주입 장면에 약 10cm의 알루미늄 판으로 정낙현(鄭洛賢) 대위가 의거월남(義擧越南)한 전투기 MIG-15는 한 주익에 각 2개씩 장치하였으며 MIG-17은 3개까지 장치하여 고속기로 제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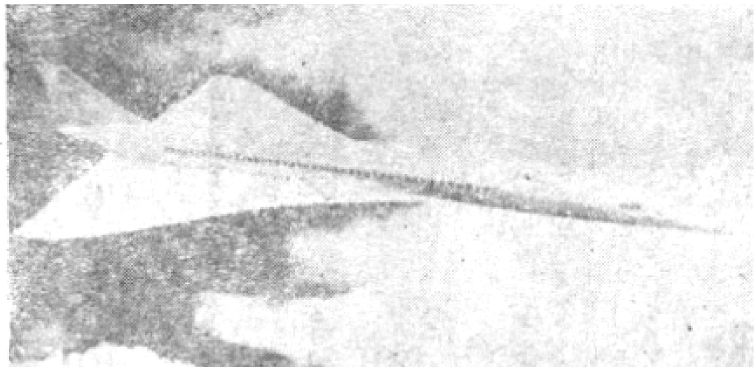
그다음에는 한국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상공에 비행하는 미 공군의 F-102 DELTA 익 전투기가 있다.

이 DELTA 익을 가진 항공기는 1948년 미 공군의 XF-92가 초비행(初飛行)에 성공한 후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이 그 비밀리에 시작(試作)연구가 행하여져 오늘날은 소형기로부터 장거리 폭격기(미 공군 F-58)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종에 채용된 것이다.

삼각익의 출현은 음속영성전후(音速領城前後)를 비행하는 고속기 설계의 상식으로서 고속기일수록 후퇴 각도를 크게 할수록 유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퇴익은 구조상 대체로 45° ~55° 가 한도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최대한의 45° 급의 후퇴각을 전투기는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F-100(공군)과 F8U-1(해군)인 것이다. 그러나 후퇴각을 무제한 크게 할 수 없으므로 나타난 것이 이 DELTA익인 것이다. DELTA 익선은 전선이 그의 후퇴각이 크지만 후선은 일직선으로 되어 동체에 직접 부착되어 강도가 크며 그로 인한 날개 부근에 익현이 커서 충격파의 발생이 늦으며 익내(翼內)에 차륜이나 연료TANK를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다.

DELTA 익도 후퇴각익기와 마찬가지로 그의 수명은 그 이상은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구조설계상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고 또 혹은 최대 속도가 그 이상으로 비행한다 하더라도 항공기는 그의 최소(실속)속도가 있는 한 최대 속도가 크면 클수록 최소속도도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최소(실속)속도가 크면 그의 최대속도의 장점과 반비례적으로 그만큼 단점이 큰 것이다.

왜냐하면 단점으로서는 착륙 시 활주로가 커지는 것과 또 공중전에 선회반경이 훨씬 큰 것, 끝으로 다용도성을 가져야만 할 최신예 전투기에서 대 지상 공격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 이외에 무한히 빠른 최대속도가 장점인 반면에 그만큼 단점도 많은 것이다.



영프공동 DELTA 여객기(MACH 2.0)

그래서 출현한 것이 새의 날개와 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익기로서 이러한 주익을 가진 항공기는 1951년 출현한 실험기로 되어있는 X-5에 최초로 채용하였던 것이다. X-5 실험기기 가변익을 장치하였지만 그 효과가 그리 좋지 않았은 듯한데 그의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항공기의 추축점(PIVOT POINT)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는 것을 설계상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추축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항공기를 실로 매어 달아보면 비록 모형항공기이지만 정확하게 수평으로 안전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축점은 만일 가변익을 가진 항공기라면 항공기 역학상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困難)한 문제로서 X-5 실험기가 1951년 출현할 당시만 하여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공군의 TFX(미, 육, 해군 VAX)계획으로써 설계하여 1963년도에 실험할 신예전투기는 공군의 채용명칭이 F-111 인데 이미 추축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듯한 것이다.

미국의 한 기술자는 소련도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변익을 가진 항공기를 발전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였거니와 현재까지 서방세계에서 입수 된 정보에 의하면 아직까지 발전시키고 있다는 정보는 없는 것이다.

이 가변익을 가진 전투기는 후퇴익을 크게 하였을 때는 최대 속도가 시속 1,700리인데 그의 가변익을 이용하여 후퇴각을 적게 하면 이착륙 속도를 시속 120리로 감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속도는 최근의 초음속기라면 이착륙 속도가 시속 150리 이상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그만큼 활주로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한편 속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후퇴각익기와 DELTA익기에서 단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충하여 주는 한편 다용도성을 지니는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다. 가변익기는 전투기만 한한 것이 아니고 음속 3배가량의 대형 항공기에도 채용될 것이라고 하니 그의 실용성의 전망은 1963년부터 대단해질 것 같다. 아울러 특이한 것은 이 해부터는 비행장의 활주 거리를 필요치 않은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제작에 부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F-104를 수직 이착륙용으로 개조할 계획을 금년에 수립하였다.

이상이 대략 1963년까지의 각종 항공기의 발전한 설계상의 변환을 들어 보았지만 여기에서 그 외에도 각 부문에서 진화되었으나 다만 추가하여 볼 것은 F-86 및 F-100 전투기가 공기 흡입구가 기수에 있는 반면에 초음속이며 최신 전투기인 F-101 이상은 기수에 전자장치가 장착된 RADOME이 있는 것이다. 이 RADOME의 빛은 그의 외파가 대략 세계 각국이 다같이 PLASTIC이기 때문에 흑색 아니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으며 이 RADOME이 장치된 전투기들은 거의 완전한 전천후성을 가진 항공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신예 전투기이지만 소련의 MIG-21 전투기는 기수에 흡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한 전천후성일지라도 완전 전천후는 불가능할 것 같다.

수년 전만하더라도 기수에 전자장치를 적재한다고 하는 것은 소형화의 문제로 곤란하였으며 미 공군의 F-94C와 F-86D 전투기가 최초의 것인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기수에 전자장치를 적재하지 않으면 그의 군용기로서의 가치가 실추되는 것이다.

가변익기와 더불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CANARD 익을 장비한 대형 항공기이며 그의 전형적인 항공기가 미국의 음속 3배의 선각기인 것이다.

CANARD 익기는 주익이 있으나 그의 동체가 길고 또는 원자력 ENGINE이 정착될 경우에 방사능으로써 보호할 목적으로 긴 동체를 가짐으로써 보조주익을 기수부근에 장착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음속 7배 이상의 RAMJET 항공기들은 그의 주익이 달리 없이 미국의 최신형 자동차와 같은 모형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RAMJET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는 현재까지 몽상에 지나지 않으며 요원한 장래의 것 아니면 아주 망상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음속 7배의 항공기는 출현하지 않을지도 모르나 그보다 고속인 음속 20배 이상의 항공기가 영국에서 그의 가능성을 62년도에 발표한 바 있다. 그때의 항공기는 오늘날 해면상에서 항행(航行)하는 선박과 같은 모형을 가질 것이니 그러한 항공기는 인간의 조종으로 직접 지상으로부터 이륙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추진력에 의하여 상승한 후 각종 전자두뇌를 가진 조종 장치로 항행하다가 착륙할 것이다.

특 집

간접침략(間接侵略)을 분쇄(粉碎)하자

간접침략(間接侵略)과 우리의 정신무장(精神武裝)

김팔봉(金八峰)

근래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자면 사람들이 거의 반 건망증에 걸린 환자들인 것 같다. 새말로 말해서 모두들 노이로제의 증세가 대단하다는 말이다. 아마도 이 병의 증세는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 증세가 있음을 알고, 그 틈을 타서 자유진영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저희들의 사탕발림 수작을 선전해서 이익을 거두려고 애쓰는 것들이 바로 공산당들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당은 자꾸만 말을 바꾸고 또 행동하는 수단을 바꿔가면서 이모 저모로 우리들에게 덤벼오는데, 우리들은 지나간 일들을 잊어 먹고서 자칫하면 저놈들의 수작에 귀를 기울이기 쉬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6·25의 처참한 공격을 치루고서도, 휴전된 지 불과 8년 만에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평화통일"이니, "UN 테두리 밖에서의 남북통일"이니, "중립통일"이니 하는 소리들을 떠들어 댄 국회의원이 여러 사람 있었고, 학생들은 저희들이 판문점으로 넘어가서 이북학생들과 만나겠다고 떠들어대지 아니했던가. 5·16에서 김일성도당은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한다고 평양에서 행동 요원을 양성하고 있었으니, 만일 5·16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구해내지 못했더라면 그해에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는지는 실로 위기일발이었다. 북한의 빨갱이들은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먹어버리려고 했던 까닭이다.

옛날부터 이웃 나라를 삼켜버리는 수단으로 잘 쓰여 온 방법이 두 가지 있으니 그 하나가 "전쟁"이오, 다른 하나가 '간접침략'이었다. 전쟁은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써 얻는 방법이요, 간접침략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서 상대방을 굴복시켜 빼앗는 이익이었다.

2000년 전 옛날 중국에서 진나라가 6국을 삼켜버린 후 천하를 통일하였을 때도 될 수 있는데까진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수단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빼앗겼던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서 간접으로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그때의 말로는 '모공(謀攻)'이라고 하였다. 꾀로써—모략으로써—상대방을 침략한다는 뜻이니, 지금 말로는 바로 간접침략이다. 저 유명한 손자(孫子)는 그의 병법 13편중에서 제3편을 모공에 대한 이야기로 채웠을 뿐 아니라 맨 끝의 제13편에서는 용간(用奸)—간첩을 사용하는 이야기로 채웠으니, 간접침략과 스파이 전술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얼마나 중요하였던가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손자는 말하기를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기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니요, 싸우지 않고서 저놈을 굴복시키는 것이 제일 잘난 것이니라." "그런 고로 가장 훌륭한 자는 적의 꾀를 정복해 버리고 그 다음 가는 자가 적의 동맹국을 떼어버리고 꼴찌 가는 자가 직접 공격 전쟁을 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고서 영토와 인구와 재산을 얻는 방법을 제일가는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제 이 같은 숱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려는 빨갱이들과 마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정신무장에 조그만치라도 흠집이 생겼다가는 그 틈새로 적의 독소가 새어 들어오기 쉬운 까닭이다. 5·16 직후 혁명정부가 맨 처음에 내세운 구호가 "간접 침략을 분쇄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구호는 실지에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었었다. 만일 5·16 혁명이 반 개년만 늦었더라도 적의 간접침략은 이루어졌을는지 모르는 일이었는데, 혁명 후 2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2년 전에 위태했던 그 기억을 잊어먹은 것 같이 보인다. 지금도 계속해서 선전삐라·신문·책자 등 가지 각색 인쇄물을 우리들 몰래 우리 곁에 뿌리는 자가 바로 김일성 도당들이오, 방송으로는 날마다 혁명정부와 우리 국민을 이간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김일성 도당이건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적이야 우리의 틈을 빼개는 공작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의 경향이인 것 같다. 이 같은 정신상태는 적의 간접침략에 대한 무방비 상태다.

서두에서도 말했거니와 우리 국민들은 제발 건망증에서 깨어나야겠다.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어찌해서 6·25를 잊어버리고, 수백만의 동포가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지사방 흩어져서 피난살이 하던 지긋지긋한 고생을 잊어버리고, 155마일의 고지와 능선에서 불철주야 적을 방비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노고를 잊어버린단 말인가. 날강도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날강도—북한의 빨갱이들은, 지금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조금이라도 풀어져 틈이 나기를 눈깔을 흡뜨고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먼저 우리들은 일평생을 두고서라도 싸워서 기어코 빨갱이를 이기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서 싸우는 사람과 이 같은 신념 없이 싸우는 사람과는 단순한 팔씨름을 할 때도 현저하게 차이가 생기는 법이다.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거야말로 싸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째 무기요, 조건이다.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는 정신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고야 만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갖고서 적의 간접침략에 대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분쇄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같은 신념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하고, 허위와 기만에 가득 찬 말을 지껄이고 있는가 함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바탕을 이루고서라야 굳은 신념이 그 위에 자리를 잡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신념을 한 번 갖거든 그 신념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믿고, 내일 가서는 이래야 옳은가? 저래야 옳은가? 하는 식으로 갈팡질팡 오락가락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이란 신념을 세운 이상 그것에서 떨어져서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오, 양심을 속이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 까닭이다. 지조가 없는 사람은 한 푼의 값도 없는 사람인 까닭이다.

신념과 지조를 세우고 지키고서 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칼로 베어도 안 베어지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의지다.

불행히 적에게 맞아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기어코,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아니고서는 물러날 줄 모르는 내구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한 번 결심하고서 신념과 지조를 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험과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의지력이 있는 법이다. 이 같은 백번 꺾어도 꺾이지 않는 의지력을 길러야 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고 넋이야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고 하듯이, 몸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나의 정신만은 공산당을 쳐부수고 말겠다는 의지력을 확고하게 길러야만 하겠다.

지금 적과 우리는 155마일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기는 하나 적의 간접침략을 방어하는 휴전선이라는 것은 없다. 정신을 벌레 먹게 하는 침략에는 적으로 휴전이란 현상이 없어 왔다. 정신이 허약하던지, 침략했던지, 퇴폐했던지 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적에게 침략을 당하기만 하는 것이 정신계의 현상인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우리가 적의 간접침략을 끝까지 분쇄하기 위해서 정신무장을 하는 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념, 지조, 의지를 세운 후, 적이 간접으로 침략해 오는 온갖 방향에 대해서 항상 날카롭게 경계하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적은 우리의 혁명정부를 미국의 앞잡이라 하고, 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충복이라고 중상하면서, 국민들과 정부와를 이간시키려 한다. 이것은 빨갱이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소위 이데올로기 전술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듯이 달래고 꾀송거려서 혁명정부를 배척하도록 선동하는 것이겠지만, 이따위 수작에 속아 넘어갈 대한민국 백성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넓고 또 모든 사람의 생활정도가 똑같지 않으니까 때때로 여기저기서 불평을 폭발시키고, 반항의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틈바구니로 적의 간접침략의 독소는 숨어들어 오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거나 풍속이 거칠어지거나 하면 그 틈바구니로 그 사회 그 가정을 좀 먹어 쓰러뜨리는 독소가 들어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항상 간접침략의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번식할 수 있을 만한 질서의 문란과 풍속의 퇴폐를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항상 우리들은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반듯한 도의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다음으로 적이 노리는 것은 근로하는 하층사회의 일꾼들에게 경제적 이해문제를 꼬집어 가지고 불평을 더욱 부채질을 하고 그 불평을 키워서 폭발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가 혼란해지고, 혼란해짐으로써 저희들의 선동과 선전은 더욱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5·16 전에 대한 석탄공사 산하의 광부들과 항만의 부두노동자들과, 교통 운수의 종업원들과, 기타 각가지 부문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인상 등 여러 가지 대우 개선의 요구조건을 내걸고서 동맹파업을 일으키게 하여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던 현상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른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월급쟁이보다도 수입이 많은 은행원들까지도 동맹파업을 하겠다고 수근거리던 일이 있지 않았던가. 학교의 교원들까지 교원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들먹거렸으니, 이런 것이 모두 간접침략의 교묘한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해문제를 가지고 근로자와 기업가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적의 간접침략의 마수가 뻗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화평한 분위기 가운데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생활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니까 경제적 이해문제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 같은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는 먼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적의 간접침략의 수단이 비상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의와 관심이 항상 이같이 우리나라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곳에 쏠리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5·16전에 무질서·혼란·불안·위기일발의 경향을 항상 회상하면서, 적의 간접침략을 분쇄할 각오를 견고히 가져야 할 것이다.

간접침략과 반공 조직

1. 공산주의 간접 침략
2. 국민생활에 뿌리박은 반공 운동
3. 자각있는 생활체제의 확립

박관수(朴寬洙)
<한국아시아반공연맹 이사장>

1. 공산주의 간접침략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통일전선이니 남북협상이니 인민전선이니 평화공존 혹은 전쟁불가피론 등의 다양 다채의 슬로건을 때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 제멋대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적화하고, 자유애호 인류를 공산당의 노예화하려는 그들의 종국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통일 전선을 부르짖는 공산당은 전 민족이 공산화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는 통일전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평화공존론 역시 자유세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및 과학 등 온갖 부문에서 자기들의 실력 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는 저자세를 취하는 평화와 과장된 우의의 미소를 던지게 되지만 일정한 시일이 경과되어 그들 자신 자유세계에 대한 침략전을 수행할 힘이 육성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은 종전의 태도를 돌변하고 전쟁불가피론 등의 대서방 강경정책을 쓰게 되며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게 된다.

근래에 이르러 공산주의자들은 자유세계와의 투쟁에 있어서 군사적인 침략행위는 오히려 제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제1차적인 투쟁 방법은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심리, 사상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유세계의 내부 붕괴와 교란을 시도하는 간접침략에 집중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간접침략을 통한 세계적화의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토대로 하여 얻은 그간의 경험과 치밀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기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자유세계를 전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인 전술 과학으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북한 괴뢰집단이 남북협상이니 한국 중립화니 남북 학생회담 등의 대담선전을 전개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남한에 이미 밀파된 공산 공작원들이 이에 호응하여 암암리에 내부 교란을 위한 치밀한 간접침략을 병행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난날의 반공운동은 일부 반공을 단체에 관여하는 극소수의 인사들만이 독점물과 같은 인상을 주어왔으나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반공운동의 방향은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사회 등 온갖 부문에 있어서의 광범위하고도 다각적인 조직을 통한 범국민운동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침략의 방어를 위한 범국민운동 태세를 갖추기에 앞서 우리가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당면과제는 간접침략이 어떠한 형태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가를 국민 각자가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반공계몽 혹은 국민반공교육의 필요성이 역설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괴뢰집단은 사상 및 방첩 교육을 위하여 북한 국민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소비되는 시간과 인원과 예산은 실로 방대한 숫자에 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도시와 촌락을

막론하고 15가구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반상회를 조직하고는 각반마다 공산 비밀당원을 배치하여 국민 개개인에 대한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아침저녁으로 반상회를 열고 공산화 교육과 대남악선전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산당들은 농업협동조합, 소비조합, 수산협동조합, 직업동맹, 민청동맹, 농민동맹, 여성동맹 등에서 소집하는 귀치않을 정도로 많은 회의에 출두하여 공산주의 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대학,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까지도 아침저녁으로 대남 허위 악선전을 위시한 왜곡 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주변이나 해변가에 낯선 사람이 오면 나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직접 내무성에 그러한 사실이 보고 될 정도로 잘 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정한 공산 교육을 인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남 간접침략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교묘하고 악랄하고 파렴치할 것은 뻔한 이치다.

북한각처에서 특수 훈련을 받고 치밀한 계획 밑에 남파되는 수많은 공산 간첩과 선전 공작원들은 휴전선을 넘고 혹은 해안선을 타고 대한민국에 잠입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노동자, 농민 등 우리들 주변에 침투하여 민족주의 평화주의 혹은 애국자 등을 가장하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때로는 살인 방화 또는 게릴라전까지도 준비할 때가 있으나 대체로 반정부 또는 반미 선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혼란 상태를 조성하여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전복과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고도로 발달한 이러한 간접침략의 수법은 비단 한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자유세계의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 반공운동 국민생활화

반공 조직과 반공교육의 필요성은 2차 대전 후 공산주의의 피해를 입게 된 자유세계 각국에서는 하나의 정책 문제로 되었으며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의 신생 독립제국에서는 대공정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원수의 신년 메시지나 정부의 주요 시정방침 발표 때마다 적극적인 방공실책이 표명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는 반공운동의 조직화 과정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전도요원한 바 있다.

한국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판 짓게 될 중대한 대공투쟁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는 조직력 없이 구호에만 그치는 반공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직화된 반공 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으니 이는 바로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는 먼저 적을 알라"라는 병서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민족반공연맹 임시총회에서는 반공주의의 오류와 모순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 이론의 확립과 모든 국면에 걸쳐서 공산침략과 침투에 대처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반공전략 및 전술의 연구, 강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국제적 반공지도자 실천요원 지식인 작가 저널리스트 노동조합원의 훈련 및 공산주의 허위선전을 폭로 분쇄하고 자유의 복음을 널리 퍼트릴 수 있는 공보 및 문화 활동의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센터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설치할 것을 회원국 대표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1963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것을 이 아시아 반공연맹 자유센터는 현재 일반국민과 아시아 반공연맹 회원국 및 기타 자유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정성어린 모금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시내 장춘단에 건립 중에 있다.

이 건물이 완성되고 자유센터가 개관되면 22개국에 달하는 아시아 반공연맹 각 회원국은 물론 자유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반공요원 후보를 이곳에 파견하여 인민에 대한 노예와 음흉한 수법에 의하여 세계적화를 꿈꾸는 공산주의에 관한 산지식과 또한 공산주의자의 침략과 침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다각도의 교육을 받게 되며, 자유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각국의 반공요원들은 각기 본국에 돌아가서 센터에서 받은 훈련과 지식을 토대로 그 나라 실정에 적응되게끔 반공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중견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유센터는 또한 한국 국민에 대한 반공계몽과 대공투쟁의 조직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각 도, 시, 군, 읍, 면의 행정구역 단위와 학교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동조합 및 각종 기업체 등 직장단위의 민간 반공운동 요원이나 혹은 재건 국민운동 요원을 철저히 훈련시켜 비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지방행정 구역 단위와 직장 단위로 배치되는 이들 훈련된 반공요원은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에도 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지속하며 각자 담당구역 내의 일반 국민에게 인민을 탄압 착취하기 위하여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공산당의 정체를 폭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간접침략에 사용되는 가지가지의 비열한 행동을 설명하는 반공계몽강연회를 시골 각 촌락에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은 공산당의 정체와 그네들의 대남 간접침략에 대하여 모르는 점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공산요원에게 질문하여 의혹을 풀 수도 있을 것이며 공산주의에 대하여 공동 연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배치되어있는 반공 요원은 자유센터에서 연구 발표된 자료에 의하여 자기의 교육대상자들에게 반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산주의 이론의 오류와 모순을 연구 발전시키려는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촌락과 직장 단위의 반공교육 다시 말하면 국민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반공계몽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온 국민은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알게 되고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게 될 것이며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반공 대열에 참가하게 될 때 비로소 승공통한의 길은 널리 열리게 될 것이다.

3. 자각 있는 생활체제의 확립

공산주의자의 간접침략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사회 등 온갖 부문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조직적으로 파고드는 심각한 현실 사회에서 공산도배들과의 투쟁을 성공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는 반공계몽운동에만 집중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공산 간접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을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력한 국가경제 부흥을 통하여 국민 경제생활을 북한 공산 사회보다 언제나 우위에 서게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간접침략은 항상 빈곤과 혼란과 불평 속에 악착같이 파고드는 고로 국민 각자가 정부의 의욕적인 경제개발정책에 순응하여 사대주의 사상과 의타심을 버리고 노동자, 기업주, 농어민들을 막론하고 전국민이 자력갱생과 복지사회건설에 총역량을 집결하였을 때 공산 역도들은 이 강토에서 발붙일 곳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자의 간접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는 우리는 도의생활에 있어선 공산주의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끔 철저한 국민 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도의라는 것은 천리와 인정에 순응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진정한 도의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평화와 자유와 질서 있는 사회가 스스로 건설되는 것이다.

공산두목들이 폭악 잔인하고 인간을 기계나 동물시 하는 것은 천리를 거역하고 인정을 몰각하는 냉혈아적 행동을 자행하는 것으로서 오직 대중을 착취와 압박과 기아와 노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자기네들의 야욕 충만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비단 공산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의 지도층에도 사리사욕의 충족에 눈이 어두워 도의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결과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부정과 부패는 극악에 달하여 사회가 일대 혼란상을 노정했던 일이 있다.

이는 비록 공산당의 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도자의 양심이 마비되고 도의가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공산당의 행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면 도리어 공산주의자들에게 간접침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이적행위의 죄악을 저질렀다고 본다.

5·16 혁명은 바로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층을 몰아내고 양심적인 일꾼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공산 북한에서는 직업동맹, 민청동맹, 농민동맹, 여성동맹, 농협반상회 등의 조직을 통하여 이민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수시로 인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있으나 우리의 간접침략 분쇄를 위한 대공투쟁은 인민을 꼼짝달싹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묶어놓은 공산당의 조직을 모방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대남허위선전과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공산선전을 위하여 방대한 국가예산을 소비하는 북한괴뢰의 본을 따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당과 공산주의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공산주의자의 여하한 감언이설에도 부동되지 않는 자각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계몽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평화공존(平和共存) → 평화공세(平和攻勢) → 간접침략(間接侵略)

조성직(趙成稙)
<내외문제연구소·전문위원>

공산주의자들은 그 본질인 세계침략공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갖은 기만적인 전략전술을 수립하여 자체역량의 신장강화에 전 역량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 경주하여 왔던 것이다.

물론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비할 바 없이 강력한 자유민주 제국(諸國)에 대한 일시적 보합(保合)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공산국가 내에서 자체역량을 정비강화하며 물질적 기술적 부를 축적 강화하는 시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고안해낸 것이 즉 평화 공존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제 국가 간에서는 평화공존의 이론적 근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의 유래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이론에 부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제국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레닌의 이론을 고찰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발전 및 풍부화하여 자본주의 시대를 심각히 분석한 결과 최초는 일국(一國)으로서만이라도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이론으로 당을 무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의 현실 자체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를 획득한 일국 또는 제국의 집권이 이여(爾餘)의 세계 즉 자본주의 제국과 공존할 수 있다는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레닌은 "평화공존은 객관적 합법칙성이며

장기간의 역사적 시기를 통하여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전시기를 통하여' 작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국이라도 전 세계의 자본주의 제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하고 있다"라는 궤변을 레닌이 하였다고 강조하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극구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소련과 자본주의 제국 간의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며 기타의 사회주의제국도 이에 적응하는 이론을 수립하여 마치 이것이 레닌의 이론을 풍부화 하였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선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소련은 제2차 당 대회부터는 스탈린의 개인 숭배사상을 전면적으로 탄핵하여 소련 외교정책에서 스탈린 개인숭배에 수반하는 무연(無緣)한 협잡물을 일소하는 임무를 결정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자본주의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선을 채택하였다는 이론을 퍼트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평화공존 노선의 실천적인 지침이며 이것을 항상 공산주의 국가의 외교 기본방침이라고 논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독선적인 이론을 견지하는 이유는 공산권 제국과의 침략성을 은폐하고 자본민주주의국가와의 '힘'의 대결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만한 시기까지는 혹은 자본주의 제 국가를 능가할 만한 준비적 기간까지 현혹적인 평화공존론을 주창함으로써 잠정적인 평화공세로 자본주의 제 국가를 유연성 있게 무마하여 공산주의 세력을 팽창강화 시키려는 전술적인 SLOGAN에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있는 것이다.

평화공존의 주요 내용

사회주의 제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제국에서도 평화정책을 취하여 정치수단인 '병기고'에서 냉전이란 도구를 폐기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이 전쟁 준비를 중지하는 대신에 협상과 논의를 통하여 모든 분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국 간의 문화 교류, 경제 교류를 발전시키며 전면적 군비철폐(軍備撤廢)에 이르기까지 군비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의 평화공존의 전략 목표를 보면 2개의 각이(各異)한 사회체제의 평화경쟁에 의하여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압승할 것이며 세계전쟁이란 파국이 야기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후에는 사회주의는 기필코 자본주의를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체제를 압도하고 있으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우위는 금후 간단(間斷)없이 강화될 것이며,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제국에 대하여, 사회주의 제국이 인구 1인당 생산고에 있어서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것이며 완전히 능가하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 15년간의 평화적인 생산이 유지되면 충분할 것이다. 이 시기에 도달하면 세계의 일부에 자본주의체제가 유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계 전쟁이란 발발할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일소되고 말 것이다.

이상의 논리는 소련 제20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논리적인 체계이다. 소련 22차 당 대회에서는 소위 신당(新黨)강령을 채택하여 평화공존 논리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즉 전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과 소련 국민과 기타 제국민이 평화스러운 생활과 복지를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련 국가의 위력과 레닌주의당의 평화적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당과 중앙 위원회의 중요한 활동 결과에 의한 것이며, 그 외에 사회주의 제국의 형제당의 활동결과와 전 세계 평화애호 세력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에 의거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평화공존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에 결부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출발하여 전쟁과 평화의 문제 양 체제의 제 국가 간의 상호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소련의 외교정책은 이에 근거하여 평화정책으로써 출발하여 발전하였다고 흐루쇼프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공산권의 종주국가인 소련의 최고 지도자의 이론적 전개는 이것이 곧 공산주의 제 국가 내의 공통된 이론으로서

등장되며 항상 이러한 이론 자체는 레닌주의를 풍부화하였으며 발전시킨 것이라고 논술하는 것들은 소련 공산주의 지도자의 논술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이며 이것으로써 공산주의 제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확고부동한 이론체계로서 공고화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대한 불만과 이념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소련의 논지와 중공의 논조 간에 심각한 상위점(相違點)이 출현됨으로써 평화공존 이론과 평화공세에 대한 이념 차이가 노골화되어 공산당 내의 분쟁문제로 발전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중공에서 주장하는 평화공존 원칙은 근본문제를 상위한 양 체제 간의 무원칙한 평화공존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타협이며, 레닌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수정주의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평화를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타협에 의하여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완강한 투쟁으로써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간단없이 사회주의 제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식민지 종속의 해방운동의 역량을 조성(助成)하며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인민혁명을 조성하여 미국을 선두로 한 자본주의 집단에 대한 모순관계를 폭로하여 각 독점 자본 그룹 간의 모순을 전술적으로 충분히 이용하여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중·소간의 이념적 독립이 1956년 20차 당 대회에서 제기한 평화공존 정책, 스탈린 망령추방운동(亡靈追放運動)이 대두된 이래 음성적으로 대립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1년 소련 제22차 당 대회에서는 흐루쇼프가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를 고집하는 알바니아를 이단자로서 공산권으로부터 추방하는 추상(秋霜)같은 선언을 한 이래 더욱 악화되었고 다음으로 지난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의 대 쿠바 봉쇄조치에 굴복하여 쿠바에 있는 소련 미사일 기지와 핵 폭격기를 철수하기까지에 이른 소련의 대 쿠바 조치를 흐루쇼프는 "이성의 승리"이며 "영광스러운 자제 조치"이고 "평화정책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는 데서부터 대립이 더욱 심각화되었다. 즉 12월 25일 인민일보 사설에서 소련의 미사일 철수조치는 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국과 타협하여 평화를 구걸하는 비겁분자라고 규탄하였으며 이러한 평화 정책은 레닌주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수정주의적 범죄자라고까지 비난하였다.

특히 쿠바에서의 실패는 소련이 핵무기를 너무 과신한 때문이었다는 비판과 인류 역사의 운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민대중이며 결코 몇 개의 핵무기가 아니라는 종래의 신조를 재강조함으로써 쿠바에서의 실패는 인민 대중의 '힘'은 믿지 않고 서방진영의 공갈 앞에 경황실색(景況失色)한 탓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투항주의라고 신랄히 비방하였다.

이것은 즉 소련이 흐루쇼프에 의하여 소위 평화공존의 외교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타협과 양보로써 평화를 쟁취한 것이며 이것은 이성의 승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중공의 심각한 도전이며, 평화공존이란 기만적인 정치수단이라는 것을 공산권 자체 내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평화공존이란 어휘를 이용하게 된 근거는 공산권이 자본주의 제 국가에 비하여 후진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는 평화공존을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용하면서 제국가간의 평등, 내정 불간섭,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엄수 등을 강조하는 반면에 실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침략성과 기만성, 허위성 등의 내적칙성(內的則性)에 의하여 항상 자유진영의 약화를 도모하며 기회만 있으면 갖은 모략과 중상(中傷)을 다하여 가면서 민심 교란 폭동화 선동 정부전복공작 음모 등을 획책하고 사주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단으로 되어 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의 최고 정략적 목표로 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침략성을 자본주의 진영이다 전가시키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으며 항상 자본주의 진영의 소위 전쟁방화와 살육적 침략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 특히 소련에는 국가적 총력을 경주하여 전쟁방지에 헌신하며 평화로운 질서유지에 정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허위선전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소련이 정치적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평화공존이란 자유진영에 대한 참다운 협력희망의 표현이 아니고 그 막후에서 적화준비를 진행하며 세계침략의 야욕이 성숙될 때까지의 일정한 기간에 음성적인 군비확장, 기만적인 평화공세를 자행하는 동시에 그 실(實)에 있어서는 각종 형태의 냉전을 지속시키는 간접침략 행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절멸케 하고 지구상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명제를 도마 위에 놓고 공산주의자만이 가장 평화애호역량이며 전쟁 위험의 온상을 제거할 수 있으며 대립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자처하면서, 각국에 대하여 가장된 평화정책을 선전선동 하는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여지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평화 공존이란 가식된 병풍을 이용하여 열핵병기에 의한 충돌을 제외하고는 갖은 수단으로써 냉전의 고급형태인 간접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음흉한 침략수단이라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평화공존과 평화공세는 간접침략을 자행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며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소련 공산당은 항상 평화 애호적 입장을 형식적으로는 가장 강력히 견지하면서 소위 각국 간의 평화확보와 전쟁방지에 충실히 복무하는 척하며 또 이것을 위하여 양 체제 간의 평화적 존립을 극구 실천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평화공존 기간에 전쟁과 침략을 감행하려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강력한 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나아가서는 전쟁 위험의 근본 온상을 제거하며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복무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과장선전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기만적인 평화공세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인식시키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비하여 정치경제 면에서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저수준(低水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는 그들로서는, 표면으로는 전쟁의 절멸, 영원한 평화를 지상 명제로 내세우고, 핵전쟁으로부터 수억의 인적 손해를 구제하며 문명의 파괴를 구호한다는 구실로서 평화공존과 평화공세를 이용하며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평화를 절규하고 전면 군비철폐를 제의하고는 자유 진영의 협력이 결여하고 침략행위가 대두되기 때문에 좌절된다는 일방적인 독선을 주장하면서 자체의 위선적 평화공세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갖은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아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평화공존과 평화구호로써 전 세계의 양심 있는 평화애호 인민들을 위선과 교묘한 수단으로써 우롱하며 평화를 가장한 악랄한 침략자이며 잠식자라는 것을 여실히 증좌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지구상에서 부동한 환경과 문맹의 처지에 있는 후진국 중립국들에 대한 소위 가장된 평화 공세의 달콤한 전략으로써 간접침략을 자행하고 있는 양상들은 공산당의 침략정책을 일층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평화사절의 가면을 쓰고, 자본주의 국가는 침략자 혹은 제국주의자로 규탄하는 반면에 경제협력이니, 경제원조니, 혹은 각종 조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중립국, 후진 제 국가, 나아가서는 자유진영 제 국가에 정치 공작원과 지하당 조직공작을 위한 공산 요원을 밀파하여 평화스러운 각국에 사상교란, 민심이간 등으로써 점진적 잠식책동을 결사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 공산당의 술법이며 전략전술적인 침략수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는 공산당의 음흉한 침략정책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등 광범한 지역으로까지 만연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본주의 제국의 침략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방비책이란 명목하에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는 공공연한 공산 침략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들은 평화공존과 평화공세라는 간판 하에 자행되고 있는 간접침략의 고급 형태라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므로 평화공존과 평화공세는 공산당의 침략행위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며 이에는 반드시 간접침략으로써의 세계제패 의욕과 적화침략의 흉계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수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생리이며 공산당의 합법칙성이라 할 수 있다.

군내(郡內) 현상논문(懸賞論文)의 가작입선(佳作入選)

승공(勝共)의 길

송민호(宋敏鎬)
<공군소위·11전비단>

제1. 문제의 제기(서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언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민주(民主)대 공산(共産)의 2대 진영으로 분열되어 그 사이에는 도저히 가교할 수 없는 깊은 구거(溝渠)가 놓이게 되었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정치구조를 달리한 이 양대 진영이 핵전쟁을 피하고 인류역사를 파멸의 연원으로부터 구출하여 번영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욱 긴박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곧 공산주의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공산주의는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가능하면 어떤 곳에라도 부단히 전진하는 유동적인 하류로서 무서운 힘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침투하여 가고 있다. 근래 인류가 가장 경계해 온 2대 강적을 지적한다면 누구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와 "공산주의"를 열거할 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후자는 인간의 두뇌(기능)를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공격은 가견적(可見的)인 것이나 공산주의의 침투는 가견적인 것이 아닌 까닭에 이에 대한 저지방책은 더욱 곤란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핵의 공격은 아직도 예단(豫斷)할 수 없는 장래의 미지수임에 대하여 공산주의 공격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핵전쟁의 문제보다는 공산주의의 문제가 얼마나 더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인가를 규지(窺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소련은 세계적화의 전략상 전 세계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구역은 완전 적화된 지역(소련·중국·동유럽 등)으로서 그들은 이 지역을 '평화구역'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제2구역은 미국 서유럽 등 적화 불가능하여 일시 보류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들의 소위 '냉전구역'에 해당한다. 제3구역은 동남아·중근동·중남미 등 적화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전투구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제는 이 제3구역에 있다. 한국도 물론 이 제3구역인 전투지대에 속하고 있으며 공산 침략자들은 이 적화 제1목표 지역에 대하여 총력을 동원하여 적화공작의 조속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이미 벌어진 것이며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대안(對岸)의 불처럼 방관한다면 패배와 멸망은 우리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제2. 승공(勝共)의 전제여건(前提與件)

우리는 승공의 전제여건으로 공산주의는 왜 인류의 적이며 우리는 여하한 위치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공산진영과 대결할 것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마르크스주의의 신화성과 그 죄과(罪過)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은 최초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양대 진영의 대립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보는 것은 벌써 시대착오적인 낡은 관념에 속한다. 우리는 한때 무기가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의 그것보다 우수할 때 공산주의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에서 멀리 유리되어 독재와 착취를 상징하는 도구로 전화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는 맨 처음에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변질되어 오늘날 공산독재를 강행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었다. 그런 까닭에

양대 진영의 대립도 "이념의 대결"에서 점차 세력의 대결을 기초로 한 단순한 "심리의 대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만약에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질이 시종 문제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이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그 모든 약점을 그대로 가산하더라도 공산주의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원리를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말엽 마르크스 및 엥겔스에 의하여 성립되고 체계화되었으며 그들의 이론은 「공산당 선언」 및 「자본론」에 수록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산업 자본주의의 대공포기(大恐怖期)에 처했던 당시의 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하고 사회적 질환의 원인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점에서 큰 공적을 쌓고 수많은 신봉자를 얻었으나 역사의 추이는 그의 예언과 가정을 깨트리고 그의 이론을 하나의 신화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가 내세운 이상 사회의 건설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꿈에 불과했다. 확실히 마르크스의 이론은 20세기의 신화이며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피안(彼岸)인 것이다.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역대 지배자들은 마르크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 정치 현실을 마르크스 이론의 창조적 적용(또는 발전적 적용)이라는 말로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금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념에서 멀리 유리된 공산독재의 도구이며 인류를 현혹시키는 마술이다.

지구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체제로서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 확실히 혁명 직후의 상태는 이러한 독재기구를 필요로 했다. 그 당시 소련에는 혁명과업을 저해하는 내란과 외국의 간섭이 있었으며 특히 공산 혁명은 러시아 국민 중에서도 특히 소수파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때의 혁명가들은 주관적으로는 이러한 전제정치를 본지(本旨)로서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사회에 대하여 무엇이 선(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기네들의 권력이 확보되고 누구에게도 도전을 받지 않을 때 그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택한 정치체제는 강력한 독재기구였으며 전례 없는 전제정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정치형태의 확립이 실현될 때까지 그들이 구현하려던 국민의 안녕과 행복은 그들의 시책 순에 있어서 최하위에 떨어져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실로 1917년에 획득한 권력을 확립하고 이것을 절대화하는 투쟁에 전력을 경주하여 왔던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최초에 구현하려던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뇌리에서 완전히 망각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역사는 '이념의 구현과정'이 아니라 '정권강화의 과정'에 불과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던 그들이 도리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천부인권을 불인하게 된 것은 견고한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민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강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오늘날의 공산주의 권력기구는 국민의 평온한 지지나 어떤 이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전체주의 조직과 절대적 권력 및 이에 수반하는 수탈과 강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독재자들은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정신교육에 의하여 그들의 정상적인 두뇌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착취와 강압을 도리어 기쁘고 영광되게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공산지배 하의 인민은 모두가 두뇌기능을 상실한 정신병자이며 공산당에 예속된 노예인 것이다.

목 차

제1. 문제의 제기(서설)
제2. 승공의 전제 여건
(1) 마르크스주의의 신화성과 그 죄과
(2) 개체(한국)과 전체(세계)의 연관성
(3) 양대 진영의 노력(대공전략의 재검토)
제3. 승공은 심리전(두뇌회전)에서
(1) 무력전과 심리전
(2) 무력이 심리전에 미치는 영향
(3) 선전 및 지하공작의 현대적 의의
제4.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결론)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인간이성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려는 휴머니즘을 옹호하려는 것이며 이를 불인하려는 자를 인류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박멸시키려는 것이다.

(2) 개체(한국)와 전체(세계)의 연관성

한국은 자유세계와 공동운명적인 유대를 지니고 있다. 자유세계가 전진하면 우리도 그

만큼 전진할 것이며 우리가 후퇴하면 자유진영도 그만큼 후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국의 존망은 타국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 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광범한 범위에 걸쳐 긴밀히 결합되고 특히 제2차 대전 후 양대 진영의 대립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됨에 따라 일국의 운명은 그 국가의 존망을 좌우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난날 베를린 및 쿠바 사태가 수차 전 세계를 전쟁일발 전까지 끌고 갔던 일을 상기해 보면 이 사실은 곧 수긍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세계의 부분사회이며 우리는 자유진영의 일개편대이다. 북한 괴뢰군이 만일 휴전선을 침범한다면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휴전 규약을 위반한다면 소련과 중공이 이를 힐난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공 전략을 수립하거나 대공전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의 특수입장만을 고집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거시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의 문제는 인류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세계적인 견지에서 인류의 공통과제로서 고찰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양대 진영의 전략(대공전략의 재검토)

(가) 소련의 적화정책과 그 실천전략

1) 세계 정복의 야망과 그 추진력……소련의 대외정책의 최종목표는 세계 공산화에 의한 세계정복에 있다. 즉 소련 외교 정책의 본질은 자본주의 제국의 포위와 간섭을 배제하면서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는 동시에 제2단계로 세계를 적화하여 공산주의의 조국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공산제국(諸國)을 건설함에 있는 것이다.

소련은 이와 같은 야망을 실현하는 추진력에 있어서 탁월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련에 있어서 공산전략의 본부는 소련 공산당 지도부이며 이것은 곧 세계 총본부이기도 하다. 세계 각처에 잔재된 일선 공산당원과 전투원은 소련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그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은 소련이며 그들의 유일한 상전(上典)은 소련 공산당이다. 소련 공산당은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여 철의 규율과 비밀경찰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가 보유하는 절대적 권력과 강대한 군사력에 의하여 그들의 정책을 놀라운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 추진력은 다시 절대적 가치론에 의하여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공산 사회에 있어서 유일한 "진리의 저장소"는 소련 공산당 지도부이며 이로부터 유출되는 방침이나 시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일선 공산당원의 행동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유고슬라비아의 분리에 뒤따르는 알바니아의 반발과 중공의 노골적 대립 등은 이러한 국제 공산 기구(명령계통)에 적지 않은 암영(暗影)을 던져주고 있다.

2) 평화공존과 전쟁교리……러시아 혁명 이래 '전쟁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무력에 의한 자본주의타도를 선동하여 온 소련은 흐루쇼프 시대에 이르러 종래의 침략적 비타협성을 완화하여 '평화공존론' 및 '전쟁가피론'을 새로운 외교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곧 소련의 평화공존공세이다. 이러한 평화적 공존의 표방은 소련의 대외정책의 일대 전기를 이룬바 이에 기한 동서정상회담 및 군축회의 등은 양극화된 동서 양 진영 간에 교량을 축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상기한 소련 외교의 전화는 '세계적화'라는 기본 성격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이에 실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제 정세의 변천에 적응한데 불과하다. 더욱이 그들의 '평화관'과 '전쟁교리'를 더듬어 볼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깊은 신념을 두고 있는 그들은 평화란 '전쟁의 일시적 휴식기간' 또는 '수단을 달리한 전쟁의 계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평화적 공존도 간단없이 계속되는 전쟁의 수정형식 또는 발전형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접촉을 계속하는 한 전쟁은 원칙이고 평화는 예외이며 자본주의가 완전 붕괴되고 공산세계가 완성될 때 참다운 세계평화가 도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역분류 시에 적화된 곳을 평화구역이라고 하고 적화되지 않은 곳을 전쟁구역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련의 평화공존론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의도를 그 이면에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이를 공산주의의 평화선전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인류의 두뇌에서 공산주의가 침략적이며 호전적이라는 인상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음모와 기만에 찬 평화가(平和哥)를 열심히 불러대고 있다. 둘째로 이를 자본주의타도를 위한 군사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즉 서방측의 무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이 기회를 틈타서 자유진영과 대등한 전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소련은 현재 핵무기 기타 중무기(重武器)에 있어서 미국보다 열세에 있다. 소련이 이 열세에서 벗어나 미국과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소련은 이 시간을 평화공존론에서 얻어 보려는 것이다.

3) 직접침략(무력공세)과 간접침략(심리공세)……소련을 본영(本營)으로 한 일선 공산당의 침략 방법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 바 그 1은 직접 침략이고 그 2는 간접 침략이다. 전자는 무력에 의한 외부적 공격이며 후자는 침투, 선전, 선동 등 무기 이외의 무형적 방법에 의하여 내부적 교란과 붕괴를 도모하는 것이다. 간접침략의 온상은 빈궁(貧窮), 질병 및 무지에 있으며 공산주의의 병균은 이런 곳에 번식한다. 현대전이 무력전보다는 심리전으로 옮겨짐에 따라 심리공세를 목표로 한 간접 침략은 적의 주된 공격 방법이 되고 있다.

4) 미국 및 자유진영의 대공전략

공산 진영의 대회 정책의 본질은 침략 또는 공격에 있으며 자유진영의 대공정책의 목적은 이를 저지 또는 방어함에 있다. 적의 직접침략의 온상은 무력적 빈곤이며 간접침략의 온상은 경제적 빈곤 및 정신적 빈곤이라고 볼 수 있는바 대공 전략도 이러한 견지에서 고찰할 수 있다.

ㄱ)전쟁개념의 변질과 전력 증강의 목적……제 2차 대전 후 과학의 경이적인 발전은 보다 강대한 힘을 갈망하던 인류로 하여금 핵으로 구축된 '공포의 균형' 위에서 오들오들 떨리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 인류의 궁극의 무기라고 일컬어지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전 인류를 궤멸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핵 공격을 수반하는 전면전쟁이 야기된다면 인간의 육체와 재산은 일순간에 잿더미로 화(化)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적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폭력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자살행위'인 것이다.

미국 및 자유진영의 지도자들은 전력은 수행력이 아니고 억제력이라는 신념에 입각하고 있다. 즉 군사력을 포함한 전력은 특수한 국가목적을 위한 전쟁을 수행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그들의 전쟁의사를 억제 내지 포기시킴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강대한 저지력 내지 보복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련 기타 공산국가의 무모한 침략행위를 억제, 방지함을 최대 전략으로 하고 있다.

ㄴ)경제공세와 경제 원조정책……미국은 경제적 빈곤의 극복은 곧 공산주의의 극복이라는 신념에 입각하여 반공 전략의 일환으로서 경제원조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제2차 대전 후 미국의 마샬 계획은 소련의 경제공세에서 수많은 국가를 구출했다. 현재 소련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서구제국에 대하여 경제 침공을 중지하고 과잉인구와 자본결핍에 허덕이는 동남아, 중근동, 중남미 및 아프리카 제국에 대하여 가장 극렬한 경제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지역을 가리켜 달러와 루블의 경주장이라고 표현하는 상업가도 있으나 미국의 경제원조정책이 소련의 경제공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역도 이곳이며 따라서 미국이 경제원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도 이곳이다.

ㄷ)심리공세와 선전 및 공보활동의 의의……현대전은 흔히 심리전 또는 두뇌전이라고 불린다. 심리전은 그만큼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적은 무력공세보다 심리공세(간접침략)에 주력하고 있다. 심리공세의 주요 수단은 선전과 지하공작 및 첩보 활동이다. 크렘린은 연간 20억 불을 투자하여 자유국가에서 50만명의 공작원과 정보원을 활약시키고 있다. 소련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척하여 자유세계의 내부교란과 붕괴를 도모함으로써 공산주의 활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의 잔인성과 기만성을 폭로하며 민주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공보활동에 신경을 집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유세계는 심리전에 있어서 이때까지 너무도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었다. 특히 정치전(외교전)에 있어서 미국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으며 기만전술과 응용수법에 능숙한 소련은 언제나 우세한 입장에서 자유세계를 희롱해 왔다. 그러나 전세는 역전될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10월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의 만용에 격노한 케네디 미 대통령의 쿠바 봉쇄 선언을 계기로 소련의 우위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미국은 점차 정치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련의 반격이 어떠한 형태로 취하여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이때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소련의 기만전술에 또 다시 속아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련의 쿠바에서의 무언의 후퇴에는 어떤 음모와 간계가 숨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사태 진전에 민감하고 계산에 빠른 소련이 하등의 이유 없이 물러설 리는 없다. 거기에는 필경 우리가 상상도 못 할 무서운 흉계와 속셈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쿠바봉쇄를 과대평가해서는 아니 되며 좀 더 장기적이고 확고하며 조심성 있는 태도로 적의 동태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제3. 승공은 심리전(두뇌전)에서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이 공교롭게도 양대 진영 간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 "무기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크렘린의 붉은 군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생산을 계속하는 한 무기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멸공수단으로서 구태여 무력에 의거한다면 자기를 포함한 전 인류의 멸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전생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명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무기가 아닌 "두뇌의 힘"으로 그들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양대 진영의 대립은 실로 세력의 대결보다는 이러한 두뇌의 대결을 본질로 하고 있다.

(1)무력전과 심리전(두뇌전)

오늘날 동서 양 진영 간의 핵무기 경쟁에 있어서는 '공포의 균형'이 달성되었다. 따라서 핵무기 분야는 벌써 싸움의 장소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현금의 전쟁이 무익한 자살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한 전쟁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전례 없는 냉전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냉전상태에서의 공격수단에는 정치공세(외교 공세), 선전공세, 지하공세 등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심리공세'라는 말로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수단은 모두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심리를 변화시키고 또는 이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현대전에 있어서는 아방의 힘(무기)이 상대방을 여하한 범위에서 파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방의 행동이 타방(他方)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문제된다.

확실히 동서 양 진영 간의 대결에 있어서는 심리전이 무력전보다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양대 진영의 싸움은 무기가 아닌 두뇌(정신)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패를 겨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대공 전략도 무력이 아닌 정신력에서 이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후술함과 같이 무력이 심리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할 때 무력의 증강도 이를 소홀이 할 수 없는 것이다.

(2)무력이 심리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전은 정신의 대결이긴 하지만 무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심리전은 '무력의 뒷받침'(무력균형)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무력의 뒷받침이 무너질 때 심리전(냉전)은 열전화 되고 만다. 전쟁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는 인류는 핵 균형 위에 불안하게 지속되는 냉전 상태를 그래도 평화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가장된 평화'가 붕괴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쟁의 불안 위에 구축된 '가장된 평화'가 그래도 그들의 생존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핵 균형이 깨어질 때 그 위에서 있는 이 '가장된 평화'도 붕괴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현세대는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저주하면서도 이 무기 없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의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심리공세는 실력(무력)의 배경이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무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공격은 힘없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심리전에 있어서 주요 공격수단은 선전 및 지하공작 등이긴 하나 때로는 무력이 심리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0월 쿠바에서의 숨 가쁜 대결에 있어서도 소련이 미사일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섰더라면 그러한 굴욕적인 후퇴는 하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도 감히 해상 봉쇄와 같은 공세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공산 침략자들의 허세를 무찌르며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들과의 교섭에 있어서 대등한 발언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핵무기 기타 무력 경쟁에서 낙오되어서는 아니 된다.

(3)선전 및 지하공작의 현대적 의의

무력이 심리전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심리전에 있어서 직접적인 공격 수단은 선전, 지하공작 및 첩보활동 등이다. 물론 심리전(두뇌전)에 있어서 근원적인 무기는 인간의 정신(력)인 것이다. 현대전에서 무력증강보다도 철저한 정신무장이 요청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정상적인 두뇌의 기능을 상실할 때 여기에는 벌써 공산주의의 병균이 침투하여 오는 것이다. 적은 인간의 두뇌기능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서 선전, 유혹, 선동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바 이것은 모두 태양을 등진 지하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전과 비밀지하공작은 무시 못 할 정도로 자유세계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그 붕괴는 정신기능의 마비를 기점으로 한 파생적인 여파인 것이다. 두뇌의 힘으로 이룩한 위대한 오늘날의 문명은 공산주의자들의 무모한 '불장난'으로 인한 두뇌의 마비로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크렘린은 과거에 무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었던 영토적 전략적 수확을 선전의 힘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전의 힘은 실로 무기의 힘을 능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라벵 여사의 말을 빌리면 큰 신문 하나는 10척의 항공모함보다 강력하며 텔레비전 1대는 열 개의 탄막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저개발 국민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0명의 비밀 공작원은 5개 연대의 업적을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1달러의 선전비로 우리의 5천 달러의 무기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정복의 야망을 무기로써가 아니라 선전에 의한 민주정신의 마비로써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무력증강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더 긴요한 것이다. 민주사상의 보급과 육성을 위한 철저한 민주교육과 공보활동(선전) 및 종교 활동은 우리의 정신력을 기르는 유일한 길이며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첩경이다. 우리가 민주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적은 불시에 우리 두뇌에 창(槍)을 박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무장에 의한 방어에만 그쳐서는 아니 되며 그들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설득력까지 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4.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결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다. 공산군은 무력에 있어서 강대한 군대이며 전법에 있어서 탁월한 요술가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산군과 대결함에 있어서 그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여 우리의 무장을 이완시키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적의 힘을 과대평가하여 공포에 질린 손으로 공존과 타협을 간청하는 약점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냉철한 현실분석과 정확한 사태파악을 기초로 한 과감한 전진만이 승공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기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벌써 패배의 동기가 될 것이다. 무기가 아닌 두뇌의 힘으로만이 공산주의를 도괴(倒壞)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두뇌전(심리전)에서 자유진영은 이때까지 열세와 후퇴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전세는 이미 역전되어 자유세계는 상당한 전진을 보았다.

소련의 쿠바로부터의 미사일 기지의 철수는 이러한 전세의 역전을 가장 두드러지게 증명해 주고 있다. 확실히 쿠바사태는 기만과 허위는 정의 앞에 굴복하고 만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공산군의 기만과 허위로 장비되었음에 반하여 우리 자유군은 진실과 정의로 무장되어 있다. 허위와 진실의 대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허위의 편이 우세하는 법이다. 그것은 진실은 수단에 있어서 궁하나 허위(기만)는 분별없이 모든 수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만(허위)의 거짓됨이 발각될 때 그것은 진실(정의)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만다. 소련은 미사일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의 선전이 전혀 거짓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을 때 미국의 해상 봉쇄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의는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 기만과 불의와 역천(逆天)의 공산군이 정의와 인도의 자유군에 강복(降福)할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의의 법칙'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멸망과 민주주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끝—

◇권리의 행사

미망인이 된 공작비 아마리아의 데이후르트 별장에서 어느 날 독일의 시인 빌란트(1733-1813)가 역출(譯出)한 아리스토파네스의 「기사」낭독이 있었다. 그것은 늦은 가을철이었다.

거기에 마침 그곳의 지배자인 공작이 수렵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들렀다. 밖에서 들어온 공작은 방안의 더운 공기에 참다못해 창문 하나를 열었다. 그런데 엷은 옷을 입고 있는 부인들은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감히 춥다는 말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러자 괴테는 낭독에 지장이 없도록 가만히 걸어가서 소리 없이 창문을 닫았다. 그동안 먼 산을 팔고 있던 공작이 닫힌 문을 발견하고 자기 명령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문을 열어두었는데 닫은 자는 누구냐"하고서 하녀에게 물었다.

하녀들은 아무도 이름을 말할 용기도 없이 괴테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다. 이때 괴테는 자못 정중하게 그러나 비꼬는 말씨로 공작에게 말했다.

"각하, 물론 당신은 신하 전부의 생살권(生殺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판결이 있은 뒤에 행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공작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문을 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되는 위치는

따라서

$$-k_1\frac{m}{x^2}+k_2\frac{m}{(x-a)^2}=0$$

$$-\frac{M_1}{x^2}+\frac{M_2}{(x-a)^2}=0$$

로부터 구해집니다.

$$x=\frac{a}{1+\sqrt{\frac{M_2}{M_1}}}=\frac{386,00}{1+\sqrt{81.56}}km=20.260$$

(ㄷ) x_2 로부터 달 표면까지 역분사(지구 출발시와 같은 크기지만 분사 방향만이 반대)

$$\frac{d}{dx}\left(\frac{v^2}{2}\right)dx+\frac{k_1}{x^2}dx-\frac{k_2}{(x-a)^2}dx=-k\cdot\ dx$$

따라서

$$dt=dx/\sqrt{\left\{2\frac{k_1}{x}-2\frac{k_2}{(x-a)}-2kx+2c_1\right\}}$$

◎시간과 함께 Rocket 본체의 질량의 감소를 살펴보면,

달리 쓰면, $Av\frac{dm}{m}=k\cdot\ dx$

$$A\frac{dm}{m}=k\cdot\ dt$$

따라서 $A\log m=kt+$

정상(定常) 이상과 같은 계산법에 의해서 소요되는 비행시간을 구하고 출발시의 크기 같은 것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Rocket의 무게는? 지구반경 ━ =6378km 지구 달의 중심간 거리 $a=386{,}000$ km 달의 반경 R_2 =174km

$\frac{k_1}{R_1^2}$ 9.82m/, sec^2 $\frac{M_1}{M_2}$ =81.56 가 되므로 지금 k =19.6m/sec^2 정도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달에 착륙했을 때의 Rocket 본체의 질량 m_0 과 지구출발 시의

m_0 와의 비의 관계는

$A\log\frac{m_0}{m_1}=-17.2$ km/sec 가 됩니다.

(i) 만약 $A=-1.6$ km/sec짜리라고 하면

$\frac{m_0}{m_1}=4.67\times10^4$ 가 됩니다. 즉 달에 도착한 순간에 Rocket가 1ton이라야 한다면 지구출발 때, 연료를 생각하지 않아도, 약 47,000ton의 Rocket를 쏘아 올려야만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지금 더욱 처음 약속대로 다시 지구로 되돌아올 경우까 m_2 생각한다면(지구에 돌아왔을 때 Rocket본체 질량 라고 합시다.)

$A\log\frac{m_0}{m_2}=-34.5$ km/sec km/sec라고 하면,

$\frac{m_0}{m_2}=2.2\times10^9$ 가 되며, m_2=1ton

으로 해도 m_0 은 광적(狂的) 숫자인 22억ton을 요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계산에서 잡은 $V-v=A$ 의 값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답이고 이 A만 크게 하면 사정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A=-3$ km로써 계산한다면, $m_0=690\times m_1$ 즉 달에 1ton의 Rocket체(體)를 도착시키는 데에는 약 690ton의 Rocket를 발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왕복비행의 경우에는,

※ $m_0 \fallingdotseq 6.04\times10^4\ m_2$ 가 되고, m_2=1ton이라고 해도 약 6,000ton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V-v=A$ 의 값에 따라 아주 m_0 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지금 그 방면의 기술자들은 보다 고속도의 분출이라는 문제에 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체의 재료문제 기관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도 피 땀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A=100/sec나 그 이상이 되면 달에의 왕복비행도 훨씬 쉬운 일로 볼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계 탈출 Rocket가 이미 실현되어서 초보적인 극비 우주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가 언제나 문제의 중심일 것입니다. 달에의 왕복보다 금성이나 화성 등등의 근처까지 갔다가 지구로 무사히 돌아올 우주선의 경우 같은 데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외계탐방의 경우나 당면문제로서의 달에의 왕복비행에 있어서 그것이 그저 단순한 직선비행이 아닌 것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전제를 그렇게 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외계탐방 항행법에 있어서 직접적인 계속비행(지구—타천체 간 무기착비행(無寄着飛行)이라고나 합시다)보다는 인공위성으로서 소위 우주 정류장을 외계 공간에 띄워놓고 두고 연료보급 기타 필요한 정비 지상과의 적절한 연락 기타 사람의 휴식 등도 취하면 더욱 큰 이점으로 탈출속도의 절약……감소……(방면속도(放免速度)라고도 합니다)을 기한다던가 하여 여러 가지 합리적인 외계유항(外界遊航)을 촉구해 보자는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있으며 Rocket분사에 있어서도 그저 화학 연료에 구애됨이 없이 다방면으로 연구 대상이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전기적으로 ion을 가속하여 A의 값을 향상시키는 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력원(推進力原)의 일부로서 태양광선의 광압을 이용해 보자는 의견이나 기타 상당히 재미있는 방법들이 발표되어 여러 실무자 사이에서 진지한 검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외계의 새 소식이 금성 행 Rocket로부터 전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외계의 자유로운 항행이 꼭 실현되기를 믿으면서 이만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속도로서 비행하며, 에 해당되는 물체(가스)를 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극히 높은 속도 V로써 사출

한다고 합시다. Δm 이 V로써 사출되기 때문에 m은 Δv 만큼 속도가 증가합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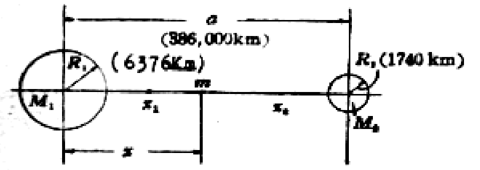
$$(V-v)\Delta m=m\cdot\ \Delta v$$

즉 $(V-v)\frac{dm}{dt}m\cdot\ \frac{dv}{dt}$

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초 Δm 만큼 계속 사출하면서 바로 달로 향해 항행하였으므로 Rocket 본체가 달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 질량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 정도의 질량이면 달까지의 왕복이 가능할 것인가?

계산요령만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구와 달 사이를 그야말로 직진 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구 탈출시의 공기저항도 일절 무시하고 또한 지구 출발 시와 달 착륙 시의 속도는 각각 Zero라는 상태로 비상시키는 것으로 합니다(즉 처음 속도가 Zero이며 착륙에서도 아주 조용히 전연 충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3도)

(b) 육(陸)착륙속도 Zero

제3도에서 지구의 질량 M_1 과 달의 질량 x 의 사이 x 라는 곳을 Rocket가 비행하고 있고, 양측으로 동시에 만류인력을 받으면서 달을 향하여 날고 있다고 합시다. 지구와 달 사이가 a라고 한다면,

$$m\frac{dv}{dt}=(V-v)\frac{dm}{dt}-kM_1\frac{m}{x^2}+kM_2\frac{m}{(x-a)^2}$$

단 k 는 만류인력의 항수입니다. 지금 Rocket 로부터의 물체사출 속도 V 와 비행속도 v 와의 차를 일정하다고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V-v=A$ ……(6)라고 하고

$$m\frac{d}{dt}\left(\frac{v^2}{2}\right)=Av\frac{dm}{dx}-k_1\frac{m}{x^2}+k_2\frac{m}{(x-a)^2}\cdots(7)$$

단 $k_2=kM_2$ $k_2=kM_2$ 또는

$$Av\frac{dm}{m}=\frac{d}{dx}\left(\frac{v^2}{2}\right)\cdot\ dx+\frac{k_1}{x^2}dx-\frac{k_2}{(x-a)^2}dx\quad\cdots\cdots(8)$$

사실상 비행에는 방향을 취하기 위한 일(즉 어떤 양의 물체—가스—를 방향에 따라 분출하는 작용)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일절 무시하고 하여튼 지구-달 사이를 무조건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해 둡시다.

(c) 3단계의 비행상태

물리학적 운동 상태를 지구-달 사이에서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ㄱ) Δm 을 방출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속되고 지구를 이탈해 나가면 지구로부터의 인력은 차차 적어지고, 반대로 달의 인력은 더해갑니다.

(ㄴ) 제3도 의 자리까지 x_1 오면 Δv 씩 사출하는 작용을 중지하고 관성만으로 나는 것으로 합니다. 더욱 비행이 계속되면 드디어 지구와 달의 인력이 평형(비기는)하는 위치에 옵니다.

(ㄷ) 다음에 x_2 까지 오게 되면 달의 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분사작용을 지금까지의 반대로 작용시켜 달 표면에 $(a-R_2)$ 갔을 때는 속도 v 가 마침내 0이 되도록 합니다.

이상 (ㄱ), (ㄴ), (ㄷ)과 같은 비행법을 한다고 전제하여 계산을 해봅니다.

(ㄱ) (8)식으로부터 분사추진에 의하여 일어날 가속도를

$$\frac{Av}{m}\frac{dm}{dx}=k\quad\cdots\cdots(9)$$

$$R_1\leq x\leq x_1$$

단 K는 항수라고하면 (10)

$$\frac{d}{dx}\left(\frac{v^2}{2}\right)dx+\frac{k_1}{x_2}dx-\frac{k_2}{(x-a)^2}dx=k\cdot\ dx$$

$$R_1\leq x\leq x_1$$

이 식을 적분하면,

$$\frac{v^2}{2}-\frac{k_1}{x}+\frac{k_2}{(x-a)^2}=kx+c_1\quad\cdots\cdots(11)$$

$$dt=dx/\sqrt{\left\{\frac{2k_1}{x}-\frac{2k_2}{(x-a)}+2kx+2c_1\right\}}$$

……(12)

이 삭을 적분하면 x_1 까지 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ㄴ) Rocket 분사중지비행

x_1 으로부터 x_2 까지의 사이에서는 A=0이므로

$$m\frac{d}{dx}\left(\frac{v^2}{2}\right)=-k_1\frac{m}{x^2}+k_2\frac{m}{(x-a)^2}$$

따라서 $\frac{v^2}{2}=\frac{k_1}{x}-\frac{k_2}{x-a}+c$

지구-달 양측의 중력이 비기고 $\frac{dv}{dx}=0$ 이행

시킨다면 소위 인공위성이 되어 반영구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Rocket는 지표상에 있는 공기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Energy를 소비하고는 드디어 지구인력에 못이겨 지구 면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위성 Rocket나 궤도에서 Rocket와 분리된 위성부분이 지구인력과 비기면서 비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속도에 의한 원심력 즉 $m\cdot\frac{v_s^2}{R}$(R는 비행반경)이 지구의 중력과 같으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의 하나일 것입니다. 즉 $m\cdot\frac{v_s^2}{R}=m\cdot g$

$$\therefore\quad v_s = R_0\sqrt{g/R} \quad \cdots\cdots(4)$$

가 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위성 Rocket가 지구상 500km의 높은 곳을 회전 비행한다고 하면 R_0=6,378km(장반경) R=6,878km이며 따라서

$v_s \fallingdotseq 6378\times\sqrt{\frac{0.00978}{6880}} \fallingdotseq 7.62$km/sec 즉 500km 고도에서 약 7.62km가 유지된다면 영구회전이 가능(초속)해 지는 셈입니다. (800km의 곳이라면 약 7.45km/sec로 떨어집니다.) 이 v_s는 지표 탈출속도 v0보다 (3)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frac{1}{\sqrt{2}}$ 만큼 적어도 된다는 점에 유의합시다. 이때 위성물체가 지구를 일 회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T=\frac{2\pi R}{v_s}=\frac{2\pi}{R_0\sqrt{g}}R^{\frac{3}{2}}$

……(5) $\therefore T=\frac{2\pi\times 6880km}{7.62kn/sec}=5670$ sec=1.573

즉 약 93분간에 지구상 500km를 한 바퀴 도는 대단히 바쁜 달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는 중에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제시를 한 호주의 Potocnik라는 사람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인공위성을 고속 35,700km의 곳에서 비행시키면 24시간에 지구를 한 번 돈다는 것입니다. 달은 3.1km/sec가 되고 지구상에서 보면 늘 일점에 정지해 보입니다. 이미 많은 위성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았지만 Potocnik의 아이디어도 우리의 활용성을 충분히 인식 받을 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 위성 Rocket비행의 Energy

지구표면 상의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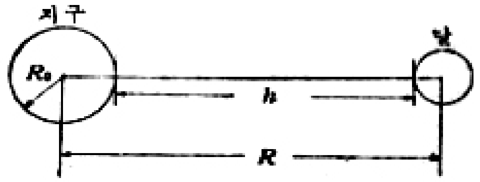
$$E=m\left(\frac{1}{2}v_s^2+\int_{R_0}^{R}g\,dR\right)$$

$$=\left(\frac{1}{2}-R_0^2\frac{g_0}{R}+\int_{R_0}^{R}g_0\frac{R_0^2}{R^2}-dR\rig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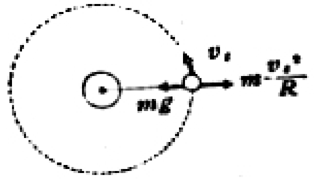
$$=\frac{1}{2}R_0g_0\left(2-\frac{R_0}{R}\right)m$$

단 $m=\frac{w}{g_0}$ 로서 계산이 됩니다. 전례의 것이 의해 계산해 봅시다. 지금 Rocke$)\times(2-\frac{6378}{6878})\times 1$=1kg/ g_0 라고 하면 $E=\frac{1}{2}\times(6378000$

mkg= 3423000 kg-m=8015K·cal 정도 입니다.



(제1도)



(제2도) 인공위성의 궤도속도, 중력 및 원심력의 관계

(4) 달세계 탐방

그냥 가기만 하는 것과 왕복의 경우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갈 줄 압니다만 여기서는 —달에 착륙속도가 0이 되도록 조용히 착륙하고 다시 달 표면을 출발하여 지구로 무사히 돌아 온다—는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체적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 비행법

일반적으로 현재의 Rocket는 매초 Δm라는 질량의 물체(연소가스가 보통)를 몸 뒤 부분에서 사출하여 그 반동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량 m의 Rocket가 v 인

<교양우주공학>

달 나라로 간다

—초보계산(初步計算)에 의(依)한 달세계(月世界) 탐방(探訪)—

〈국립항공대학 교수〉
유한흥(劉漢興)

이미 '달'에의 상륙이란 시간문제로 되어있는 하나의 숙제 정도의 것이지만 국민학교 재학생이 재학 학생고시를 치르겠다는 정도의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문지상의 과학 란이나 잡지 기타 과학교양서적 등을 통해 혹은 학교 과학관계 시간 등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해서 Rocket는 인공위성이나 유도탄 그리고 우주선의 추진원이며 대체로 위해서 쓴 여러 가지 것이 경우에 따라 어떤 운동을 하고 또한 어떤 목적에 쓰이는가? 하는 문제들은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상식정도로서의 대화나 토론까지도 흔히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해내는 Rocket나 Rocket에 사람이 타는 경우 또는 위성을 궤도까지 운반하거나 우주선이나 우주차량이라는 이름으로 외계를 항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계산을 이해하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미 시간문제라고들 하는 달세계 여행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관계되는 몇 가지 문제를 쉽게 취급해서 일반적인 의문을 풀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식과 상식에 조금이라도 입체감이 플러스된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구탈출속도에 대한 문제

미소양국에서 우주인 몇몇을 이미 외계에 보내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거(壯擧)를 성공으로 이끄는 기술자, 학자들의 화려한 수고는 청사(靑史)에 빛날 것입니다만 우선 그들이 몇 해 동안 싸워온 문제점은 지구를 어떻게 사고 없이 탈출하는가? 하는 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를 본론에 돌려 지구의 인력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지금 지구의 반경은 R_0 ,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어떤 떨어진 곳까지)를 R이라고 하면, 위도의 영향 같은 것을 무시해 버리고 따진다면,

$$g=g_0\left(\frac{R_0}{R}\right)^2 \quad \cdots\cdots(1)$$

(1)식에서는 g_0는 지구표면$(R=R_0)$ 에서의 중력의 가속도이며 9.81m/ sec^2로 했습니다. Rocket가 분사추력을 얻어서 지구표면을 탈출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속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시의 바람의 저항이나 지구 자전이 미치는 영향 혹은 타천체가 작용하는 인력 등등을 무시해 버리고(여기서는 기초계산이기 때문에 번잡을 피합니다) Rocket의 질량을 m라고 정하면 Rocket 본체가 갖게 되는 운동량$\frac{1}{2}mv^2$이 "Rocket"에의 중력 mg를 이기는데 필요한 Energy와 같아야 된다는 점에서부터 구해집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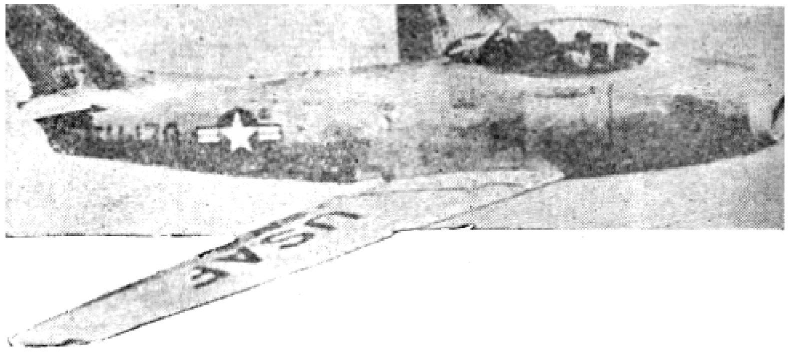
$$\frac{1}{2}mv^2=m/g\cdot\ dR \quad \cdots\cdots(2)$$

(1)식을 (2)식에 넣어 계산하면 탈출에 필요한 속도 v_0 는

$$v_0=R_0\sqrt{2g/R} \quad \cdots\cdots(3)$$ 로 된다.

(2) 인공위성의 궤도속도

이와 같은 속도로서 Rocket가 탈출되어 지구로부터 차차 멀어진 다음에 지구 중심으로부터 어떤 반경의 위치에서 궤도를 정하여 항



세계(世界)를 뒤덮은 항로

<항공(航空) 발달사(發達史)> (완)

K. 나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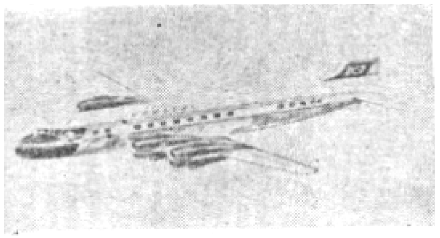
라이트형제를 배출한 세계 최초의 공항 오하이오 주 데이톤 근교 트랜스 하프만 씨의 목장에서 시작하여 그 후 50년간에 비행장은 격증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리 미개한 나라일지라도 최소한 비행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게 되었다. 대다수의 비행장에는 최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긴 활주로, 경계 지시등, 완비된 관제탑 거기다 현대건축의 첨단을 걷는 여객 대합실 등이 있다.

이제는 지구상 어디더라도 항공기로 갈 수가 있다. 미 공군은 완전히 설비가 갖추어진 기상관측소를 북극을 횡단하는 길이 5마일 폭 7마일의 북극해 빙산 위에 설치할 수도 있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T-3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께가 300피트에서 400피트나 될 것이라는 이 빙산 섬에서 기상 기사나 학자들이 지구상의 폭풍우나 기압 변화의 근원이 되는 이 지역의 기상 변화를 상시 관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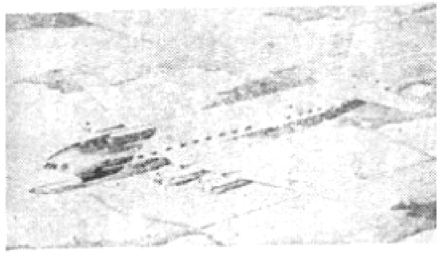
그들에 대한 물자보급은 식량이나 의약품을 비롯해서 교체인원에 이르기까지 정기 항공편으로 얼음위에 마련된 비행장으로 수송된다. 이곳에서 무선으로 보내어지는 보고는 태평양, 대륙 간 거기다 대서양을 비행하는 군이나 민간항공회사 비행계획 작성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정기항공 수송 업무는 1926년부터 개시되었는데 1952년에는 연간 실적 1억불에 이르는 큰 사업으로 성장하여 12개의 항공회사는 1년간에 2,650만 명의 여객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편물이나 화물을 취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처음에는 항공우편 수송을 맡은 민간 회사가 우편물 보따리 사이에 한 두 사람의 여객을 끼워서 수송할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1929년에는 대륙횡단 항공수송회사(TATC)가 3발 전 금속제의 포드기로 주간뿐이기는 하였지만 양쪽 연안에 48시간으로 연락하는 업무를 개시하여 많은 여객이 항공여행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겁쟁이 승객에 용기를 주기 위하여 처녀비행 때는 린드버그가 손수 조종하였던 것이다.

후일에 항공로 표식 등이 국토횡단공로에 설비되어 야간비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회사, 팬 아메리칸항공 회사, TWA 항공회사 등은 미국 대륙횡단 여객 수송을 24시간으로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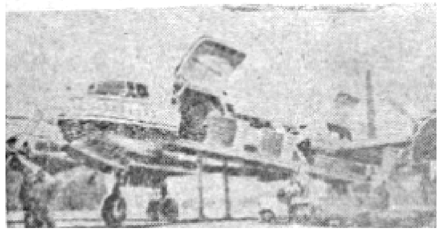
해외 항공으로에 있어서는 팬 아메리칸항공 회사가 중앙 및 남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와 섬 사이로 한국 항로를 넓혔는데 처음에는 낮밖에 비행하지 못하였다. 제대로 갖추어진 비행장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팬 아메리칸항공 회사는 중남미의 동해안과 서해안의 파나그라 항공로에서는 플로트가 달린 수상기를 비행시켜 공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카리브 해를 비롯하여 호수나 연안에 착수하였다.



더글라스 DC-7 수송기



더글라스 DC-6B 인디펜던스



더글라스 DC-6A 리프트마스터

그러나 이것들은 시험시대 뿐이었으며 속도가 느린 시코르스키 쌍발 수륙양용기는 자취를 감추고 보다 고속 여객기가 등장하였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이 남미 항공로의 소요 비행시간이 단축되어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24시간이면 가게 되었다. 세계를 뛰어 돌아다니는 실업가나 여행자들은 바야흐로 항공기를 기차나 자동차와 같은 여행기관으로 생각하여 손쉽게 이용하게 되었으며 하늘 여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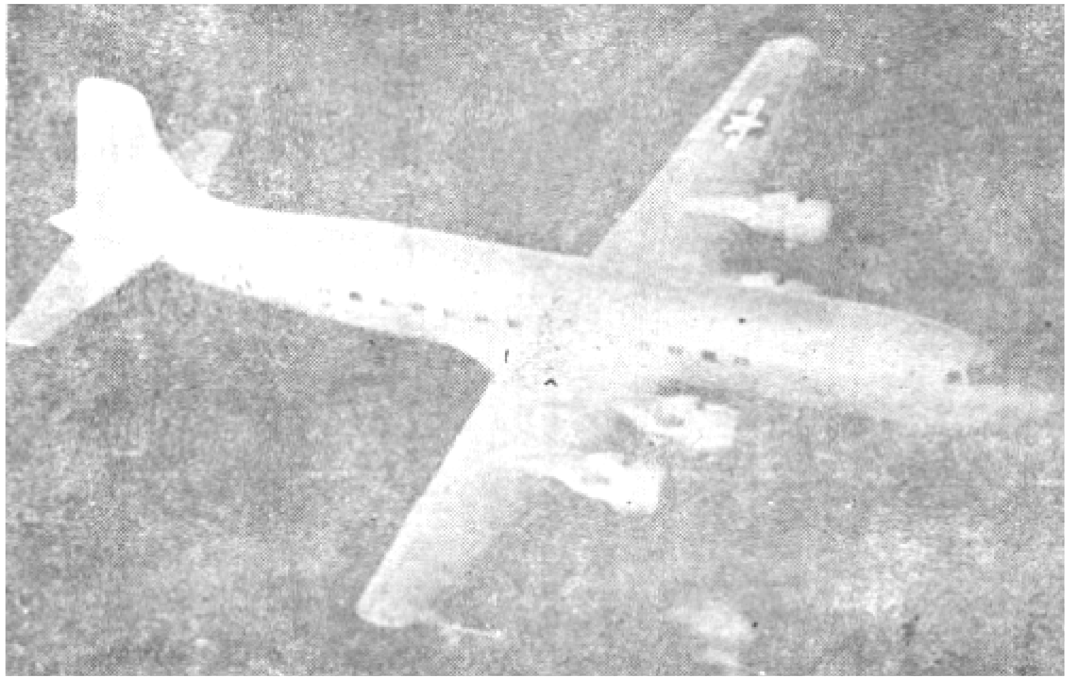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는 세계에 그 영토가 산재해 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항공 회사를 국책(國策)으로서 육성하여 우편, 여객, 화물 수송의 신속화를 도모함으로써 선박으로는 몇 주일이나 걸렸던 시간을 절약하였다. 세계 항공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객기는 대부분 미국제로서 컨스텔레이션기, 더글라스 DC-4 및 DC-6, DC-7, 거기다 보잉기 등이 있다.

가장 오래된 항공회사로서 한때 가장 긴 취항거리를 보유하고 있던 것은 네덜란드의 KLM항공회사였다. 제1차 대전 후에 소규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이 항공회사는 알베르트 프레스만과 U·R·N 데라에르트라는 두 사람의 네덜란드 비행사가 설립하여 처음에는 암스테르담과 런던 간을 취항하였고 점차로 유럽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으로 발전하여 드디어는 자카르타의 바타비아에 이르는 6,500마일의 장거리 항공로를 운항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아에로포스탈(에어프랑스의 전신)은 아프리카 항로에 취항하여 드디어 남대서양을 횡단해서 리오데자네이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달하였고 다시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의 산티아고로 항로를 연장하였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대형 항공기를 가지고 세계에 산재해 있는 영국 연방 여러 나라에 항공로를 뻗치기 시작하여 그 후 점차로 지중해를 지나 수에즈, 인도를 경유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는 항공로와 남아프리카까지 이르는 항공로를 개척하였다. 처음에는 임페리얼 에어버스라는 명칭이었는데 제2차 대전 후 다시 민간항로 취항을 하였을 때 영국해외 항공회사(BOAC)라고 개칭하였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서로 자본을 모아서 SAS(스칸디나비아 항공회사)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의 스톡홀롬, 브롬마 공항, 노르웨이의 오슬로 근교에 있는 포르네부 공항과 덴마크의 코펜하겐 교외에 있는 카스트룹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여러 곳에 방사상(放射狀)의 여러 갈래 공항로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북대서양을 넘어 미국 동해안에 이르는 항로에 취항해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있는 툴레에 북극 기지를 건설한 후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그 기지를 중계비행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

미국 서해안 및 동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공로를 개척하였다.
이 거대한 정기항공 계획은 모두가 건전한 항공시대 도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인류의 용감한 활동의 일단이기도 한 것이다. 그 결과 격심한 경쟁이 시작되어 각국은 서로 다투어 세계 도처에 비행할 특권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계되는 여러 나라는 그 후 서로 협의한 끝에 국제 항공관리 기구를 만들어 무의미한 공로신설 경쟁이나 운임문제를 조절하여 공정하고도 실질적인 운항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운항이 실현되었다.
이스라엘, 필리핀, 일본 등 여러 나라도 점차로 해외항공회사를 창설하여 거미줄 같은 항공로가 각각으로 전 세계에 펴졌다.
군사상 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미군은 독자의 항공수송기구를 설치해서 육해군이 다 이러한 목적의 기구를 운영하게 되었다. 1948년 6월 아직 미군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군용항공수송기구는 공군지휘 하에 통합되어 MATS로 호칭되었는데 115,000마일 이상의 항공로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구로서 방대한 업무가 개시되었다.
MATS의 기능이 발달된 지 3주일밖에 안 되었을 때 백림공수(伯林空輸)가 실시되어 로렌스 퓨터 대장과 윌리엄 터너 중장의 지휘로 크게 활약하였다.
한국 전란이 발발하였을 때는 이미 세계적 규모를 가진 기상 항공로 통신부대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항공구조부대를 전속시키고 있던 MATS가 한국에서 순조롭게 행동을 개시하였다. 4발 수송기는 지구를 반 바퀴 돌아 태평양 지역에 이동집결해서 필요한 자재나 인원을 일본이나 한국으로 수송하였고 부상병들은 대부분 한국 전선에서 직접 미군 본토로 수송되었다.
정부의 손으로 작성된 주도한 계획에 따라 미국의 민간항공회사들은 잉여 항공기 제공을 요청받아 1950년 9월 MATS의 활동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350대의 수송기가 태평양 상공을 왕복하였다. 그 중 66대는 민간항공에서 쓰고 있던 최신형 여객기 DC-4, DC-6, C-97 등으로 그밖에 캐나다의 50대, 벨기에로부터 3대가 국제연합을 통해서 참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MATS는 지구 반대쪽에서도 활약하고 있었다. 요셉 스미스 대장을 새로이 사령관으로 맞이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그린란드, 영국, 프랑스 령 북아프리카 등지에 산재해 있는 기지에 주류하고 있던 미군에 대한 보급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매일 1시간 15분마다 MA S 수송기 1대가 반드시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 태평양에서는 실로 54분 간격으로 비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글라스 R6D-수송기↑

전 세계에 걸친 군사행동으로 이때까지 하늘의 여행을 경험하지도 못한 남자나 부인들도 임무가 긴급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탈 수밖에는 없어서 무리로라도 한 번 비행기를 타보았으면 하고 이내 공중 여행을 좋아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정기상업항공회사는 MATS의 수송기를 제공하여도 운항 상 받은 영향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항공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실업가들은 외국의 거래객과 중요한 타합일정(打合日程)을 정하였으면 곧 여행 계획과 항공편을 조회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외교관은 본국을 출발하면 외국에서 정치가들과 회담하고 나오는 길에 비서로 하여금 구술필기의 청서(청서)도 끝나기 전에 자기 사무실로 돌아올 정도로 되었다.
하늘의 여행은 이제야말로 드러누워 팥떡 먹기가 되었는데 그 반면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먼 남미의 밀림이나 안데스 산맥에 있는 마을에서 기차나 자동차를 생전에 한 번도 못 본 사람들까지가 그 지방 부속의 옷차림으로 의젓하게 가축의 다리를 묶어가지고 함께 항공기에 올라타 멀리 떨어진 도시나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정주자가 얼마 없는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연락할 만한 도로도 없고 1년에 9개월 동안이나 얼어붙어 사용할 수 없는 항구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교통은 개가 끄는 썰매와 비행기뿐이어서 광산 노동자들이나 모피상인 및 에스키모 인들은 당연히 하늘의 여행을 이용하고 있다.
지구상 각지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의 지방항공회사가 지방과 대(對) 국제 항공망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인도의 비행사가 조종하는 소형수송기로 콜카타의 덤덤 국제공항으로 날아 멀리 네팔로부터의 우편물을 운반하고 있으며 이들 우편물은 여기서 해외 항로 수송기에 다시 들려져서 세계 여러 우편국에 신속히 배달되는 것이다.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태풍의 동향을 미연에 탐지 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는 해상을 느릿느릿 항행하는 선박으로부터 태풍의 선회운동에 관한 보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속으로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비행기는 태풍의 방향을 좇아 그 상황을 관측할 수 있게 되어 여기서 비로소 정확한 진로를 미연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태풍의 내습을 미리 알게 되자 그 통과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여객기는 위험지대를 피해서 안전한 비행장으로 비행할 충분한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항공수송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는 더욱더욱 좁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새로운 제트여객기가 35,000피트에서 40,000피트 항공을 매시 200마일에서 300마일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고층제트기류를 이용해서 거의 음속으로 날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키티호크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한 이래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척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의 개념이라던가 습관은 장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항공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해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정도로 진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비행은 장거리와 단거리 비행이 제각기 별개로 전업화 되고 사용되는 항공기도 자연 별개의 것이 될 것이다.
피스톤식 엔진이 제트로 거의 다 진화되어 항공기의 속도도 향상되었으나 비행기를 보다 빠르고, 높고 더욱 경제적으로 비행시킬 새로운 방식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장거리 비행의 선구자인 발트 발칸 대령은 금후 설계 기술이 보다 진보한다면 옛날보다 몇 배의 속도로 나는 제트기도 나타날 것이며 원자력을 이용한 비행기의 출현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미국의 항공회사는 정부와 계약해서 원자력 항공기 제작을 연구하고 있으며 몇몇 나라의 기술자들은 열심히 람 제트기나 로켓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공군의 찰스 이거 소령은 1947년 음속보다 빨리 날아 처음으로 "음의 장벽"을 돌파하였는데 그 후 새로이 고속비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생겼다. 고속도가 되면 기체(機體)와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굉장한 고열을 내서 초 내열성 재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열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체에 고능률의 냉방장치를 장비할 필요도 생긴다.
이러한 고속비행이 가능하게 되면 런던과 뉴욕은 이웃 마을 폭밖에 안 되며 시차를 생각해 볼 때 영국에서 가극을 감상하고 나서 그날로 브로드웨이 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진보는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거듭되고 있다. 그리고 "간단하며 되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최대의 요소"라고 하는 항공기 제작계의 선구자 윌리엄 스타울의 말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7P에서 이음)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마지막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기름진 국토가 우리들의 자랑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들의 참자랑은 "사람자랑"이어야 한다. 정원도 없는 가난한 집에라도 자손 잘난 집에 자랑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정원과 저택을 가졌을지라도 병들고 못난 자식밖에 없는 집이면 그 집에 무슨 자랑이 있을 것이냐.
우리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자. 그러나 그보다는 더 자랑할 수 있는 "주인"이 있어야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경이순례>

랭스의 대사원(大寺院)

—프랑스의 자랑과 명예(名譽)—

리차드 하리바톤

다음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이 대사원의 역사에 영웅적인 역할을 한 소녀의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412년 프랑스 동레미라는 조그만 도시에 한 여아가 탄생하였다. 그녀의 생애는 불과 19살에 끝났는데 그녀의 죽음은 실로 비극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생전에 이룬 위대한 행위는 프랑스 국민을 분기(憤氣)시켰고 위기에 처했던 조국을 구출하여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애국자의 상징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이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렇다. 잔 다르크의 이야기이다.

잔 다르크는 어려서부터도 동리의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품이 성실하였으며 종교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인(聖人)들의 일화를 즐겨 들었고 다른 소녀들이 거리에서 뛰어놀 때도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13살이 되어도 제대로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는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가 오늘날 집에서 골똘히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눈앞이 밝게 빛나 하면서 그 광채 속에서 흡사 천사의 음성과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이상한 목소리는 천사 카테리나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환상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잔 다르크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어느 때는 성 마가렛과 성 카테리나 이렇게 두 천사가 같이 찾아왔다. 두 천사는 여왕처럼 화려하게 차리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 또 어느 때는 성 미카엘과 동반할 때도 있었다. 이들 천사들은 5년 동안 이틀이나 사흘 간격으로 잔 다르크 앞에 나타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 잔 다르크가 17살 때 프랑스의 태반은 영국군에게 점령되어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하나인 오를레앙도 영국군의 포위된 채 완전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오를레앙 시의 이러한 고 경은 동레미 마을에도 전해졌다. 그러고 언제나 잔 다르크에게 속삭이던 천사의 목소리는 심혼(心魂)에 관한 것에서부터 나라 문제로 바뀌어서 모름지기 이제까지 마을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 본 적이 없는 순결하고 배운 것 없는 이 시골 처녀에게 오를레앙의 도시와 프랑스를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다 겁쟁이 프랑스 황태자 샤를을 도와 영국을 비롯한 적을 격퇴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라는 신탁을 받았다.

역사상 이렇게 중요한 명령이 불과 17살밖에 안 되는 소녀에게 내린 일이 있었을까?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잔 다르크가 그것을 참말로 받아들여 실행하려고 한 사실이다. 이 순진한 시골 처녀가 무용으로 이름난 영국군에게 포위된 도시를 구하고 프랑스의 황태자를 왕위에 오르게 할 길을 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째서 그녀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머리가 돌진 않았는가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굳게 믿어 그 말씀에 복종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온갖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데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 부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 당시 프랑스 군에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져 거점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운은 날로 기울어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잔 다르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즉 하늘의 계시에 대한 —신념에 사관 한 사람이 크게 감동하여 그녀를 원조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사관의 생각은 이제까지 별별 짓을 다 해서 영국군을 저지 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 소녀가 말하는 대로 해주더라도 별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우리들이라도 그러한 입장에 처한다면 그 소녀의 말을 들었을지 모른다.

소녀는 황태자를 만나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만약 황태자가 그녀의 충고에 순종한다면 왕위에 오르게 하여도 좋다고 말하였다. 사관은 이러한 꿈같은 약속은 물론 믿지 않았지만 잔 다르크의 열성에 감동되어 황태자를 설득하여 그녀의 알현을 주선하였다.

황태자는 그 당시 시농 성에 있었는데 잔 다르크의 알현을 허가할 때도 아마도 반미치광이 소녀라고 생각하고 놀려 줄 생각으로 자기는 시종들 속에 숨어있고 시종 한 사람을 황태자로 위장시켜 잔 다르크를 만나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가짜 황태자에게는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숨어있던 진짜 황태자에게로 곧바로 달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는 황태자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사투리 시골말로 "존경하옵는 황태자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황태자님과 황태자님의 왕국을 구출코자 온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황태자는 이미 그녀를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에게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이 감추어져 있음을 느꼈다. 황태자는 그녀와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저는 황태자님이 국왕의 아드님으로서 참된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라고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황태자는 잔 다르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녀가 프랑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노라고 동의하였다.

우선 첫째로 갑옷 한 벌을 얻어 입고 흰 군기를 휘날리면서 무장한 군사를 인솔하여 포위당한 오를레앙 시로 향하였다. 그녀의 용감한 지휘에 크게 고무된 프랑스군은 용기백배하여 겹겹이 둘러싸인 오를레앙 성을 탈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적군을 무찔렀다. 랭스 마을도 그 하나였다.

싸움에 승리를 거두고 황태자 앞으로 돌아온 잔 다르크는 이제는 그가 즉위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음을 보고하고 랭스에 가서 대관식을 올릴 것을 권고하였다. 랭스는 그동안 여러 번 프랑스 국왕이 대관식을 올린 곳이었다. 겁이 많은 황태자는 오랫동안 주저하던 끝에 드디어 그녀의 열의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녀의 권고에 동의하였다.

잔 다르크와 황태자는 군대를 이끌고 랭스를 향해서 떠났는데 마을 가까이 이르자 하늘 높이 솟은 장대하고도 숭고한 아름다움을 지닌 대사원의 탑을 볼 수 있었다. 사원은 석조건물이었는데 벽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고 탑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우며 동상이나 첨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호화롭고도 아름다움은 견줄만한 것이 없을 정도였다.

1429년 7월 16일 잔 다르크는 군사들과 더불어 대사원 앞에 모였다. 호화로운 조각으로 된 석상과 눈부시게 장식된 이 건물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랭스 사람들은 200년이나 걸려 경이 중의 경이라고도 할 만한 대사원을 세웠다. 이 건물 안에는 세운 사람들의 운명뿐 아니라 마음과 혼까지도 배어있었다.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도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노력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 대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기념물이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애초에 창건할 때부터 나라에서 세운 사원이기도 하였다.

496년에 프랑스 최초의 신자 국왕인 클로비스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잔 다르크 시대까지 실로 900년 이상이나 랭스는 성스러운 도시로서 프랑스 국왕의 대관식에는 언제나 이 사원이 뽑혔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이 교회에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해택을 주었다. 잔 다르크는 처음으로 이 사원을 보았을 때 자신은 '프랑스의 자랑과 명예'앞에 서있음을 깨달았다.

잔 다르크는 많은 귀족을 거느린 황태자 뒤를 따라 정문으로 해서 대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에는 역대 국왕의 석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사원 안에 들어서자 그녀가 몇 개월을 두고 꿈속에서 보아온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은 대관식이었다. 성직자들은 값진 성의(聖衣)를 입었고 황태자는 금은보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윽고 향을 피우고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황태자는 조용히 제단 쪽으로 나아갔다. 보석으로 채색된 창문에서는 연둣빛 햇빛이 황태자의 볼을 비추고 있었다. 랭스 사원의 승정(僧正)은 엄숙한 표정으로 황태자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프랑스 왕 샤를 7세라고 명명하였다.

이 성대한 식전이 진행되는 동안 잔 다르크는 양손을 모으고 황태자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승정이 설교를 시작하였을 때 그녀는 겨우 17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지만 영감을 받은 소녀 — 그녀는 신왕(新王)의 발밑에 꿇어앉아 "인자하신 왕이시여! 제가 포위된 오를레앙 성을 구해내고 폐하를 랭스까지 모시고 와서 성스러운 즉위식을 올리심으로서 폐하가 참된 왕이시며 프랑스 국왕의 정당한 주인공임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도 안 되어서 이 영웅적인 처녀는 샤를 국왕에게 버림을 받고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미움을 받아 드디어 19살의 젊은 몸으로 마녀로 몰려서 투옥되었으며 그 후 영국군에 의해서 1431년 5월 루앙 광장에서 불에 타 죽었다.

잔 다르크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지 벌써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취는 다 없어지고 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샤를 7세의 대관식을 거행하였던 랭스 대사원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29년부터 1914년까지 이 대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1824년 프랑스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국왕의 대관식은 이 사원에서 올렸으며 "프랑스 사원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건물"이며 "중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다.
1896년에 이르러 프랑스는 잔 다르크의 공적을 찬양하여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말에 올라 칼을 빼어 든 그녀의 동상을 랭스 대사원 광장에 세웠다.
그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프 양군의 격전지가 된 랭스에서는 고난의 날이 찾아왔다. 독일군이 쏘는 포탄이 대사원 현관 주위에 수리공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발판에 떨어져서 그 불길은 역대의 왕이나 성자들의 초상을 금이 가게하고 손상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랭스 시 파괴의 서막에 불과하였으니 다시 약 300발 가량의 중폭탄이 사원에 떨어져 내부에 불이 붙고 재단 위로는 지붕이 내려앉아 돌로 새겨진 천사상은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성인상은 머리가 없어졌으며 레스 모양의 탑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회랑에는 부서진 석상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다행이도 잔 다르크의 초상은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 속을 프랑스 병사가 들어내어 안전한 장소에 옮겼기 때문에 무사하였다. 그러나 도시는 1,000호의 집이 완전히 파괴되고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학생 시절에 즉 제1차 대전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랭스 사원을 본 슬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원은 파괴된 그대로였으며, 전쟁 때 쓰던 모래 포대가 문 앞에 높이 쌓여진 채로 있었으며 지붕이 없어진 황폐한 사원의 잔해는 지친 모습으로 시커멓게 서 있었다. 내가 본 옛 전쟁터 가운데서 이처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으며 이 부서진 사원의 수많은 영광만큼 전쟁의 야만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조각으로 장식된 사원의 정면이나 머리 위의 탑은 포탄을 맞아 파괴되기는 하였지만 뭉그러지지는 않아서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다. 전쟁 그 자체도, 악마와 같은 무기도 이 신성한 건물의 고귀함과 아름다움까지는 파괴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나는 이 세계의 경이와 그 슬픈 역사를 지루하게 써왔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 영웅적인 시대를 거친 물건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에서였으며 또한 그 안을 볼 기회가 있을 경우에 내가 느낀 것과 똑같은 존경의 념(念)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잔 다르크가 처음으로 이 대사원을 보았을 때처럼 우리들도 멀리 들판에서 랭스 상공에 높이 솟은 대사원을 바라다 볼 수가 있다. 사원은 1920년 이래 주의 깊고 애정이 깃든 수복공사가 계속 되어왔다. 지붕은 미국의 의연금으로 재건되어 사원을 멀리서 보면 대전 전과 별로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갖추어졌다.
랭스마을에 도착하면 거의 모든 집들이 새집같이 보인다. 좁은 거리를 빠져나가면 공중광장으로 나오게 된다. 그 앞에 대사원이 탑처럼 높이 솟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물론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평소부터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창문에는 제각기 근대적인 색채 유리가 끼워지고 여러 성인의 초상에는 새로이 머리나 팔을 만들어 붙였고 파괴된 벽 위에는 새로운 조상의 놓였으며 몇 세기 동안이나 풍우에 시달린 사원 전체는 수많은 곳을 돌로 때워서 이 아름다운 건물은 기운 곳 투성이 집이 되었다. 그러나 광장에서 올려다본 대사원은 잔 다르크가 500년 전 옛날에 이 지점에서 바라다보았을 때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만한 경관을 보여준다.
우리들을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여주는 것은 잔 다르크의 초상이 옛날 그 자리에 똑같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건물 안 어둠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세 예술의 화려한 작품이 아니고 크기만 하고 아무 멋대가리도 없는 것들뿐이다. 대사원의 내부는 모두 수리되어 있지만 조각상이나 대석 따위는 모두 없어져 버린 것이다. 성좌를 비롯하여 연단, 제단 등 잔 다르크가 샤를 7세 대관식 때 경이의 눈으로 본 것은 지난 제1차 대전 때 독일군의 포화로 지붕이 내려앉은 통에 파괴되어 지금은 대용품이 놓여있는데 아무래도 예전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지만 근년에 재건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이 위대한 건물이 지닌 정신까지는 상실되지 않고 커다란 피해를 입어 수복되었어도 수많은 사원 가운데서 아직도 가장 고귀한 존재로 프랑스의 '사랑과 명예'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역사적(歷史的) 장연설(長演說)

노오스경(1732-1792)의 내각 당시, 조선안(造船案)이 상정되어 한 의원이 선박의 역사에 관해서 성서의 노아의 방주로부터 조선술이 발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설명이 스페인의 밀마다 함대를 논할 때 수상이 코를 골기 시작하기에 각료 한 사람이 잠을 깨웠다. 그러자 수상이 말했다.
"저 명예로운 신사는 지금 어느 시대까지 도착했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시대 올시다."
하고 각료가 대답했다. 그러자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 그렇다면 아직 1, 2세기는 더 잘 수가 있었는데—"

실존철학(實存哲學)의 개요(槪要)와 문제(問題)

김형석(金亨錫)
〈연세대교수〉

우리는 현대철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실존철학을 지적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과 귀납의 사상세계인 영미에 대치되는 관념과 연역의 형이상학적 성격을 가지는 학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렇다고 철학으로서의 실존은 모르나 실존적 사상이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자신을 보다 깊이 물었던 곳에는 언제나 실존적 유적이 남아 있으며 철학적 사색의 배후에는 항상 실존적인 질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도의 고전인 우파니샤드에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즉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외쳤다. …… 내가 있다!고 …… 그리고는 그는 불안해졌다. 홀로만 있게 되면 불안해지는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오늘의 실존주의자들이 느끼고 고백하는 심정 그대로의 발로가 아닌가.
'너 자신을 알라'고 언제나 되풀이한 소크라테스 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도 누구에 못지않은 실존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중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도 실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합리의 세기였던 17세기의 파스칼은 현대의 누구보다도 심오하고 특색있는 실존정신을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삼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도예프스키도 훌륭한 실존주의자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적으로서의 실존은 역시 현대적인 것이며 적어도 실존철학이라는 계보로서 공인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의 일이라 보아서 좋을 것이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에 이르러 비로소 학으로서의 실존이 뚜렷해진 때문이다. 그들의 사상을 더듬어 올라가는 곳에 니체와 키에르케고르가 있고 그들의 사상을 계승한 결과로 G.마이셀, J.P.사르트르 등이 나타났다고 보아지는 때문이다.
아직도 대표적인 네 사람이 모두 생전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실존철학은 이미 한고비 지난 감도 없지 않으나 역시 가장 대표적인 현대철학이라 보아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존철학은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무엇이 그 사상적 특징을 만들고 있는가?
옛날부터 철학에는 2가지 요소가 있었다. 하나는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본질이다. 본질은 존재와 더불어 그 속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으며 존재는 본질을 통하여서만 밝혀지며 나타나는 것으로 믿어져왔다. 경중의 위치는 다르지만 이 두 개의 과제가 항상 철학의 기초적인 문제로 되어 온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었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삼는 중세기에 이르러서는 보편개념에 해당되는 본질이 존재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의 존재를 취급하는 철학자들이 신의 본질에서 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던 때문이다. 그들이 항상 말하던 Essentia라는 말이 곧 '무엇인가'라고 묻는 데 대한 대답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하여 거의 최근에까지 이른 셈이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있다'고 말한 것도 사고가 존재보다 선행한다는 뜻이며, 칸트가 경험을 넘어 있는 선험성을 순수한 인식과 진리의 표준으로 삼은 것도 자유와 본질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상이 헤겔에 이르러서는 절정기에 도달한다. 그는 「법철학」이라는 책 서문에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것은 그대로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논파하여 사유와 실제의 궁극적인 일치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철학과 사상의 흐름에 대결하여 나타난 것이 실존철학이기 때문에 실존철학은 다시 한 번 본질에 대하여 존재를 중요시하는 철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의 존재관은 고대나 중세적인 관념이어서는 안 되며 합리나 사상의 추상적인 존재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여기에 존재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Existentia 즉 ex(밖에) sisto(서는) 존재, 구체적이며 개별성을 가지며 현실에 현재하는 존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존이란 한 문자도 결국은 현실 존재의 실존, 진실한 존재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 중에서 실존철학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할 때 실존은 본질에 선행하며, 실존철학은 주체성의 철학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적인 존재가 먼저 있고 본질은 그에 따라야 한다. 이 현실적인 존재란 존재이면서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 존재, 구체성과 개별성을 지닌 주체자로서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체로서의 자아가 문제의 기점과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19세기 전반의 키에르케고르나 후반기의 니체가 실존철학이라는 표방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꼭 같이 헤겔적인 관념, 추상, 본질을 배격하고 존재의 주체성과 그 근원을 확립시켰다는 일치점은 역사의 위대한 전환이었던 동시에 정히 실존철학의 발단이 아닐 수 없었다. 키에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말했고 니체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내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고 바꾸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실존철학은 과거의 철학들과 같이 존재를 존재대로 객관화시키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존재의 구조나 본질을 논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탐구해 나가지도 않는다. 자아로서의 주체가 어떻게 원근법적으로 존재에 투입하는가? 어떻게 현실 존재가 존재 자체를 밝혀 주는가? 하는데 철학의 목적을 둔다. 실존철학이 인간학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항상 자아로서의 주체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 ×

이러한 입장에서 실존철학이 형이상학적이며 세계관을 동반하는 내용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인식론의 면에서는 어떠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가? 흔히 과학적 철학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비난하듯이 실존철학은 뚜렷한 방법론이 없는 윤리학이나 철학성을 내포하는 문학적인 과제에 그치고 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실존철학은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옛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철학은 두 가지 면에서 비중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용보다도 방법론에 집중하는 면과 방법론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보는 내용 중심의 학설이 그것이다. 이점 실존철학은 누가 보든지 후자에 속한다. 언제나 내용이 중심이지 방법론을 제1로 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실존철학이 학으로서의 방법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벌써 철학으로서의 근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 된다. 실존에는 실존다운 엄연한 방법론이 있어야 하며 또 있는 것이다. 물론 대표적인 여섯 사람이 꼭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공통적이면서도 근저에 있어서는 동일한 태도와 방법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
그러면 그들의 방법론적인 특성,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실존철학이 생철학과 현상학을 거쳐 왔다는 점을 상기시켜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생철학과 현상학 자체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얼마나 중요하고도 전체적인 문제를 내포해 왔음을 인정한다면 실존철학이 그것들까지도 포함한 오늘의 철학임을 짐작하게 된다.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은 합리와 논리, 객관성에 입각한 관념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독일 관념론이 그러했으며 신칸트학파의 주류도 일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생철학이 나타나 철학은 언제나 전체적이어야 하며 그것이 전체적이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생자체가 기반인 동시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과학의 방법이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신과학의 자주성과 고귀성이 인정되어야하며 합리나 논리를 초월하는 역사, 문화, 예술, 종교까지도 생의 전체적인 구조 다자각성 속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이 생의 전체성이 스스로의 자각을 통하여 인생과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름 아닌 세계관이며 세계관은 생의 전폭적인 견지에서 세계를 보았을 때 얻어지는 한 견해인 것이다. 주로 W 딜타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생의 자각에 의한 해석학이 철학의 근본적인 방법론이 되는 과정과 방향이 이런 점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에 의한 세계 해석은 자연히 쇼펜하우워, 니체의 정신을 받아 합리적인 지성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특히 의지를 존중시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가고 있다. 야스퍼스가 '낮의 이론'보다도 '밤에의 정열'이 귀하다고 본 견해가 바로 이것을 뜻함이다. 로고스와 더불어 카오스, 아폴로보다는 본능과 정열과 도취의 신이 디오니소스가 더 근원을 차지하는 것이 생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실존철학이 생철학을 경과했다는 사실이 배후에는 이러한 해석학적인 의의와 방법론이 다분히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존철학의 현저한 방법론적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이 후설의 현상학이다. 당시의 후설은 모든 새로운 철학에의 기대를 걸고 스스로의 방법론을 전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물론 현대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사르트르도 하이데거와 후설에서 자기 철학의 출발점을 발견했으며 간접적이기는 하나 야스퍼스와 마르셀도 현상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실존철학이 방법론적 혜택을 가장 많이 그리고 깊게 받은 것은 역시 현상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상학 그 자체를 설명할 여유는 없으나 후설이 항상 "사상(事象)그 자체로!"(Zur Sache selbst!)라고 주장한 점으로 미루어 그가 얼마나 철학에의 직접적인 소여를 진실하면서도 엄밀한 입장에서 파악하려 했음은 곧 짐작이 간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기술적 분석을 강조도 했으며 일상적인 세계는 괄호 안에 넣고, 의식 초월적인 것도 배제한 뒤에, 순수의식만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그러나 후설의 뒤를 계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그 주체인 인간으로 확대시키며 그 구체적인 인간이 생존하는 현실과 일상성에서 인간적 존재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술어적으로 나타내는 현 존재를 그 일상성에서 파악하며 그것의 실전적 분석을 존중시한 점이 바로 이것을 뜻함이다.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가 함이 그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존철학의 방법론은 현상학으로부터 중요한 암시와 내용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이데거의 주저인 『존재와 시간』은 물론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도 '현상학적 존재론의 시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1인자인 하이데거 자신의 방법론을 해석학적 현상학이라 규정하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역사적 배후에서 주어진 것이다.

× × ×

그렇다면 이러한 실존철학이 지니고 있는

대외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 내적인 중심과제들은 앞으로 인물과 더불어 논급되어야 하겠지만 실존철학이 오늘의 철학으로 형성되는데 불가피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들은 우선 실존과 신의 문제를 취급해야 할 것 같다. 거기에는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서양철학은 옛날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학문과 과제를 동반해 가지고 왔다. 내용에 있어서의 신학과 방법에 있어서의 자연과학이다. 철학이 신학과 더불어 있을 때는 언제나 형이상학과의 관계를 맺어 왔지만 , 같은 철학이 자연과학과 깊은 유대를 가졌을 때는 흔히 인식론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의 실존철학은 현대의 형이상학으로 머물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얼마나 신학적인 과제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모든 철학이 그러하지만 실존철학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는 그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어떻게 본래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적 존재는 스스로를 초월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실존적 한계성을 초극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자연히 종교적인 것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종교적 실제인 신의 문제로 전개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들이 흔히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마르셀을 유신론적 실존철학자,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를 무신론적 실존철학자로 구별해 보는 배후에는 이러한 역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차이가 대재되어 있는 때문이다. 실존적인 문제의 해결을 초월적 실제인 신에게로 돌리는 입장과 신이 없는 인간과 사회에게로 환원시키는 태도는 너무나 먼 거리의 해결방법인 때문이다.
 그러나 세 사람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의 주장도 서로 같지 않으며, 세 사람의 유신론적 실전주의자의 신관도 근본에 있어서는 서로 먼 거리에 머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철저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적인 신관, 즉 신은 인격적 존재이며 인간과는 질적으로 초월하여 있는 주체이므로 오직 신의 은총과 속죄에 의함이 없이는 신으로 도달하는 길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카톨릭으로 귀의한 마르셀은 스콜라적인 신관을 그대로 철학적인 신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은 마침내 초월자인 신과의 성스럽고도 신비로운 사귐에 의하여 모든 실존적 과제와 요구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노력과 신의 은총이 사랑으로 합치되는 곳에 문제의 해결점이 열린다. 키에르케고르와 같이 신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신의 합일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같은 유신론적 실존철학자라 해도 야스퍼스의 신은 기독교적인 신은 아니다. 이성적 신앙을 전제로 삼는 그는 인간의 어떤 한계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죽음, 고뇌, 투쟁, 죄책 등의 상황을 해결 짓는데는 초월자가 필요하며 초월자는 암호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여 준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신의 계시가 아니다. 우리들의 존재성을 포괄하는 포괄자로서의 뜻이며 보다 높은 전체로서의 이성의 뜻이다.
 이와 같이 유신론자의 실존적 해결이 신으로부터 주어져 절망적인 암흑에서 희망의 광명으로 향하게 되나 어쨌든 그 해결에의 방도는 종교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실존적 과제의 해결을 신이 없는 입장에서 찾으려 할 때는 당연히 니체와 같이 인간의 운명을 세계의 운명에 환원시키던가 사르트르와 같이 사회의 행동성에서 찾던가 할 수밖에 없다. 니체가 영구회귀의 세계운명에 순응함을 초인의 길이라고 보는 것이나 사르트르가 행동적인 사회주의를 택하여 역사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중 하이데거만이 종교적인 의의로 약간 암시하는 해결의 방도를 택하고 있다. 모든 존재자는 그것들로 하여금 존재자가 되게 하는 존재의 힘을 받고 있으며 그 힘이 존재로서 온갖 운명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어쨌든 실존철학은 신 및 신학과의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 × ×

 실존철학이 철학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 및 사회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실존철학은 그 성격상 자연과의 깊은 관계는 맺고 있지 않다. 문제의 중심이 자연적인 것과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존과 사회의 문제는 오늘에 이르면서 그 밀접성을 더하고 있으며 고립적인 실존에서 사회적인 실존, 개체로서의 과제에서 역사적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서 있는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문제였고 니체도 역시 세계운명과 대결하는 개인으로서의 초인이 문제였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하이데거의 모든 실존범주도 자각하는 개체가 언제나 중심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야스퍼스와 마르셀에 이르러서는 사귐의 철학으로 성격을 바꾸었으며 그 사귐의 문제는 개인이나 이웃과의 사귐에서 신과의 교제, 사회에 있어서의 자아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실존에의 방향은 마침내 사르트르에 이르러 새로운 기반을 건설하게 되었다. 사회와 역사에의 참여가 없이는 참다운 실존의 의의와 목적을 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위치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존재 및 실존구조의 연관성이다. 고대의 철학도 그러했거니와 모든 존재 특히 우리들의 실존은 공존성과 계기성(繼起性)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전자가 더불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존재를 의도한다면 후자는 언제나 발전 변천하는 역사적 존재를 가리키는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떠나서는 존재가 해명되지를 못 한다. '나'는 '너'에 대하여서 '나'인 것이며 현재는 과거나 장래에 대비하여서만 '지금'인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주체의 대상을 신이나 세계로 돌렸고 혹은 어떤 전체자나 근원자에게로 향해보기도 했으나 언젠가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것이 실존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운명의 공동성, 행동과 자유의 공통된 기반을 자연히 주체자의 본질을 공동체 및 전체성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그것은 고립된 실존을 사회적 실존으로 이끌어 가는 길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장을 달리 논해야 하겠고 때문에 여기서는 할애하기로 하자. 우리는 실존철학의 역사적인 기여와 더불어 실존으로 하여금 실존되게 한 대외적인 문제, 주변적인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내용을 위한 전제로 삼아본 것이다. <계속>

만화

깜찍한 병사(兵士)

 1870년에서 1871년에 걸쳐서 독불 전쟁이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비스마르크는 황제 빌헬름 1세 때부터 적전에서 용감히 싸워온 어느 병사에게 칠십자 훈장을 제1급을 수여하도록 명령했다.
 이때 그는 병사에게 농담을 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만일 자네가 돈에 궁하다면 자네는 십자훈장보다도 100달러의 돈을 받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물었다.
 "그 훈장은 얼마치 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는 병사의 질문에 비스마르크는
 "'명예 있는 표창'이라는 생각을 떼어 버린다면 이것은 글쎄, 3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겠지." 했다.
그러자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현금 97달러와 그 훈장을 받고 싶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병사의 깜찍한 대답에 빙그레 웃으며 그의 말대로 97달러와 훈장을 동시에 수여했다고 한다.

가죽장갑과 가죽바지

 브랑켈 장군은 어느 날 궁정에서 내친왕(內親王)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브랑켈은 내친왕의 손의 살결이 부드러워 보였다. 그래서 칭찬을 하니까 내친왕은 그 비결을 노장군에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가죽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브랑켈의 대꾸가 걸작이었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인데요. 저는 가죽바지를 50년 동안이나 입고 있지만 저의 엉덩이는 점점 굳어지기만 하옵니다."

생 활 논 리

조풍연(趙豊衍)

오자(吳子)가 난 것이 아니다. 확실히 197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이야기를 쓰라 해서, 지금 이 붓을 드는 것이다.

흔히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강산 정도가 아니다 우주가 변할 앞으로의 10년이다. 정확히 말해서 우주 자체는 변동이 없고 우주에 대한 사상과 우주에 대한 개발이 지금보다 확실히 앞설 것만은 틀림이 없다. 우주 과학자들은 달나라를 비롯한 우주여행이 목전에 있는 듯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의 개발은 지하와 해저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주여행을 위한 모든 과학적 소산은 병기와 상통하고 있다. 어쩌면 과학병기가 극도로 발달되어 우주 과학을 촉진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주 개발은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주는 이익이 무척 희소하거나 박약하다고 봄이 옳을 것 같다. 이온이나 광자의 힘으로 로켓을 띄워서 1초 30만 킬로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난다고 치고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하나 해저의 개발은 곧 우리 인류의 실익과 연결된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현재 미국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연구의 단계를 벗어나서 실천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 개발이란 그야말로 처녀지지만, 해저 개발은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 손을 못 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해중의 보고(寶庫)는 지상의 7배나 된다고 한다. 이것이 파헤쳐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그 가능성을 믿어도 좋다. 물과 석탄에서 울 나일론이 나올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날 그 혜택을 입고 있듯이, 지하나 해저의 보고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혜택을 입을 날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있을 것이다.

인류의 지혜와 노무력

이렇게 되면 가장 아쉬운 것이 사람의 두뇌의 활동, 지혜이며 그리고 그 지혜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노무력일 것이다. 이 노무력은 무거운 물체를 다루는 근력이 아니라 손가락만으로 충분한 기술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교육과 훈련이 달라질 것이다. 과학 한다는 것은 인류 봉사의 최고의 모럴이 될 것이다. 어쩌면 종교보다도 우위에 올라설지도 모른다. '과학 만능시대'는 이미 19세기에서 과시되었다. 20세기 후반에서는 '과학 숭배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능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이를테면 현재 십 수억에 달하는 인류가 모두 과학에 투석할 수 있느냐하면 그렇지는 못 할 것이다. 인구는 여전히 팽창하고, 기아는 여전히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어느 특수한 그룹만이 과학의 세계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 - 정치성과 사회성의 지정을 닦지 않고 저돌 맹진하는 과학의 발달을 한편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인류는 역사상 최대의 아니, 인류최후의 대규모 전쟁의 위협에서 멀리 있지는 못 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궁극에 가서는 민주주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지금도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네만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는 물질의 결핍에서부터 태동한 것이었다. 물질이 결핍함으로써 편재한 것이었고, 편재하면 자연 빈부의 차가 우심하여 반발이 생긴다. 물질의 재분배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주의혁명은 일어난 것이며 재분배된 물질을 토대로 노력 동원의 의무를 재배정 하자는 것이 공산의 사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본인권의 획득, 내지는 탈환에서부터 태동하였다. 자유와 평등 의식의 각성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 사상은 급속도로 발달됨에 있어 사회주의 과정을 생략하고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에서 2차 대전에 걸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발전을 하여왔다. 세계는 마치 둘로 갈라진 것 같이 되었다. 그렇지만, 좀 더 냉정히 그 두 개의 주의가 발전해온 자취를 엿본다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는 개방된 방법에 의하여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사회주의는 조직을 통하여 동지를 확대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조직은 조직을 위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만 유지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근본적으로 개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회주의는 발전한 것이 아니다. 그 실은 침략에 의하여 판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주위의 자유민주주의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가장 노기 띤 고슴도치가 되고 말았다.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사회주의는 적어도 그 수단 방법을 변경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세기 이상을 닦아놓은 토대가 하루아침에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어제 오늘날 같은 장막 안의 사회주의는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안에 민족자결의 사상이 일어난 것은 이미 오래지만, 사회주의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위성국가군의 낡은 껍질을 벗어나 국가 단위의 자결주의로 지향하는 것은 이미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단결하는 유일의 응결체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자유진영의 '침략'이었다. 사회주의자는 누구든, 언제든, 자본주의 국가군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군에 대한 침략이라고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체가 선전한 침략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뿐더러, 제2차 대전에서는 소련을 도와 나치와 싸운 것도 자유진영이요, 전후의 기아(饑餓)선상에 놓인 인류를 구출한 것도 민주주의 사상의 은덕이었다.

모든 민주주의 발전과 투쟁은 깡그리, 개방된 방법에 의하여 2초 만에 지구를 돌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극히 소수의 인간만이 그것을 바라다볼 수 있을 뿐 수억의 인민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형상이다. ―이것이 과연 오래 지속 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를 후퇴, ―아니 그 궁극의 목적이라는 민주주의로의 전진까지 유발하는 데는 과학적 소산이 한 몫을 볼 것이다. 텔스타의 완성은 좁은 지구를 굽어보고 장막 속에 앉은 인민들이 텔스타를 통해, 유리장 속에 든 것과 같은 자유세계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단 방법을 근본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침략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분열에서 방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양사상의 부흥

오늘날 우리가 참다운 평화와 균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지구 위를 감싸지지 않고는 못 베길 듯이 보이는데, 그것은 과연 어떠한 사상인가.

사상에는 물론 공리적 타산에서 임시방편이라는 것은 없다.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사회주의가 타협하기 위해 어느 사상의 줄거리를 찾아 낼 수는 없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귀착될 사상의 오솔길이 미리부터 깔려져 있어야 한다. 도대체 타협이라는 것은 '휴전'이지 평화는 아니다.

지극히 당돌한 판단이지만, 앞으로 지적세계에서는 동양사상의 부흥 없이 새로운 우주관, 인생관 내지 처세관은 찾아내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요, 동양사상에 새로운 진리의 적합성을 발견한 것도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 동양사상은 물질문명이 인간사회를 지배하기 이전에 토대를 쌓은 사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구상화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라미드에서 우주 과학이 발달해 가는 세계를 관망하며 물 둘 곳을 모색하게 될

특집 1973년에의 조망(眺望)

것이 아닌가.
그것은 노자의 천장지구(天長地久)의 사상이건, 공자의 각어기당(各於其黨)의 사상이건, 혹은 그러한 것들이 혼합이건, 그것까지 짐작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천하'라는 말이 가장 진실을 띈 오늘날에는 2000년 전에 인간성을 탐구해 놓은 동양철현의 사상이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되지 않나 -참 막연하긴 하나 이 밖에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을 듯 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아주 터무니없는 속단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학의 연구는,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고 들리며, 이에 따른 동양 고전의 번역 소개, 새로운 저서가 속출하고, 근자에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지교(支校)를 일본에 두는 등, 전례에 없이 활발성을 띠고 있다.
또 1962년도에 있어서 손자병법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한 몫을 보았다는 사실은, 일본의 문화가 차지하는 위치에 비추어 결코 범연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하면 긴 것도 같고 짧은 것도 같다. 어쩌면 현재와 같은 불안이 그대로 뻗쳐나갈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10년 후의 윤리관을 더듬는데 있어서 동양사상의 부흥을 예상하는 것은 반드시 경솔한 판단은 아니리라고 믿는다.

세 계 정 국

김광섭(金光涉)

분초를 다투며 사는 1963년의 지점에 서서 향후 10년 뒤에 올 세계의 움직임, 1973년에 국제 정세를 내다보기란 힘든 일이다.
설사 10년 후의 국제 정세에 일정한 전망을 내린다 해도 그것은 점성가의 예언자적인 가설이거나 아니면 풍수·도참설의 허구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각 분야에 걸쳐 그 성쇠가 완만하고 그 발전도의 폭이 좀 던 세기 전만 하더라도 10년이라는 시차는 그다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본격화한 산업혁명과 20세기 들어 현대의 경이로 알려진 과학, 기계문명의 놀라울 만한 발달로 현대의 10년은 세기 전의 100년과 거의 같은 성질의 진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조직 신학의 태두(泰斗) 폴 티리히 박사는 일찍이 현대문명의 상황을 일컬어 "인간의 지혜는 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까지 이르렀다"고 비유한 적이 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상황, 절벽 위에 주어진 '울타리'까지 도달한 극한상황 여기서 사람들은 뒤로 물러갈 수도 앞으로 전진 할 수도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티리히 박사의 학설은 어디까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인 차원의 이야기이지 형이하학적인 물질문명에 한해서는 아직도 발전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10년'이라는 기간은 현재 물질문명, 직접적으로는 과학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획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인구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유엔 본부는 1962년 9월 1일 세계의 인구백서라고 할 1961년 「인구연감」과 「인구통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1961년 7월 1일 현재 세계 총 인구수는 30억을 돌파하여 30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숫자는 1950년에 비해 5억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이런 인구증가율을 보면 1초에 3명꼴로 늘어가고 있다.
세계은행의 총재이며 인구문제에 조해가 깊은 경제학자 유건 브레이크 씨는 이런 추세(趨勢)세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한 시간에 세계 인구가 5,000여명 꼴로 늘어나는 것이니 앞으로 40년 후의 세계 인구는 60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브레이크의 소론을 빈다면 따라서 1973년에 세계 인구는 37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특히 경제적으로 산업화 이전 상태에서 원시 경제로 허덕이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1973년대 이르러 이 지역의 식량 문제는 한층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1973년에 들어와 국제 정치 무대의 지역은 아무래도 소위 아시아, 아프리카 블록을 연락하는 신생 독립국가군으로 대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생제국의 제3세력이 국제정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세계권력 정치(파워 폴리스틱)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세력의 진출은 오히려 20세기 중엽에 들어와 변질하기 시작한 미·소 양국 세력의 동·서 세력권적 투장에서 어부지리를 틈타고 부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징조는 1962년 110개로 나타난 유엔의 성격과 식민지 해방 기운을 틈타 공산혁명 수출을 계기로 치열해지고 있는 소련·중공의 동조자 쟁탈전 그리고 미국의 대 후진국 외교의 부작용 등으로 점차 뚜렷하게 부닥치고 있다.
1973년쯤이면 40대 청년 정치가로 일약 세계정치가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는 통일 아랍 공화국의 나세르 대통령과 서부 뉴기니아의 영토권 문제를 가지고 네덜란드와 대결하여 외교적인 판결 승을 거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후진사회에서 단시일 안에 민주복지사회로 국가의 수준을 끌어올린 인도의 네로 수상 및 그의 후계자들이 국제 정치의 캐스턴 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엔은 1945년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것이 1962년에 들어와 110개국의 대가족으로 불어났다.
특히 최근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태반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랜 신민주의의 굴레를 벗고 신생독립한 나라들이다. 그들 앞에는 미·소의 냉전 과정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문제보다도 아시아 아프리카적인 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가하고 질병과 기아로 허덕이는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의 끽긴한 문제가 놓여지고 있다.
1962년 뉴기니아 협정에 의해 네덜란드령 서부 뉴기니아를 유엔 관리 하에 이양하는데 성공한 인도네시아는 1963년 5월 1일에 유엔으로부터 정식으로 그 관리권을 인수하고 1970년 이내에 파푸아 원주민의 자결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다.
스카르노의 전통적인 교도정치를 생각할 때 미개발지역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고 국민투표로 인도네시아의 귀속을 확정시켜 놓은 인도네시아는 1970년 넘어서면 서부터 인도와 더불어 동남아 일대의 비동맹·중립 국가군을 이끄는 사실상의 주축국으로 군림할 것이다.
1963년 8월에 탄생할 말레이시아 연방-남중국해역에 위치한 말레이, 싱가포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 및 부르네이의 5개 영토로 구성되는 이 범(汎)동남 연방은 그 발족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영토 확장 의욕을 견제하면서 중공의 남진을 저지하는 강력한 반공의 보루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 국가의 경제실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영국의 뒷받침을 얻어 어느 수준까지는 종전의 생활수준을 크게 개선, 1973년경에는 강력한 연방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같은 후진의 숙제를 안고 있는 아프리카는 거개의 전식민영토가 독립을 했고 향후 10년 이내에는 나머지 남서구 제국의 보호령이나 유엔 신탁통치령으로 잔재해 있는 국가들도 완전 해방되어 유엔에 가입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해방이 큰 국가의 경제사회적인 자주성을 동반하지 않는 현대 정치 풍토에서 이들의 10년 후 장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 앞에는 아프리카 적인 이익을 구실로 덤벼드는 소련과 중공의 침투 작전이 전개될 것이고 이에 곁쳐서 방대한 아프리카 지역의 지하자원을 노리고 접근하는 서방산업국가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움직일 것이다.
아프리카 제국이 비동맹·중립의 특수성을 내걸고 선진 제국의 경제정책을 냉전 상의 차원에서 요리하지 않는 한 아프리카 제국은 외국의 자본시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9세기를 풍미하던 직접적인 제국식민사 못지않게 경제적인 식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단지 1973년에 이르는 1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국가들이 인민의 교육수준 향상에 진력하고 참신한 민족주의적인 정치를 실현한다면 어느 정도 외세의 침입을 방지하고 아프리카의 산업 및 근대화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로 눈을 돌리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1962년 쿠바위기로 대표된

라틴아메리카의 정정은 1973년을 고비로 크게 변모할 것 같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수개월 뒤에 발족한, 미국의 대 남미 정책의 근간인 '발전을 위한 동맹'은 1970년에 끝이 난다.
15개년 계획으로 자본금 200억불을 계상하고 있는 이 계획이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 개발, 민주세력의 강화 및 미주의 모든 개인에 대한 직업상, 교육상 기회 확대'를 달성하지 못 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상실될 것이다.
1973년의 서구제국은 1963년에 비해 보다 정치·외교 면에서 강대해질 것이다.
전후 미국의 비대한 성장으로 동서 냉전에 있어 사실상 미국의 '피보호국'의 지위 이상을 향유(享有)하지 못하던 서구제국은 1973년에 이르러 영국의 구주공동시장가입 실현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 의 구주통합이 실현으로 어쩌면 미국을 후선으로 밀어놓고 서방 제일(第一)의 집단 정치체제로 등장할 것이다.
더욱이 서구 방위 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1973년경에는 서구 대륙에 구현될 것이다.
1962년 11월 나소에서 열린 케네디 대통령과 맥 밀런 영 수상의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다변적 핵군 창설안'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강렬한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1970년 이후에는 실천에 옮겨질 것이다.
이 다변적 서방 핵군은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똑같이 폴라리스 중거리 유도탄을 제공하여 이 핵병기를 바탕으로 서방측의 핵 저지력이 창설되는 것을 말한다.
영·미·프 3개국의 공동 중앙 관리하에 들어가는 트로이카식 핵 방위체가 실현되면 1973년 이후 서방전략은 1962년 쿠바위기에서 보여준 미국의 선행동 후통고 식이 아니라 국제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서구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1970년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보다는 비록 규모가 작으나 다 같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미·영·프의 핵 정책이 공통의 광장을 찾지 못하고 4분5열 된다면 서방단결은 깨지고야 말 운명에 직면할 것이다
중공도 1963년이나 1964년경에 최초로 원폭을 실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73년경에는 명실 공히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1960년부터 중공과 이념 분규를 통해 금이 간 소련은 10년 후 중공이 핵 국가로 등장하는 경우 공산권 내의 라이벌인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 평화공존을 구실로 대 서방접근을 보다 구체화시킬 것이다.
만약 이런 가정이 하나의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의 우호관계라는 아이러니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프가 끝까지 독자적인 핵군을 유지하고 미·소가 '공포의 균형'을 필요로 하는 한 앞으로 10년 후인 1973년에도 군축 및 핵실험 금지가 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0년 후를 전망하는데 있어 가장 개연성을 띠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정세보다 선진 제국의 과학문명, 특히 우주 과학이 놀랄 만큼 발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1957년 소련이 처음으로 스프트니크 우주선을 발사하여 잉태해준 인간의 달세계 비행염원은 1973년에 완전히 개화할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담당자는 62년 10월 1970년까지는 인간의 달 세계비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미국은 61년에 시라의 6회 지구궤도비행 성공으로 달 세계 정복의 제1단계인 머큐리 계획을 끝냈고 63년이나 64년에는 제2단계인 제미니 계획을 실시하여 두 사람이 함께 탄 우주선을 발사 2주일동안 지구궤도를 선회하면서 달 세계 비행의 예비훈련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1970년경에는 마지막 제3단계인 아폴로 계획을 실시하여 과학자 1명, 조종사 1명, 부조종사 1명 도합 3명을 한 우주선에 태워 지구 인력권을 벗어나 달 세계에 착륙시킬 것이다.
이 아폴로 계획이 꼭 예정대로 1970년에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나 1, 2년의 경험을 통해 1973년에는 드디어 햇볕을 보지 않을까하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1973년의 국제 정세를 인간의 영원한 과제, 국제 평화와 안녕을 향한 정착지로 볼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핵전쟁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고비의 국지 분쟁은 발생할지 모르나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전면전쟁이 있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가 그랬듯이 1973년에 이르는 전정에도 분쟁, 타협은 부단히 계속될 것이고, 세계 전국의 청·탁(淸濁)은 엇갈릴 것이다.
그러나 1973년에 들어가 인간의 영원한 향수, 달나라에의 꿈은 한 가닥 현실적인 실마리를 안겨 줄 것이다.

—공상(空想)을 통(通)한 미래상(未來像)—

한 국 민 주 주 의

신일철(申一澈)
〈고대이문대강사〉

1.

새해가 오면 다음 해에는 더 잘살게 되리라는 기대와 아울러 1년 신수를 점쳐 보고 싶은 심정을 가짐은 인간의 상정일 것이다. 점을 치는 심정은 희망을 가지는 마음이오. 숙명에의 맹종만 아니라면 미래의 전망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을 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남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과학적인 안목으로 스스로가 자기의 갈 길을 예견해 보아야 할 엄연한 사명을 저버리는 자기 무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긴 목을 보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6·25의 피의 일요일은 그에 앞서 5년 전에도 예견할 수 있었을 비극의 씨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것은 통탄스럽다. 지나쳐버린 일들을 돌이켜보면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을 사실들도 그 이전에는 무엇엔가 눈이 어두워 있었음을 깨닫는다. 과거 10년은 장래에 10년에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란 것은 결코 우연변이가 아니, 상호작용과 성장으로서 과거가 미래 속에 계승되는 과정으로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예견이 가능한 것이다. 6·25동란은 꼭 6월 25일 미명에 시작되리라고 점칠 수는 없어도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내포한 김일성 일당이 그 준비를 통해서 침략의 길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4·19와 5·16도 우연한 돌발사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올 것은 오고야 만다'는 것은 충분히 일면의 진리를 말해준다. 그렇다고 올 것에 숙명적으로 조종하려는 것은 곧 노예의 길인 것이다. 과거 우리 민족은 올 것을 대비할 줄 몰랐다. 오는 액을 막지 못 한다는 집념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무상감의 세계에 안주하여 과거에만 향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파멸밖에 없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10년 전과 오늘의 한국을 보고 10년 전(6·25 직후의 부산 정치파동기)의 되풀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변한 것이다. 이 속도에 가속을 예상해서 다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극동의 세력 균형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 실로 무서운 느낌마저 든다. 10년 후의 세계로 상상력의 날개를 펴는 순간 한편 보다 많은 빌딩이 선 수도 서울을 그려보면서도 또한 마음 한구석에서는 검은 구름이 밀어 오기도 한다. 변화란 우선 두려운 것이다. 변화는 안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변화를 예상만 하는 것도 무서워서 눈을 감아 버린다.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냥 놓아두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하는 공포가 앞서기 때문에 변화에 외면하려고 한다.
그러나 세계는 변한다는 것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변화를 무변화로 자신이 만들어 오인하는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할까. 그러므로 보수적인 인간일수록 점을 치고 싶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가 자신의 앞날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넓은 시야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점치는 일이 긴요하다. "1973년의 한국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받아 놓고 점을 친다. 점괘는 언제나 냉혹하나, 치는 사람의 기대에 어긋날수록 맞는 점이오. 사실상 세상에는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흉운을 점하는 것이 가장 상책일 것이다.
다음에 그려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공상이므로 그것은 결코 사실이라고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 각자가 모두 희망이 있는 미래상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민족이상을 가진 민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2.

앞으로 10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정을 앞두고 제3공화국은 어떤 형태로 굳어질 것인가? 에 대한 전망이 먼저 서기 전에는 확실한 점을 치기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정당이 나타난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오,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자유사회의 기반은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민주당 집권 시대와 같은 자유방임적인 사이비 '자유'가 행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실 자유와 책임은 병행하는 것이므로 책임성이 결여된 자유를 구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만하임의 이른바 '자유를 위한 계획'이 새 시대의 복지국가를 위한 사상적 방향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도 내용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내용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생각할 때 장래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수정이라는 방향을 걸어야 할 것이다. 경제 자립과 민주주의의 완전화라는 모토에서 '한국의 비전'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자기 체질과 분수에 알맞게 적응시키려는 자각은 좋은 것이며 민주주의의 한국화에 대한 노력이 파시즘을 위한 가면이 아닐 때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의 앞날에는 경계해야 할도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파시즘 독재와 공산침략이다. 이 두 가지 위험성 사이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성장시켜나가느냐는 심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 한국은 두 가지 전체주의의 위험을 올바른 민주적 신념에 의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국 농촌의 무지와 빈곤 그리고 '동양적 전제'하에서 형성된 전통적 정치의식은 오늘날의 폴리티컬 아포시(정치적 무감각)와 합해서 모두가 파시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이 정치는 소수자에게 위임해 버리려는 정치적 무상감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의 결여를 악용할 무리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책임성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된 우민 정치를 통해 집권자에게 권력을 위양하는 습성이 고질화될 수도 없지 않는 것이다.

집권자는 대개가 노예를 좋아한다. 그러나 훌륭한 집권자는 그렇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 장래는 그 대부분이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은 과거 12년간 한국의 정치 풍토를 황폐케 만들었다. 그 첫째가 중망있는 야인 지사와 건전한 야당 육성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성인군자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당은 그 당리보다 선행하는 것, 민주정치의 기초인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다. 당쟁과 사화가 학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적에 대한 관용성의 결여인 것이다. 집권당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룰을 깨뜨려 정권을 손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룰이 파괴되지 않고 정권을 야당에게 넘겨주는 아량- 이것만은 가져야 한다.

장래의 한국 민주주의는 집권자들이 소위 '극한투쟁'보다는 차라리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쿠데타와 데모 등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속에서는 경제적 성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빈곤과 불안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 한다.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한국에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일인이 독재를 강제로 연장한 프랑코 스페인을 모방하라는 말은 아니다. 정치변동은 비정상적 수단으로 감행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여러 번 수술을 되풀이하는 결과는 그 체력을 허약케 하며 회복력을 상실케 하고야 말 것이다.

혁명은 좋다. 그러나 중남미 쿠데타의 만성과다증에 걸리는 것을 심히 두려워한다. 비정상적수단에 의한 정권교체가 악습화 하기를 방지하는 길이 민주주의이다. 그것이 의회 민주정치의 건전화이다. 이것이 10년 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임을 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후 1973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생존하여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그 해답에 yes가 아닐 수 없다. 만일 no라고 한다면 이 글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요 신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신념이 모든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이 확신이 무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로 제3 공화국 일인 독재로 흘리지 않는 일이며 부패와 부정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만일 재제3공화국이 썩어 넘어진다면 최후의 공화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로 빈곤을 추방하고 경제 5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야 한다. 경제가 파탄되고 빈곤이 격화되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사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나 기타 나라들의 '보이지 않는 경제침략'을 막아내야 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체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과중한 군사비와 경제자립의 안티노미가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 외원(外援)이나 자력자조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들이 성공적으로 충족된다면 앞서 말한 재변이 없는 한 희망이 있는 것이며 거기에 다시 일본 중공이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변모하는가 하는 극동세력균형과 4월 이후 젊은 세대의 지도세력 성장의 두 변수를 넣어서 생각한 함수관계에서 한국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먼저 중공은 10년간 생존한다고 가정한다면 흐루쇼프의 소련이 자유화의 희구에 눌려 수정주의 경향을 기울여지는 것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공이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발언권을 가지더라도 국내적인 막대한 난관에 눌려 제 몸을 가누기에 바쁠 것이요, 다시 침략을 감행할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중공은 급진적이요 압제적인 폭정을 포기하고 온건한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다면 이웃 한국은 자유 세계의 지지 하에 능히 그 압력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다음 일본은 전후의 고도성장을 통해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나 오늘에 와서는 해외시장의 축소로 고민하고 있다. 일본 자본주의는 울타리 안에 갇이 굶은 사자처럼 으르렁대기는 하면서도 선뜻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요. 그러한 출구를 얻지 못하는 한 일본군주의(軍主義)의 복구는 허망한 꿈이 되고 새로운 세력의 성장에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일본의 사회당이 곧 집권하리라는 전망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세력 중 온건한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는 동안에 일본 경제의 고뇌는 계속 인근 한국이 그들의 메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경제침략의 위험성은 점차 중대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한국은 기업인들의 일본의 매판자본화 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해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맨스필드 극동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대공정책은 동남아에서 인도, 극동에서 일본을 포석으로 삼고 있는 이상 미국정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지위는 어느 기간 높은 것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의 지위가 높다는 것이 한국에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일본의존도를 형성해야 할 궁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면 그만인 것이다.

1973년의 한국 민주주의는 심히 복잡한 제 조건의 함수관계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자력의 형성에 있다. 오늘의 20대가 40대로서 국정을 담당할 것이요, 4월 혁명의 민주세력이 30대로 성장하여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다. 앞으로 10년은 지도세력의 교체기요, 새로운 젊은 민주주의적 민족지도 세력의 대두기라고 보아 이 세력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은 어느 정도 낙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난관은 지금부터다.

앞으로의 세계(世界)

B. 럿셀

만일 과학적 기술이 과학전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일이 차후 80년 동안에 기대될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달세계 여행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달세계에는 공기가 없으므로 그들은 공기를 휴대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금성이나 화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더욱 중대사이다. 화성은 달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없으며, 있다 하여도 매우 희박하다. 금성은 공기를 가지고 있으나 유독하다고 한다. 수상한 너무 덥고, 다른 유성은 너무 춥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태양계는 인구 과잉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행하여질 것인지 도저히 알 바 없다. 아마 모든 사막은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질 것이다. 아마 사하라 사막은 인구 많은 항도시(港都市)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호주의 중심지는 전원의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소련인은 예니세이 강물을 다른 데로 흐르게 하고 산맥을 높이 쌓아올려 북측 바람을 막게 함으로써 시베리아 벌판을 변형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는 것이다. 캐나다 동측 해안은 현재 한류(寒流)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어느 적당한 갑(岬)에서 해상 20리의 방파제를 만듦으로써 한류를 가라앉게 할 것이며 따라서 립아돌의 겨울은 영국의 겨울만큼 온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을 보증할 수는 없으나 설혹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무엇은 확실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양식을 화학적으로 제조한다는 것이다. 왜 일부로 힘들여 땅에다 심고서는 변덕스런 일기에만 의존하여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왜 공장에서 조반을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일까. 이와 같이 만들어진 음식은 별반 맛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이런 음식에도 익숙하게 될 것이고 소위 '진짜' 양식은 결혼 축연이나 국가원수의 연회를 위해서 옛날과 같이 생산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는 바이다. 그리고 부호들은 초대장 한쪽 구석에는 '훈장을 패용할 사(事)' 그리고 다른 한구석에는 '진짜 콩'이라고 적은 초대장을 발송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야기된 농촌 인구의 실제적 대경감은 심원한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지적으로 될 동시에 히스테릭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정치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낙원을 만들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현만 된다면 그 결과에 있어 더욱 혁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손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로봇에 의해서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적 두뇌는 급속도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래지 않아 전문가들만이 로봇과 생명 있는 인간과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버트 위나 박사의 말을 믿어야 한다면 늦어도 50년 이내에는 완전 설비된 공장에는 스위치를 누르는 단 한 사람만을 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머지 모든 일은 정밀한 기계 설비에 의해서 행하여질 것이다. 주주총회 같은 데서, 자기 옆에 앉아있는 것이 과연 인간인지 혹은 기계 보조역 즉 로봇인지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는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며, 기계에 투표하는 것을 배워준다면 민주주의는 드디어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 공상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존재하여온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그 종막을 짓게 되리라는 것은 결코 공상적인 것은 아니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그 대신 휴식시간을 연장하기를 좋아하며 생활비가 오르면 언제나 노임인상을 요구하는 많은 근로자들을 이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99는 군에 소집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임시적인 처치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 로봇은 어떤 인간 병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죽음에 대한 멸시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하튼 도덕가로서 생각할 때 인간은 유용하여야 하며 그 유용함을 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고 사고하는 습성에 젖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일이 이 이상 더 요구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전 윤리체계는 붕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향락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도덕가들은 하는 수 없이 새로운 불유쾌한 과업을 꾸며내어 우리들이 다 같이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행복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이 일에 지탱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지만 전쟁이야말로 그들이 채택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류가 양대 진영으로 분열되어있어 피차간 서로의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각자의 임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널리 보급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도덕관은 오늘날까지 그러하였던 것보다 더욱 친절하게 되어야 하며 세계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쾌락을 발견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욱 유쾌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 나는 물질적 필요성이라는 압력이 제거되면 일반적으로 친절과 기쁨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인간은 그들 자신의 행복이 안전하게 되리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쾌락을 평정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가 머지않아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침울한 기분의 사로잡힐 때 나는 인간성의 뿌리 깊은, 증오, 악의, 선망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게 되며 과연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던 행복을 용납할 것인지 그 여부를 의심 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상한 투쟁의 순간 속에 살고있는 것이다. 인간 감정은 역사의 여명기 이래 오늘날까지 변화되어 온 바 없지만은 인간의 자연 정복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우리의 열정, 욕망, 그리고 공포는 혈거인의 그 열정, 욕망, 공포인 것이지만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우리의 힘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엇인 것이다. 인간은 너무 무지하여 욕망의 실현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제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욕망을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아직 어렸을 때 세 가지 욕망을 들려주는 마술사에 관한 동화를 들은 바 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으레 우둔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참으로 이상한 무엇을 욕구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인류의 경우와 거의 같은 것이다. 로마의 폭군 칼리굴라는 단번에 그의 적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그들이 단 하나의 머리만을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꾸만 많은 머리를 갖게 되었으므로 그는 드디어 좌절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의 칼리굴라들은 수소 폭탄을 제조하고 있으나 아직 방해된 바 없었다. 인간이 획득한 새로운 힘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는 지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감성에 있어서도 성장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한 불행이 곧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는 진리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는 날을 거듭할수록 기술적으로는 더욱 통일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더욱 분열되고 있다. 나는 교육을 잘 현명하게 운영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즉 각기 집단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충돌은 한 사람의 성공 즉 다른 사람의 실패임에 틀림없다는 그런 취지로 그릇된 신념을 주입시킨 무용 하고도 우둔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야기되고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국가에 지배되고 있으며 국가의 영도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념을 청소년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원수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나는 어떤 정신병 학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히틀러는 단번에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히틀러는 고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원수들을 다 납치하여 현자들이 관리하는 요양원에나 입원시키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 결과는 의문인 채 남지 아니 하면 안 된다. 나는 그 결과를 보지 않을 것이나 나는 그 결과가 행복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Bertrand Russell, Unpopular Essay에서>

한국(韓國)의 산수(山水)

연재 심포지움
한국의 사랑
②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

한국의 산수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산수라고 해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사막에라도 정들어 살 탓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정든 산수이기 때문에 하는 말만도 아니다.

'금수강산'이란 말은 우리나라를 두고 이르는 별칭이다. 비단에다 수를 놓은 것같이 아름다운 산수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볼 적에 높고 낮은 모든 산들이 숲이라고 하나 없이 발가벗은 몸뚱이 채 누워 있는 것들을 보고서는 금수강산이란 말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사람의 눈이란 간사한 것이어서 옷을 잘 입어 다르고 못 입어 다른 것 같이 산수풍경도 울창한 수림이 있어 다르고, 없어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산수라는 것은 결코 표면적으로 인위적으로 수림을 울창하게 길렀다던가, 기화요초를 심었다던가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천연적으로 생겨진 그 바탕 자체를 가지고 일컫는 것임은 물론이다.

아시아 대륙의 동방에 높이 솟은 백두산(白頭山)이라는 한 커다란 조종산은 바로 산해경(山海經)에 적혀있는 불함산(弗咸山)인데, 그것을 바른편 팔다리를 북쪽으로 내어 뻗은 것이 만주(滿洲)벌판이요, 왼편 팔다리를 남쪽으로 내어 민 것이 반도로 된 우리나라인 것이다.

이같이 백두산이란 것이 오늘은 만주와 한국의 경계가 되어있지만 실상 우리 민족의 역사로 말한다면 백두산이야말로 오늘의 서울 삼각산처럼 국토의 한 중앙에 자리 잡은 중심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산수를 이야기하면서 백두산 북쪽은 아예 생각도 않게 된 오늘이 원망스럽기도 한 채로, 오히려 그보다는 백두산 남쪽 그것조차 두 조각으로 갈라진 오늘 우리들의 사정이 한결 더 통분하지 아니하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이른바 국제간에 처한 육교로서의 '반도'가 가진 슬픈 운명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지리적으로는 악조건 아래 놓인 그대로, 다시 한편으로 하늘이 준 산수 자연 그것이 아름다운 것만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원컨대 고려 국에 태어나서 친히 금강산을 보고지고'(願生高麗國, 親見金剛山)란 시는 일찍이 중국 사람들이 외우던 귀절이었다. 이것이 우리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적혀있는 것을 보면 무척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사귀었던 줄을 알 수 있거니와, 그만큼 저 대륙 사람들이 '소원'을 걸고 보고 싶어 하던 아름다운 산수가 바로 우리 땅에 있는 산수인 것이다.

백두산 압록강을 넘어서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만주들판이 열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빛이 눈앞을 흐리게 하는 반면에 반도 안으로 들어서면 앞도 산이요, 뒤고 산이라 가슴 앞을 막는 것만 같아도 어느 결엔지 제 몸이 비춰보다도 더 푸른 하늘 밑, 명랑한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면적은 22만 편방 킬로란 것 속에는 평야라 부르는 것도 있고, 도시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실상 따지면 통 채로 산뿐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을는지도 모른다.

백두산 하나가 불끈 솟았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내리는 흙무더기를 일러서 우리는 그것을 '산맥'이라 일컫는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북쪽에는 장백(長白)산맥으로부터 강남(江南), 적유(狄踰), 묘향(妙香), 두개(斗介), 마두(馬頭), 언진(彦眞), 자비(慈悲), 멸악(滅惡)을 거쳐 마식(馬息)산맥에 이르기까지 무릇 열 개의 산맥에 속하는 산들이 있고, 국토의 남쪽에는 차령(車嶺)산맥으로부터 여섯 가닥의 태백(太白)산맥, 여섯 가닥의 소백(小白)산맥과 노령(蘆嶺)산맥에 이르기까지 무릇 14개의 산맥에 속하는 산들이 있거니와, 북쪽에 있어서 1,000m이상 되는 산을 헤아리고, 남쪽에 있어서 500m이상 되는 산들만 헤아려도 자그마치 3천여 개가 있는 것임에 어찌 '신의 나라'라는 말을 아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80%가 산인 나라요, 또 평균 높이도 482m나 되는 나라인 것이다.

세상에는 '산악국'이 라고 일컫는 나라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수처럼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된 나라는 없다.

구태여 우리와 비교할 것조차 없는 일이지만은 티베트 같은 나라는 국토 전체가 우리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도 하거니와, 히말라야니, 카라코름이니, 또 소위 곤륜산이니 하는 엄청난 산들이 찰통처럼 에워싸고 있어서, 바로 산의 감옥 같은 나라인데 우리는 비록 산악국이기는 하면서도 그 같은 '산의 감옥'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리고 또 알프스산의 품속에 들어앉은 스위스라든지, 남쪽의 스페인과 북쪽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모두 다 산악국이요, 그중에서도 스위스는 천하의 명승지라 하여 세계의 손님들이 끊일 새 없이 찾아든 다고도 하지만 온갖 생활조건에 결함 없기로는 우리나라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남북의 모든 산들을 두루 다닌 끝에 스스로 비평하되 '금강산은 수려하기는 하되 장엄하지는 못하고 지리산은 장엄하기는 하나 수려하지 못하고, 구월산은 장엄하지도 못하고 수려하지도 못한데, 묘향산은 장엄도 하고 수려도 하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 국토의 동서남북에 있는 대표적인 네 산을 비교적으로 한 말인 동시에, 그럴듯한 적평이기도 한 그대로, 다시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고향이요 또 마지막 생애를 보낸 정든 곳인 묘향산을 보다 더 예찬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으려니와 그야 어쨌든지 이같이 우리나라의 산들은 혹은 장엄하고 혹은 수려하여 아름다움의 온갖 조건을 서로 다투는 승경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코 이 같은 '승경'이란 조건만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스위스의 산수는 승경뿐이기 때문에 설령 나그네 치는 '여관국가'로 밥장수 노릇을 잘할지 모르나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수는 그야말로 스위스 같은 풍경의 요소를 가진 곳

충무항(忠武港)↑

이외에, 산과 산 새로운 후벼 흐르는 시내와 강물! 강 언덕 마다에 열린 기름진 들판! 동산을 등지고 군데군데 자리 잡은 고요한 촌락들! 거기 농업이 있고, 목축업이 있고, 공업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들의 생업을 통해서 제힘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다른 산악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혜의 득점이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동양화의 적막한 풍경으로 제공되는 빈한한 촌락을 예찬하려고는 아니 한다. 어디까지나 계획 농업의 혁명적인 수술이 가해져야 할 것을 외침은 물론이거니와, 그럴수록 우리 국토가 가진 산수를 배경으로 한 생업 발전의 요소가 풍족한 것만은 더욱더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물질적인 생산 이외에 우리 겨레의 온갖 사상과, 신앙과, 정신문화 역시 산에서 우러났고, 산에 의존했던 것임을 본다.

그러므로 한국의 산악은 표면적으로는 국토를 장식한 무수한 보석인 동시에, 물질생활의 터전이요, 정신수양의 도장(道場)이요, 겨레의 온갖 의거가 되는 보금자리요, 무대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일러서 "산은 높고 물은 곱다"(山高水麗)라고 한다. 높은 산에 고운 물을 짝하지 않았던들, 말 없는 산에 소리치는 물이 어울리지 않았던들, 움직이지 않는 산에 머무르지 않는 물이 감 돌지 않았던들, 그 '홀아비 산'이 어떻게나 민망스러울 뻔했던고!

백두산의 천지가 북으로 흘러 내려가서 만주벌판의 대동맥이 된 송화강 4천 리 언덕에 우리 겨레의 옛 조상들이 부여군입네, 고구려입네, 발해국입네 하고 힘찬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는 잠깐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압록강의 원류를 비롯해서 청천(清川), 대동(大同), 예성(禮成), 한강(漢江), 대진(大津), 금강(錦江), 사호(沙湖) 등 서해로 들어가는 여덟 원류의 강들과, 낙동(洛東), 섬진(蟾津)의 남해를 들어가는

원류와 두만(豆滿), 용흥(龍興)의 동해로 들어가는 두 원류를 합하여 12원류의 강들이 24산맥을 서로 안고, 서로 돌아, 더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룬 곳에 한국선수의 원만성이 있는 것이다.

혹시 라인강이 그리고 구지분하다 해도 그것은 강변에 세운 많은 공장으로부터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실상인즉 근대 공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민족생활의 왕성을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강도 어서 하루 바삐 라인강처럼 더러워져야 할 것이라고 괴변을 토하는 이가 있다. 우리도 남과 같이 공업을 발전시켜서 민족생활을 향상시켜야겠다고 표현하는 말로 하는 말이겠지만, 한강 가에나, 아니 12원류의 맑은 강가에 수천, 수만 개의 공장을 세워서 강물을 흐리게 한대서만 이 민족의 생활이 유족해질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지리적 조건이 각각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농업을 본위로 하고 공업을 부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맑은 강을 구태여 흐리게 해야 할 것이 없을 것임은 물론이기도 하거니와, 또 라인강과는 근본적으로 그 원천이 다른 높고 깨끗한 산악 속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므로 이 나라의 강물은 맑고 깨끗함을 영원히 보전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려 있어서 산수풍경의 극치를 이룬 동시에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까지 구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반도로서 인도나 아라비아 같은 것은 크기만 하고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이 길지 못하며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것은 생김새부터 밉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관상으로도 만점이요, 또 해안선으로 말할지라도 반도만이 약 8,600킬로요,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3,300여 개의 섬까지 합하면 약 17,300 킬로다. 면적에 대한 비율로 본다면 세계의 모든 반도 국가 중에서 가장 해안선 긴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더구나 세계의 오색 빛깔의 바다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 빛깔의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에 있는 동해는 푸른 바다요, 서쪽에 있는 서해는 누런 바다다.

그중에서 동해는 신선한 아침 해가 돋아 오르는 바다요, 또 시외 바다, 보배의 바다이기도 하다. 더운물 찬물 따라 오르내리는 온갖 어족들은 이 나라의 부원이 아니고 무엇이랴.

또 남해는 희망에 찬 이상의 바다다.

신라의 청년 대세(大世)와 구칠(仇漆)이 큰 포부를 품고 동남아를 향해서 떠나간 이대로 이 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나부끼는 바다다.

그리고 또 신라의 장보고(張保皐)가 한 팔로 동아천지를 뒤흔들던 이래로 이 나라 해상 무역의 큰 무대가 되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찌 그뿐이냐. 남해는 번쩍이는 승리의 바다다. 충무공의 맹서가 서려있는 울도, 한산도! 바라보라 민족정기의 서릿발 같은 기운이 파도와 함께 넘놀고 있지 아니하냐.

다시 눈을 돌려 서해를 바라보라 서해는 지난날 대륙으로 통하던 문화의 바다였다. 비록 황하의 흙탕물을 받아 누런빛 띤 바다이로되 그 옛날 학문의 사도들이 저 바다의 물결을 헤치면서 만 리 먼 길을 오가던 바다다.

그리고 서해는 또한 세기의 바다이기도. 역사가 바뀌던 투쟁의 무대 노릇도 했다. 잠자지 아니하는 세계의 조수가 아침저녁 밀려와 기슭을 치는 바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서해는 땀 흘리는 생활의 바다다. 광량만의 염전과 연평도 칠산 바다의 조기잡이 불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생활의 신호인 양 깜박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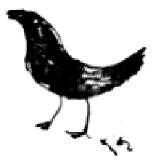
이같이 삼면을 에워 두른 우리 바다는 육지 안의 산과 강과 아울러 이 나라 풍경의 요소를 구비하게 이루었고, 또 그대로 민족 생활의 터전이 되어있기도 한 것이다.

(P45에 이음)

항공과학(航空科學)을 진흥(振興)시키자

—한국 항공 과학계의 과거와 현재—

위상규(魏祥奎)
<서울공대교수>



1. 서언

20세기의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이라 하면 누구든지 비행기의 발달을 상기할 것이다. 전 세기의 자동차 시대를 뒤이어 항공기 시대가 등장한 것은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라이트형제의 동력비행이 성공한 후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의 비행에의 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무동력 비행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업적에 의해 금일의 항공기에까지 발달해 온 것이다.

원래 항공이라 함은 공중을 항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공중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속을 의미하며 영자로 Aeronautics라 하여 항공학을 말한다. 지구 대기는 무한히 높은 곳에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불과 100마일 정도 올라가면 완전한 진공은 아니지만 공기는 대부분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시대의 항공은 우주공간을 의미하게 되어 영자로 Astronautics라는 술어가 필요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으로서 Aero-space라 하여 우리들이 전부터 사용하던 항공에 완전히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보다 우주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한 셈이다.

항공기의 발달 이후 우리들의 생활방식이 달라지고 군사 교통 및 경제의 발달은 항상 항공기의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전에는 거리를 말할 때 서울에서 미국까지 약 5,000마일이 된다던 것을 요즘은 거리를 시간으로써 말하게 되어 제트기로는 약 10시간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문명의 이 기화 된 항공기는 그 나라의 과학 기술이 발달했던 안했던 간에 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 미개지의 아프리카 토인들도 비행기 여행만 하고 있는 세월이니까.

그러면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뻗어 있는 우리들의 한반도는 20세기의 항공기 시대에서 여하한 발걸음을 하고 왔는지 살펴보자.

2. 우리나라의 항공과학기술의 역사

일찍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은 개명된 근대의 과학 문명에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일본인의 식민정책은 우리나라에 항공이란 두 글자는 들어올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이 비행기를 도입하여 자기들의 군대의 현대화에 노력하였고 드디어 그 사람들 기술로써 우수한 비행기를 만들었고 2차 대전 중에는 미국과 대결하는 데 손색이 없는 전투기를 만들었다. 우리들이 비행기를 본 것은 1930년 이후라고 생각된다. 보기도 횡하였고 속도는 지금의 고속 자동차 정도의 것이었으니까? 우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손을 흔들면 타고 있던 조종사는 우리들은 내려다보면서 쌍안경에 털모자를 쓰고 날개를 흔들면서 저고도로 비행하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마침내 만주대륙과 중국 일대에 전쟁을 가져와서 우리 한국은 그 사람들의 후방 지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되어 비행기 조립과 수리 또는 훈련 기지가 여러 곳에 생겼다.

물론 우리들 선배 중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비행술을 습득하여 고국에 돌아와서 후배양성에 분투노력한 분들도 수없이 많다. 그 중 고(故) KNA사장인 신용욱(愼鏞頊) 씨 같은 이는 항공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비행학교를 세웠고 또 비행기 조립 공장도 부산에 세운 바 있다. 일본의 본토가 미국 폭격기의 공습으로 중공업이 마비상태로 되자 우리나라에 신형기의 제작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였다가 종전을 보게 되어 좋은 기계는 산산이 없어지고 말았다.

해방 후 우리의 주어진 항공계의 여건은 이렇듯 황량했다.

3. 공수(空手)로 해방을 맞은 한국 항공 과학

대학에는 연구기관 하나 없고 또 고등교육 기관에서 항공학을 전공 한 사람은 2, 3명에 불과했다. 우선 대학 교육 과정에 항공학 전공을 만들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항공인들은 항공협회를 조직하였다. 미국 군정하에서는 비행은 불가능 상태에 놓였으나 독립을 보자 젊은이들은 현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를 조직하여 대한 하늘에 우리들 손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들이 폭음소리도 드높이 날기 시작했다.

민간항공 수송도 독립이 되자 경비행기를 도입하여 우선 국내선을 운항하였다. 이런 틈을 타서 외국국제항공회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바빴다. 독립 국가인데도 김포공항은 한미협정 하에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였다 이리하여 황금 노선 서울—동경 간은 외국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항공사업은 날이 갈수록 비참한 운명으로 들어갔다.

공군이 독립한 후 우리들은 기관총 하나 없는 소위 T-6건국호 10대를 캐나다로부터 도입하여 훈련을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6·25 사변이 날 줄이야 누가 알았던가?

4. 6 · 25 이후

6·25 전란을 통하여 현대전에 있어서 공중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은 전란을 전후한 거국적 열성으로 오늘의 대 공군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전부 외국산 비행기만 날고 있다. 물론 비행기란 모든 과학 기술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 아직도 기초 공업이 미발달 상태이고 중공업은 말할 수 없이 뒤떨어져 있다. 이런 나라에서 항공과학기술을 논하는 것은 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들 주위에는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외국산 비행기를 수십 년 후에까지 타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일국의 항공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조일석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 공과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학 연구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일한 민간 기관이다.

연구실은 전란 중 많은 시설과 교육 자료를 분실, 파괴당했지만 미국 정부의 기술 교육원조로 연구에는 충분한 시설과 인적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원조당국과의 의견차이도 많았으나 끝내 우리들의 요청대로 항공학의 기초연구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고시속 200마일의 저속풍동(低速風洞, 바람굴)

이 풍동은 미국의 저명한 공과대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준형에 가까운 것이다. 특정부의 크기는 1.5x1.3x2.5m로서 비행기 모형을 특정부에 넣어서 항공 역학적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

이 풍동은 설계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한국의 항공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2) 초음속 풍동
음속의 3배까지 낼 수 있는 풍동으로서 그 성능이 우수하다. 음속 이상의 비행물체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3)극초음속 충격관
이것은 초음속 풍동과 달라 순간적으로 음속의 수배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외에도 구조실험을 비롯하여 발동기 실험 등 항공학의 기초연구에 사용될 시설이 있다.

5. 대학과 군의 협조연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항공과학과 기술은 대학의 연구기관과 군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미국 비행기와 그 부속품 및 모든 장비로써 현대화된 대 공군이지만 신생 국가의 공군으로서 짧은 시일에 비하여 많은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바 있지만 항공과학 자체에 대한 연구에는 아직 많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항공학의 연구와 조사가 당장의 전투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차의 전투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관심을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기의 생산 공장 없이 미국의 비행기만 100년 띄우고 있어 봐야 그 비행기가 낡아빠진 후에는 비행기도 없는 공군이 될 것이다. 공군이 비행기를 제작하는 곳은 아니고 비행기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항공과학과 기술의 연구와 발전에는 시간과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논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당장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는 군과 대학 그리고 제작회사 간의 연구
의 노력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혹자는 군에서 비행기도 만들고 연수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군인이란 국방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므로 연구와 제작은 민간에서 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기관은 항상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학리를 연구하고 특히 초속도로 발전하는 항공 과학은 쉴 사이 없으므로 손실을 놓치지 않고 외국의 연구 문헌을 도입하고 또 그것의 분석조사에 노력하여 국가의 과학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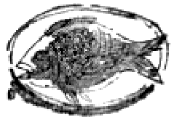
6. 선진국가의 항공과학기술 진흥은?
먼저 미국을 예를 들자. 국립항공우주국 (NASA)이 대통령 직속으로서 1930년대부터 항공자문위원회(NACA)라는 이름으로서 수 개소에 연구기관을 가지고 미국항공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탓으로 지금의 미국항공과학 기술이 세계에서도 우수하게끔 되었다. 그리고 대학에는 항공학과를 설치하고 거기에는 부속연구소를 가지면서 NASA와 군 또는 민간 항공기회사의 연구에 종사하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의 분주하다.
영국도 왕립 항공청(RAE)을 조직하여 연구와 조사에는 미국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논문과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영국의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을 내고있는 원인이다.
다음에는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
먼저 총리 직할의 과학 청에 항공기술연구소(항기연)을 두어서 신흥 일본의 항공과학과 항공공업의 재건에 분투노력 할 뿐더러 우주시대에 항공우주과학의 연구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장차 의 우주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7. 결론
신생 국가에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다. 경제적으로 후진된 한국에서 항공과학은 사실 원자력 연구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우주 시대는 바야흐로 우리들 눈앞에 도달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항공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군관민이 합력하여 항공우주과학의 발전을 위해 분발할 때가 온 것이다.

연구발표

제대군인(除隊軍人)과 농촌개발(農村開發)

공군대령(空軍大領)
한형대(韓炯大)



서언
5·16혁명 후 혁명 정부에서는 자주적인 경제체제를 갖추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국가적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욕적인 국가재건의 대업에 그 일보(一步)를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이 계획의 전모를 보면
첫째로 전력 석탄 등 공업의 원동력이 되는 Energy 자원의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둘째로 농업부문의 중점적인 개발목표를 두어 생산력의 향상과 소득증진을 꾀하고,
셋째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기간산업(基幹産業)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큰 비중을 두는 한편,
넷째로 국토 보전을 위한 국도건설의 계속추진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출증대 그리고 저 생산력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증진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획상에서 차지하는 농업개발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에서 본 투자규모를 보면 총 투자액 3조 2천억 원 중 농림 부문이 4,947억 원으로 15.4% 가 할당되어 있고, 그 개발되는 대상을 보면 ①농지의 확장과 수리사업 ② 치수사업 ③ 축산업 ④ 잠업 ⑤ 조림(造林)과 사방(砂防)사업 ⑥ 농업자재 ⑦ 종자갱신사업 ⑧ 농사시험 및 농사지도 ⑨ 농협육성과 지역사회 개발사업 ⑩특수작물 등
실로 광범한 제사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한 말로 해서 각 산업 간의 균형적 성장을 이룩하고 국가경제의 공업화에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종합적 경제계획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의욕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①고리대의 정리 ② 영농자금의 방출 ③ 경영의 다각화 ④ 유축농가 조성 ⑤ 농산물 가격 유지 ⑥ 농촌 계몽 사업의 일원화 등등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농촌 생활의 향상 농업기술의 개량 등을 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차적인 정부 시책은 종래의 일시 미봉적인 농정과는 그 기본이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개발계획과 농업 시책은 혁명 후 많은 농민의 의욕을 자극하고 도처에 농협이 육성되고 자립적 농업개발사업이 농민의 손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 있어서의 농업개발 문제는 원체 해가 묵고 고질화된 까닭에 단시일 내에 그 병폐를 근치(根治)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정부의 계획이나 시책을 소화할 수 있는 농촌자체의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것인데 농업의 불균형에서 오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불균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암적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자본제적 소농 경제양식에 대한 서구 선진적 도시 상공업의 고도적 자본체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제거하는데 정부는 과감하고 계속적인 시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민 스스로가 이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알고 진실로 보람을 느끼면서 계획 수행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 윤리에 기초를 둔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스스로가 일으켜 치산, 치수, 사방, 수리, 개간, 생산력 증강, 경영의 다각화, 기술의 개선, 자발적인 민주주의의 육성 등 그야말로 자립자조적(自立自助的)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비로소 이 나라의 공업 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공업화의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병폐는 이조 봉건사회 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장기간의 지배층 급에 의한 무자비한 착취와 횡포적인 농민 지배수단은 전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무력화하고 가부장적 윤리관은 자발적인 창의력을 영원히 말살한 것 같아서 농민의 지배층 급에 대한 감정은 아직도 관념적인 운명 추종주의에 사로잡히게 하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도 6·25 동란에 대하여 60만 대군이 육성되고 현대식 무장에 의한 서구식 훈련을 받은 많은 농촌 출신 병사가 제대가 되어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해공군에서 제대된 장병은 약 150만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 중 약 70%가 농촌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약 100만의 제대농군이 농업개발의 역군으로서 나선다고 생각하면 농민의 각성과 자립자주정신의 육성도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저는 농촌개발과 제대군인의 역할을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1.농촌의 지위

먼저 우리나라의 농촌의 주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농촌이 점하는 중요성을 개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로 보아 그 식량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일 3식에 상식(常食)하는 백미는 물론 모든 곡류, 육류, 야채, 과실, 유류, 조미료 등 그 대부분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에 의하여 사육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도시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하고 이에 의하여 고급 자양분을 섭취하는데 대부분의 가축도 농산식물에 의하여 기름진 육류, 유류, 난류 등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은 상공업의 원료의 제공처인 것입니다. 광목, 비단, 모직, 유류 등의 기초산업은 물론이요, 다른 공업용 원료가 농촌에서 생산 제공되는데 이 생산품의 소비처가 또 농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가 총 인구의 70% 를 점하고 있고 농촌의 구매력은 우리나라 구매력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농공이 균형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은 즉 공업이 발전되려면 농촌이 그 소비대상이 되지 않으면 공업발전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부흥 여하는 공업 발전에 key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종전 후 일본의 경공업 발전상을 보더라도 농촌이 부흥되어야 우리나라 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도시 노동 인구의 제공처가 또 농촌인 것입니다. 총인구의 70% 를 가지고 있는 농촌은 그 경작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 당 5단보

이하가 그 60% 이상이고 그것도 원시적인 경작 법에 의하여 잠재실업인구가 막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나라에 제2차, 3차 산업의 바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도로 기계화된 현대적 시설을 당장 갖추지 않아도 다방면의 공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농촌은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산업기구라는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공업 국가가 산업 혁명기에 있어서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농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본이나 Denmark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천연 조건하에서 농촌이 현대화하고 과학화하였다는 현실적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 농촌의 현대화는 우리나라 산업혁명의 선구자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농본국입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신선하고 소박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고 우리나라의 농촌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좌우하는 주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제대군인과 농촌

국권 이래 육해공군은 대군을 육성하고 150만이란 제대 장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 장정이 산화(散華)하였고 또 불구의 몸이 되었으며 살아남은 제대군인도 조국 수호의 선구자이며 애국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시책은 이들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몰락시켰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본의 아닌 구걸의 부랑배와 같은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100만을 헤아리는 농촌 출신 장병들은 농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도시의 호화상에 현혹되고 화폐 경제 맞는 도시생활 지상을 국가학은 나머지 점점 병폐하여 가는 농촌을 등지고 이농하면 위축되어 사회의 낙오자로 몰락하여 버린 것입니다.

과거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제대 상이군인에 의한 민폐나 양민에 끼친 악영향은 이러한 장정들의 정력 처리 처를 마련하여 주지 못한 정부나 사회의 몰지각한 시책의 반응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들 젊은 장정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선도하여 농촌개발의 선구자적 역할을 맡긴다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중세기적 봉건사회인 농촌을 떠나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엄정한 군기하에 단체 생활에 경험을 체득하고 현대적인 경영 행정을 배웠고 불요불굴의 군인 정신을 체득한 젊은 투사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진국에 유학을 하여 우리나라 사회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귀중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 농촌 출신 장정은 도시생활의 단점과 농촌 생활의 장점을 몸소 경험하였을 것이고 우리나라 농촌에 개발방법에 대한 포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 제도의 후진성을 누구보다도 개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혁명정부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원호처(援護處)를 설치하고 제대군인의 직업 보도(輔導), 상이군인(傷痍軍人)과 유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특히 귀농 희망자를 위하여 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청구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또 농촌개발을 위하여 지도계몽을 하려면 현재의 국가 행정이나 기술지도체계만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인난하며 농촌의 중심인물의 선구적인 지도활동이 절실히 요망되고 국가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가 자립적 여건을 조성할 선구적인 역군으로서 농촌 출신 제대군인을 지목하고 이들의 지도책을 세우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군인의 영농교육이고 각 예비사단에서는 FY-61에 61,929명 FY-62에 320,0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세밀한 계획과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만의 제대군인이 영농의 진가를 인식하고 귀농함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인도하는데 성공한다면 정부가 바라는 자립 자주적인 농촌개발의 여건조성은 자못 희망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3.영농교육과 제대군인

군대 영농교육은 1961년 9월 제2군 사령관의 착안으로 "승공은 경제 부흥으로부터"라는 신념하에 예비군소집 훈련의 과목으로서 채택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전군의 제대 장병에게도 농사 지도능력을 부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후 각 군에서 영농교육을 전 제대 장병에게 실시하게 하고 제대 귀향을 앞둔 이들에게 향토재건을 위한 신념을 북돋아 주고 개량농법으로서 농촌의 생활 향상방법을 전시하고 농어촌개발의 역군이 될 지도적 소양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출신을 막론하고 획일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케 하여 한국의 젊은 청년에게 농업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고취하여 범국민적으로 우리나라 농촌 재건 운동에 참여케 하자는데 그 부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농교육 실태를 돌아본 미국을 위시한 여러 외국 사절들은 "장기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교육이 한국군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이야말로 한국경제 부흥에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본다면 예비사단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였던 사병들이 며칠 안 되어 다시 향토사단을 방문하고 특별지도를 요청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훌륭한 교육을 군대에서 받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하며 재래식 농사법에 대하여 후회를 하는 동시에 귀향 후 반드시 이 교육을 기초로 하여 농사 개량을 해 보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고 이 교육시간의 연장을 바라는 사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내 영농교육은 앞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실시될 것으로 믿는바 이 교육은 국가적 견지에서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전국 청년에게 농촌개발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 주는 바로서 대단히 유익한 교육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

5·16혁명 후 정부는 중농정책을 시정목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립경제 수립의 일환으로서 농촌재건에 막대한 투자와 갖가지 지원시책으로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 자체가 이 정부 시책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스스로 자립자조하려는 농촌의 재건의욕이 구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의 대부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시 상공업의 원료를 생산하고 공업 생산물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주축이고 70% 의 인구분포를 가진 농촌은 상공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Pool의 위치에 있고 농촌진흥과 농사개량은 어떠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농촌부흥 여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척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래 농촌 진흥책이 부진하였고 150만을 헤아리는 제대군인에 대한 냉대는 농촌 병폐에 박차를 가하였고 도시생활을 선망하여 대부분의 제대 군인은 이농을 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혁명 정부에서는 150만 제대군인이야말로 농촌 재건의 새 역군이 되리라는 착안 하에 대대적인 군내 예비군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재건의 정신을 고취하고 농사개량과 농촌생활의 향상방법을 교육하고 전국 청년에게 농업의 본질과 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농촌개발의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건국이 일천(日淺)함에도 불구하고 멸공전선에서 또 민주주의 수호전선에서 전 국민의 선봉에 서서 그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재건을 위하여 또 국군은 그 선봉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에 제대군인의 결속과 분발을 바라고 있습니다. 희망과 투지를 안고 귀농하여 농촌개발의 역군이 되려는 여러 제대군인에게 끝없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북한(北韓) 애국(愛國) 동포(同胞)는 나를 살렸다 ①

다음에 소개하는 반공 수기는 지난번 공보부에서 설치한 '반공수기' 현상 모집에 응모하여 3등으로 입선한 바 있는 23정보대 이준수 문관이 800매에 달하는 장편 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새로 집필한 것이다. 이 작품은 지금 몇 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단계에 있다.

문관 이준수
<공군 제23정보대 교육대>

1. 공로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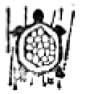
나와 헌국 군이 작전 임무 수행에 관한 최종의 지시를 받고 ◯◯◯대장실 문을 나선 것이 1951년에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6일이었다. 그때 내 나이는 21세 헌국 군의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위인 22세였다.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지만 이번의 작전임무 수행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껴가며 한편 애처러웁게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불길한 청춘의 운명을 점쳐 보아야 했다.

비행기에 오른 것이 밤 00시 0분 마지막으로 나의 손을 굳게 쥔 000 대장의 손이 떨어지면서 거대한 동체는 요란하게 시동이 걸렸다. 잠시 후에 나의 몸뚱이는 고도 3000ft로 북한의 차가운 겨울 상공을 향하여 날고 있었다.

헌국 군과 나는 우리도 모르게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의미 없는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투하할 만반의 준비를 하기에 바빴다.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날 때 열어놓은 문으로 싸늘한 겨울 공기가 사정없이 몰아쳐 들어온다. 기체 안은 마치 어느 공동묘지의 겨울밤같이 싸늘하고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침내 나를 실은 거대한 항공기를 박차고 뛰어내릴 때는 가까워 온다. 옆에 앉은 통신사는 우리들을 격려하듯이 들리지 않을 말을 무어라 중얼거린다. 통신사는 말하고 나서 할 수 없다는 듯이 헌국 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웃으면서 그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손을 들어 흔들며 신호를 보냈다. 나는 잠시 후에 그에게 달려가서 서로 손을 잡고 흔들며 웃음을 나누었다.

집필에 앞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의 수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죽음에서 구해준 북한 애국 동포들의 생사를 초월한 반공투쟁이 없었던들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낙하산 게릴라 생활 3년을 통하여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당시의 북한 애국 동포와 군번 없는 서해지구 유격군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쯤 차디찬 붉은 땅 한 모퉁이에 묵묵히 하늘만이 보이는 자유 대한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기약 없는 작별을 고한지 벌써 10년 이렇게 펜을 들고 보니 그때 같이 투쟁하던 동포와 동지들이 그리워집니다.

언제나 자유와 통일만을 기다리는 북한 애국 동포들에게 통일의 희소식을 전해 줄 수 있을는지……이 조그마한 수기가 만의 일이라도 당시의 반공 애국 동포들의 투쟁사와 잔인무도한 공산도배의 비인간적 행동을 알려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육체에 엄습하는 공포감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들리지 않고 통하지 않은 말일 망정, 우리들이 운이 좋으면 살아생전에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오, 하며 그의 손을 잡은 채로 잠시 눈을 감았다.

신자도 아닌 내가 믿음 없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다. 나는 크게 뚫린 구멍으로 나가야만 할 문 앞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조용한 밤 불빛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있다.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보니 불을 대신한 별들만이 깜빡거리고 있다. 다시 문 안으로 고개를 돌리려 할 때 마침 구형의 선고를 내리는 듯한 벨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낙하 4분 전 신호인 적색 신호가 좌측문 우측 벽에 빨갛게 비쳤다. 나는 이때 전신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올 것은 기어이 오고야 마는구나, 하지만 적색 신호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때다. 임무 수행 중 공복을 채우기 위하여 130파운드의 무기를 가진 짐을 정비사의 힘을 빌려 예비 낙하산 대신 그 고리에 걸었다. 짐 안에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모든 장비가 들어있다. 벨소리를 듣고 인솔 장교가 나와 우리에게 악수를 청했다. 나는 있는 힘을 가하여 꽉 쥐어주며 그를 똑똑히 쳐다보았다. 악수하고 나서 그는 뒤로 물러서며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펴들고 우리를 환송했다. 나는 마치 권투선수 모양 두 손을 머리에 접고 그를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조종실로 사라진 후 나는 폭풍이 들이닥치는 듯한 강풍을 뚫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신호등에는 아직도 적색 신호, 우리가 이 허공을 내려갈 시간은 몇 분이나 남았을까? 사정없이 들이닥치는 찬바람을 맞으며 계속 움직여 아래를 내려다봐야만 했다. 우리는 마치 폭풍에 집 잃은 사람 모양 문 앞에 일어서려고 해도 가슴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내려 달린 백 때문에 문 앞인 허공으로 밖엔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뒤를 돌아보니 역시 헌국 군도 똑같은 자세로 나의 뒤에 앉아있다. 이때 통신사는 우리를 향하여 귀에다 리시버를 댄 채로 한 손을 들어 두 손가락을 펴서 우리들에게 보이며 중얼거린다. 아마도 우리에게 뛰어내릴 시간이 2분 아니면 2초라는 뜻인가 보다. 알았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 나의 눈을 신호등 앞으로 돌려주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탓인가. 아무의 탓은 아니다. 오직 하나 공산주의뿐인 것이다.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이때 Jump Master(강하 지휘관)가 나타났다.

공사를 구별하고 인정과 사정을 버려야 작전임무를 원만히 수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군대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 모양이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기만 하던 Jump Master(물론 외국인이지만)의 눈은 빛나고 몸은 차가워 보였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을 위해 기도나 하듯이 긴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았다 뜬다. 나는 Jump Master를 보며, "우리가 운이 좋으면 다시 만나겠지요. 하지만, 가령 운이 우리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고향땅 위에 시체를 묻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말했다 이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붉은 신호가 파란 빛으로 바꾸어지며 나의 귓전을 두드리는 Jump Master의 "Get Ready!"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나는 바른 발을 들어 비행기 문전을 힘있게 밟으며 마치 육박전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소리와 같이 야-하며 크게 소리를 지른 다음 Go하며 디디고 선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나의 몸이 허공에 떠있을 때 어둠속을 해친 나의 눈에 뒤를 따라 뛰어내린 헌국 군의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이 보였다. 또 우리들의 뒤를 따라 Jump Master의 힘에 밀려 나온 무기와 보급품을 단 화물 낙하산이 멋지게 펴져 있었다. 낙하산이 펴지기 전에는 마치 태풍에 전후좌우의 방향을 알지 못할 만큼 소란스러웠다가 개산(開傘)되는 충격과 동시에 이 세상이 잠잠해진 것 같다. 물론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으레 잔잔해 진다지만 지금과

같이 조용할 줄이야, 폭풍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나에게 엄습한 추위는 살을 에는 듯한 냉랭함을 느꼈다.

낙하산이 내려가는지 땅덩이가 올라오는지 분별할 수 없이 급속히 아래로부터 떠오르는 지형을 분별하려고 했으나 그저 허연 눈벌판이 보일 뿐이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착륙준비를 했다. 눈은 굳게 얼어 있었다.

나는 몸을 철판에 내동댕이치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이때에야 살았구나 생각하며 몸을 다소 떨면서 일어났다. 지나간 몇 분 동안의 일이야말로 나에게 무서운 폭풍을 겪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은 으레 개는 법이라 했지만 심한 공포 끝에 안전하게 착륙했으니 이것은 마치 며칠을 쑤시다가 곪은 종기가 터진 것처럼 시원하였다. 이곳은 1년 만에 밟아보는 고향 땅이다.

나는 긴 호흡을 하고 난 뒤 위험을 미리 짐작하는 동물처럼 땅에다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나는 가까이에 내렸을 헌국 군을 찾아 조심히 발을 옮겨 놓으며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놓여 있는 위험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놈들의 손에 잡히지만 한다면 우리는 순간적인 죽음이라는 은혜를 안 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두 사람만큼 놈들이 바라고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이다. 놈들에게 체포되면 가진 고문을 다하여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는 최초로 공로(空路) 고향에 낙하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놈들에게 체포당하면 아군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다시 한번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조그마한 알약에 손을 대어보고 안심했다.

이것은 언제나 나만이 비밀리에 간직해 온 것이다.

나는 언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후 이것을 중요시 해왔으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간직한 좋은 무기의 일종인 것이다. 캡슐에 싸인 이 독약을 삼키기만 하면 불과 몇 분 내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저세상으로 힘 안 들이고 이별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했다. 그리고 앞가슴에 품은 총알 한 개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헌국 군을 찾아 조심조심 발을 미끄러뜨렸다.

언 눈을 밟으니 뿌드득 소리가 난다. 지금 이 소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들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헌국 군이 들어야 한다. 온 천지는 사람도 없는 듯하고 아까까지 보이던 별도 간 곳이 없다. 오직 나무와 나만이 마주 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잡초로 된 비탈길을 모르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의 통행이 없는 산중이기 때문에 여름에 무성했던 풀들이 그대로 말라 원시림과 다름없었다.

2. 최악의 사고

바로 눈앞에 높다란 잎 떨어진 나무 위에서 무엇이 펄럭거리며 뜻하지 않은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다. 정신이 아찔했다. 놈들이 이곳……우리가 발견되었단 말인가? 방정맞은 생각이 먼저 가슴을 스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사격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하고 눈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걸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 낙하산이었다. 다시 일어나 사방을 경계하며 그곳으로 가는 도중 어둠 속 어디선가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헌국 군이 아닌가, 이 일을 어찌하랴. 앞이 캄캄해지며 목소리는 굳어져 말이 나오지 않아 육체가 먼저 움직여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섰다.

그는 아직 낙하산 장비를 해장하지도 않고 지상에서 쏟아져 신음하고 있었다.

"헌국아,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를 심하게 다쳤니"

그는 말이 없다. 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은 것 같다. 나는 떨리는 몸을 겨우 세우고 헌국 군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운이 나쁘면 골절했을지도 모른다.

"낙하산 강하 시 최악의 사고인 착륙할 때의 부상이 발생하고야 만 모양이구나" 나의 머릿속에는 걱정이 겹치고 무엇을 그에게 먼저 해줄 것인가 순서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곧 나는 헌국 군의 낙하산 장비를 해장시키며, "야 걸을 수 있니" 그는 또 말이 없다.

헌국은 아무 말 않고 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으나 곧 주저앉아버렸다.

나는 바로 근처에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은신처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조금 전에 내려온 하늘을 쳐다보았다. 비행기 안에서 보이던 별들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별들이 반짝이던 곳에는 어느새 짓궂은 먹구름이 차서 지금 당장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로 변했다.

숨을 장소를 찾은 다음에 눈이 내려 준다면 참으로 멋진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강하지점의 흔적이나 발자국도 완전히 눈에 덮일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은신처를 발견하기 전에 눈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신자 아닌 내가 또 한 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뜨니 무엇인지 나의 머리에서 요동을 한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 나는 잠시 몸을 그 자리에 세우고 출발 전 생각을 했다. 우리가 출발 전에 들은 정황설명에 의하면 틀림없는 000지점, 이 지점은 산림이 많은 산악으로 손쉽게

은신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곳이 바로 그 곳이라면 산림이 많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쉽게 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어둠 속일망정 우리가 내린 지역이 산악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다. 우리 주위에는 헌국 군의 낙하산이 달려있는 뼈만 남은 높다란 나무 한 개를 제외하고는 자그마한 소나무와 잡초만이 차 있었다. 사방을 돌아보니 한 곳에 나무가 많고 옆에는 두꺼비같이 넙적한 바위가 남향을 하고 엎드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곳에 올라가 보니 소나무와 감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섰으며 사람의 흔적도 없고 밑에는 언제부터 쌓였는지 눈을 밟으니 발이 쑥 빠져 낙엽 속으로 들어갔다.

낙엽 위의 얼음을 헤쳐 보금자리를 만들고 헌국 군이 누워서 신음하는 곳으로 갔다. 나는 헌국 군을 어깨에 메다시피 하면서 얼음 눈 위를 걸어 지정한 장소에 은신시키고 나니 지구는 벌써 그 자리를 찾았는지 닭이 활개를 칠 때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귓전이 아프도록 들은 민속한 동작으로 낙하산을 가져다 헌국 군을 덮어주고 식량을 전부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서 한국군의 옆에 앉으니 무엇인가 허전하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에 "야 헌국아 무엇 찾지 못한 것 있을 것 같은데 아, 참 화물 낙하산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정말" 나는 다시 일어나 화물 낙하산의 물건을 여기저기 여러 곳에 감추어 놓고 총만을 가지고 올라간다. 한 자루는 어깨에 한 자루는 언제나 유사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데 추위는 매서운 추위였다. 이곳에서는 첫 겨울이라 했지만, 걸어 올라가면 허덕허덕 토하는 입김은 어둠 속에서도 허옇게 똑똑히 보인다. 나는 위험을 느끼고 국방색 손수건을 꺼내어 입에다 대고 호흡을 하며 걸었다.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낙하산병이 가장 위험한 되는 착륙 후에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나에게 두 자루의 총과 다량의 탄약을 가지고 있다 해도 현재의 나에게는 무방비에 가까웠다. 무장이 견고한 고슴도치가 백주(白晝)에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에 잘 못 들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착륙지를 완전히 정리하고 헌국 군이 누워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길 때 눈앞에 있는 무엇인지 소리 없이 하나둘 펄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고 반기던 눈이 아닌가, 동지섣달 꽃을 보고 반긴다 했지만, 제철의 눈도 눈 속의 꽃을 본 것보다 더욱 반가웠다. 나를 죽음에서 구해준 것같이 반가운 눈을 맞으며 군이 있는 곳까지 다다랐다.

헌국 군은 다리를 들고 아픔을 이기지 못 하는 괴로운 자세로 누워 있었다. 나는 조금의 주 추위라도 방지할 수 있게 있는 낙하산 전부를 헌국 군에게 덮어두고 위에는 소나무를 꺾어다 씌워 주었다. 먼 곳에서 보더라도 알 수 없게 위장을 한 셈이다.

그리고 나서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라니까 밤은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 조용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는 참을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의 눈꺼풀을 내려 누르고 있다. 누가 언제 왜, 사람을 자게 했는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도 잠은(조금) 용서 없이 나의 육체에 침노한다. 가시 방석에 앉아서도 잠은 온다. 잠은 온 인류를 전부 죽음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잠과 밤,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생사도 없다. "에라" 나는 낙엽 속에 몸을 파묻고 누워버렸다. 어느 때인지도 모른다. 아직 잠이 덜 깬 몽롱한 나의 머리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구별할 수 없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뿌드득뿌드득 이 소리는 틀림없이 어른이 눈 위를 디디는 발자국 소리가 틀림없다. 깜짝 놀라 눈을 떴으나 세상 물체는 아직 희미하게 보였다. 눈을 뜬 채로 사방을 경계하는 순간 눈을 잡듯 세우는 곳이 있다. 이것을 본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에 부딪혀 급히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뛰어가 끼어 앉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벌써 핏기가 가신 것 같았다. (계속)

영어도 불어도 모르는 왕

에드워드 1세(잉글랜드 왕, 1239~1307)는 웨일즈 지방을 정략하여 잉글랜드에 합병하였다. 웨일즈 인들은 그들의 왕이 피살되었으므로 복종은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웨일즈에서 출생하여 웨일즈 인들이 모르는 영어나 불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격이 원만하여 탈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람은 실제로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285년, 에드워드 1세는 왕비를 동반하고 웨일즈에 입국하였다. 왕비는 그곳 궁성에서 왕자를 낳았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웨일즈 인의 유모를 두었다.

며칠 후 왕은 젖먹이 왕자를 안고 밖으로 나와 웨일즈 국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 젖먹이라면 그대들의 요구에 알맞을 것이다. 이 젖먹이는 웨일즈에서 났으며 영어도 불어도 모른다. 또 행위의 있어서도 탈 잡을 것이 없다. 어떠냐?"

귀족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로부터 '프린스오브웨일스'라는 명칭이 영국의 대대의 왕의 장남에 붙기로 했다.

<시사(時事)>

위기(危機)에 처(處)한 공산주의(共産主義)

U. S. News & world report지에서

최근 공산주의자들은 실패를 만회하여 보려고 그들의 경제제도를 재편성했다.

오늘날까지 공산두목들이 약속하여 온 눈부신 번영은 간데없고 전 공산국는 심각한 불경기에 허덕인다.

소련과 동유럽은 위기에 봉착했으며 중공과 쿠바는 갈팡질팡한다.

이제 흐루쇼프는 공산주의 산업에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하라 외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서방의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유! 그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혼합하려는 것이나, 마르크스 이론의 포기 없이는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돌아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적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으며 민생은 하나같이 도탄에 빠져 있다.

소련은 그들의 사회주의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재편성에 또다시 착수하고 있다. 소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에서는 임금이 굉장히 삭감되었다. 민중은 반항적이다. 서방의 기준으로 볼 때 동유럽 전체가 경제적으로 불경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공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쿠바도 중공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얼마 전까지 공산지역에서 소리 높이 외쳐지던 그들의 예고와는 터무니 없이 거리가 먼 것이다.

지난날의 소련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기업 제도 하의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적 불경기에 직면하게 되고 실업은 광범위하게 확대되며 국가는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며, 반면 사회주의 제도 하의 공산주의 국가는 급속히 성장하여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현실은 그들의 지난날의 주장과 정반대인 것이다. 오늘날 흐루쇼프 자신까지도 소련 산업의 고위층 지배자들에게 '자본주의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난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방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서독의 경제전문가 및 관사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 제도가 사기업 제도에 방불하는 능률을 발휘하도록 될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소련의 경제를 실린더가 몇 개 빠진 고성능 자동차에 비교하고 있다. 자동차는 실린더가 몇 개 빠져도 여전히 상당한 동력을 가질 것이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치게 동력을 잃게 되면 자동차의 운전수는 내려서 스파크 플러그를 몇 개 바꿔 끼우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운전수는 언제나 낡은 스파크 플러그만을 사용하고 자동차는 곧 또다시 고장 나게 되는 것이다. 흐루쇼프는 그들의 경제 제도의 뚜렷한 결합을 시정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러나 흐루쇼프가 기도하는 모든 시정을 위한 노력은 칼 마르크스가 제창한 법칙과 일치하여야 하며

현대공산주의에 합치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서독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제도의 결함은 자유시장이 없는 것이다. 현대적인 산업이나 농업 제도에 있어서, 필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유시장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서방에서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소련에서는 계획입안자들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흐루쇼프는 이러한 경제적 난문제를 파악하고 '자본주의적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지배자들은 생산과 공급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생산과 공급을 시장이 결정하게 되면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유사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흐루쇼프는 그들의 산업계에 이익의 원리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은 사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돌아가는 것이다.

흐루쇼프도 소련 산업계의 막대한 낭비와 집단농장의 저 능률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적 원리를 사용하여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서독 사람들은 그들 공산당의 정예분자들이 세계 공산혁명 담당자로서 정치 경제생활을 절대적으로 지배코자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흐루쇼프는 공산당의 기구들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경제 분야에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젊은 층을 배치하고 있다. 지배인들은 계획입안자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자원의 사용해 관한 더욱 많은 자유재량이 인정될 것이다. 계획상의 결함은 인위적인 가격제도를 뜯어고침으로써 보충될 것이다. 막대한 자원의 낭비의 원인이 된 부정한 가격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없는 새로운 가격 제도는 여전히 전단적(專斷的)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독 사람들은 그들의 이러한 가격 제도가 얼마 안 가서 무용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소련의 경제 계획입안자들은 석탄 및 광산물의 가격은 40% 올리고 휘발유는 80% 를 올리도록 지시되었다. 오일의 가격은 7% , 그리고 전기는 15% 를 내리도록 되었다.

또한 흐루쇼프는 이제까지 국력의 바탕이라고 여겨왔던 강철의 생산이 만능은 아니라고 갑작스럽게 결정했다. 강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소련이 깨닫기까지 17년이 걸렸다고 독일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철은 자체의 보다 경제적인 사용 및 강철에 대등하는 물질의 발전으로 산업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경감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흐루쇼프가 소련의 강철 광(狂)을 비웃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제도의 맹점을 폭로하는 셈인 것이다.

결과: 무장형무소. 서독 사람들은 소련이 노동대중을 착취하기 위하여 오늘날 가장 능률적인 형무소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소련은 또한 상당한 현대적 무기 조직을 만들어서 자유 진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보장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

사회주의 국가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관찰한 미국의 전문가들도 서독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견해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소련의 현 실정을 관찰하건데 무엇인가 근본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앙계획입안자'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하는 점까지 결정하려는 데서 부터 생기는 것이다. 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서 적자, 계획착오, 그리고 생산시연 등의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 전문가들은 보다 나은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상당히 고심했다. 그들은 마르크스나 레닌의 '이론'이 별로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착상을 했다. 즉 자본주의자들을 흉내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흐루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사용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익한 방법을 우리라고 쓰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시장이 소련에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소련은 공장에 대한 쿼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장지배인의 보너스는 쿼터의 달성 여부에 달린 것이다. 공장에서는 일정한 수량의 자동차, TV, 구두 그리고 일정한 양의 강철 시멘트, 기타의 물자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쿼터를 달성치 못하면 보너스 문제가 아니라 직장까지도 잃게 되므로 지배인은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공장에서 계획입안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원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그들은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구걸하고 차용하며 뇌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훔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장차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귀중한 물자를 저장하려고 한다. 막대한 양을 저장함으로써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결핍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장지배인의 성적이 얼마나 한 양을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들이 품질을 낮추고 나쁜 원료를 사용하고 규격보다 적게 만들더라도 쿼터를 달성하기만 하면 그들은 보너스를 받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서 생산품의 질이 형편없어지는 것이다.

'고상한 생각.' 오늘날 소련 경제전문가들을 간의 새로운 총아는 '고상한 생각'의 제창자인 G. V. 리버만 교수인 것이다. 그의 '고상한 생각'이란 이런 것이다. 즉 공장 지바인들이 그들의 공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며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 요구되는 새로운 기계를 선택하도록 하다는 것이다. 보너스는 '이익표'에 따라서 줘야 한다고 리버만 교수는 말한다.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배인과 공장 종업원의 봉급과 이익이 증가되는 것이다.

문제는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흐루쇼프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서 공업 및 농업의 중앙 통제가 강화되고 공산당의 역할은 보다 강화하고 철저하게 되었다.

비엔나

비엔나의 경제 전문가들은 흐루쇼프가 오늘날 공산주의 실패와 서방 자본주의의 번영의 날카로운 대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흐루쇼프는 소련의 지배 기구를 재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전문가들은 서방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주택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물자가 풍부하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수련에는 인구가 2억 2천만이나 되건만 포장된 도로는 17만 리이 불과하고 철도도 7만 9천리에 불과한 것이다. 전 노동력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건만 여전히 농산물은 공급이 부족하다. 서방에서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이 문제인 것이다.

흐루쇼프는 자신도 막대한 낭비, 중복 그리고 대량생산 조직을 저해하는 노력의 분산은 공산주의적 산업 구조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쿼터와 품질. 오스트리아의 전문가들도 소독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처럼 소련공장의 지배자들은 유익한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며 오히려 품질에는 상관없이 쿼터를 달성하도록 강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62년 전반기 동안에 6천백만 불에 상당하는 물자 및 현금이 착복되었다. 7만 톤에 달하는 양곡이 도난당했다.

최근에는 국영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판매하는 조직적인 착복자(着服者) 150명이 체포되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전문가들은 소련 경제의 이러한 결함들이 사기업 제도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다고 말하며 또한 그러나 흐루쇼프로서는 사기업 제도를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기업 제도를 흉내만 낼 것이며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런던

영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흐루쇼프가 함축성 있게 산업 제도로서의 공산주의는 실패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전문가들은 흐루쇼프의 자인에도 불구하고 소련산업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흐루쇼프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장지배인에게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등의 시정도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어느 영국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디젤기관차 산업공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들어 보기로 하자. 지배인이 강철보다 튜라루민이 낫다고 결정한다. 다른 지배인들도 대부분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계획에 의해서 강철 및 알루미늄의 생산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서는 강철이 과잉이 되고 알루미늄이 부족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제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기본 자재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의 전문가들도 소련이 무기, 미사일, 우주선 및 중공업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비능률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생활수준을 희생시켜야 했던 것이다. 영국의 전문가들은 소련의 경제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가망은 없다고 말한다.

제네바

유럽 경제 위원회의 보고에는 공산진영의 전반적인 생산부족이 나타나 있다. 소비 품목의 공급은 증가했으나 품질이 더 저하되었으며 소련 시민들은 그것을 구매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은 주로 물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진상태이다. 육류나 일상생활품은 공산국에서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부족 되고 있다.

전망……비관적이다. 동 위원회는 소련 및 기타 공산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나 기타 서방 국가의 생활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소련 및 공산권에 있어서 공산주의 제도의 실패는 명백한 것이다.

◇먹기 싫은 약

시인이며 신학자인 존 단(영, 1573-1631)이 위독해지자 명의 시몬 팍스 박사가 내진하여 "우유를 20일간 계속해서 마시면 틀림없이 낫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존 단은 우유를 죽기보다 싫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팍스 박사는 무리해서 10일 간을 먹여내었다. 그러자 존 단은 "나는 우유 보다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제는 먹이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조용히 명목하였다고.

◇죽고난 뒤의 약처방

헨리 18세(1491-1547),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를 적시하여 어느 날 화풀이로 본나라는 승려를 사자로 임명하고 프랑은 궁정을 협창(脅唱)하는 전언을 전하라고 말했다. 본나는 황공하여, 그러나 머리를 긁으면서 말했다.

"폐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프랑스 왕은 저를 살려서는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호소했다.

"그건 걱정 할 것 없네. 만일, 프랑스 왕의 그대를 사형에 처한다면, 나는 영국 내에 있는 프랑스인을 모조리 잡아서 목을 자를 것이니까."

그러자 본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폐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의 프랑스인의 목을 다 잘라도 저의 목에 딱 맞는 목은 없을 것입니다."

◇감자

담배를 미국에서 전래한 월터 롤리(탐험가, 1552-1618)는 감자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헌상하였는데 왕은 기뻐하며, 왕궁의 야채 밭에 가꾸게 했다. 담당자가 푸른 잎을 뜯어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이상했기 때문에 왕은 롤리가 자기를 독살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포령을 내렸다. 깜짝 놀란 롤리는

"포테이토는 잎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흉하지만 뿌리를 잡수어야합니다."라고 설명해서 간신히 사형을 면했다.

◇실언

앙리 3세(프랑스, 1551-1589) 사후, 나바알왕 앙리 4세(1553-1610)는 고왕의 유지에 따라 원래 신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교로 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교도보다도 구교도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다.

어느날 국왕의 옆방에 유숙하게 된 열렬한 신교도 인 시인 도미니에(1551-1630)는 분개한 나머지 불쑥 나오는 말로

"국왕은 배신도(背信徒)다."

하고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지? 나는 아직 잠이 들지 않았어"

하고 국왕이 말했다. 그러자 도미니에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주무십시오 폐하,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1원 더 왔어요"

영하 18도를 오르내리는 세종로 거리에서 신문팔이 소년은 꽁꽁 언 손으로 1원 한 닢을 내게 들려주고 사라졌다.

'아차 아무 답례도 못 했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소년을 찾았을 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장갑 낀 손에 쥐고 있는 1원짜리에서 그 소년의 따사로운 맥박을 느꼈다. 그리고 그 따사로움은 내 몸을 거쳐 얼어붙은 거리마저 녹여주는 상 싶었다.

메마른 세파에서 얻은 조그맣고 귀한 1원짜리 선물, 이것은 63년을 맞으며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이리라.

글·그림 이순재(李舜在)

내가 뵌 세 분

어효선(魚孝善)
〈수필가〉

어린 시절에 마음속으로 존경해 모시던 세 분 어른이 계시니 곧 춘원(春園), 육당(六堂), 위당(爲堂)이시다.

그때 나이 어리어 가까이 뵙지는 못하였지만, 먼 발치기로나마 그 용자를 뵈었다는 것만으로도 못내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터이다.

춘원 이광수(李光洙) 선생을 처음 뵙기는 어느 해 겨울이었다. 국민복에 자켓을 입고 전투모를 쓴 몸집이 꽤 커 보이는 분을 종로 거리에서 맞닥뜨렸다.

"아! 이분이 바로 춘원 선생이시로구나."

사진으로 보던 선생의 얼굴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길을 돌려 선생의 뒤를 따랐다. 선생 댁이 효자동인걸 알고, 일부러 찾아가서 담 밖에서 안을 기웃거린 적이 두어 번 있었던 터라 '이분이 어디로 가나?'하고 따라갔었다.

광화문(세종로)네거리에서 중앙청(총독부)쪽으로 꺾이고, 중앙청 앞에서 왼쪽으로 접어드니 인제는 틀림없다 싶어 그냥 따라갔다.

전에 찾아갔던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선생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선생님!"하고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까지는 없었다.

그 뒤 해방을 만나고, 동료 중에 P라는 여교사가 있었다. 그가 바로 선생의 수양딸 노릇을 한다고 하며, 한 번 같이 가 뵙자고 했다.

그러나, P는 언제든지 저 혼자 갔다 왔다는 이야기만 했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선생께서 불경을 읽으시는 줄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댁에 불단이 있다는 이야기도 선생의 서재에는 양서가 많다는 이야기도 P에서 들었다.

P는 선생의 발이 몹시 크다는 이야기도 했다.

"발이 도적이라는데……"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며 웃으신다고 했다.

그 뒤로 길에서 종종 뵐 수 있었다. 선생을 뵐 적마다 나는 우쭐해졌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분이 춘원 선생이라고 알려 주고 싶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생을 처음 뵈었을 때는 몸집이 꽤 큰 분 같았는데, 뵐 적마다 조금씩 작아 보이고, 나중에는 그저 그런 분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어느 날 P와 같이 중앙청 앞을 지나다가 저만치서 걸어오시는 선생과 맞닥뜨렸다.

'옳지! 이제는 가까이 뵙게 되었구나!'싶어 뛸 듯이 기뻤다.

P를 따라 나도 절을 했다. 넌덕스런 P는 늘어지게 인사를 여쭙고 나서, 옆에 선 나를 선생께 소개했다.

나는 또 절을 하면서, 문득 선생의 발이 크다는 생각이 나서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까만 구두가 퍽 커 보였다.

그때 선생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에 없으나,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부드러운 음성만은 지금도 귀에 역력하다.

절을 하고 나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마에 볼에 쪼글쪼글 주름이 잡히고, 허리도 조금 구붓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선생께서 외롭다는 뜻으로 고주(孤舟)라는 아호를 지었다 하셨지만은 6·25때 납북되신 채, 지금은 생사조차 모르니, 선생의 고독은 숙명인가 싶다.

육당 최남선(崔南善) 선생을 처음 뵙기는 우이동(牛耳洞) 봉황각(鳳凰閣)에서였다.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날로 치열해 가던 때라, 서울 집을 버리고 시골에 소개해 가 있었다.

나는 나이 스무 살에 소학교 교원 노릇을 한 덕분으로 동네 국어(일어)강습소의 강사로 끌려 나간 것이 선생을 뵙는 기연이 되었던 것이다.

선생은 그 많은 장서 때문이었는지 종로 6가 동산 일람각(一覽閣)에서 우이동 소원(素園)으로 이사하셨다.

그때, 면내 국어 강습회가 우이동 봉황각에서 이틀 동안 열렸다. 그 자리에는 총독부 학무국장이 나오고, 장학관이 강사 노릇을 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장학관은 한국인이었다.

이튿날 오후에는 강연 순서로, 듣기 싫은 왜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느닷없이 두루마기를 입고 버선을 신은 거무튀튀한 시골 영감 한 분이 다락마루로 성큼 올라서셨다.

회원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서 바라보는데, 학무국장이 놀란 듯이 벌떡 일어나서 공손히 절을 하고 의자를 내었다.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분인데, 동네의 유지로 보기에는 어딘가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만 여겼지, 그분이 바로 육당 선생인 줄은 사회자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나는 왜놈의 강연은 듣는 둥 마는 둥하고 두루마기 입은 노인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때가 마침 봄이라 밭일이 한창이었으므로, 회장에는 파리가 들끓었다. 우리는 얼굴에 와 앉는 파리를 좇느라고 연성 손짓을 하는데 두루마기의 노인은 당신의 얼굴에 앉은 파리를 좇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태연스레 앉아있다.

이따금 머리를 천천히 가로 젓는 것이 파리를 쫓으려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럴 때마다 여자 수강생들은 킥킥거리면 웃었다.

나는 참 무던한 분이라고 감탄하면서, 저분이 대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했다.

사회자가,

"이번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께서 국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 말하자 연단에 나온 분이 바로 그 두루마기 입은 노인이었다.

생은 유창한 일어로,

"나는 국어의 소양은 없고, 또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아무런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는 말씀할 거리가 없으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내다보이는 바와 같이 벚꽃이 한창이고, 밭에 고구마를 심고 있으니 벚나무와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야기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왜놈들까지도 수첩을 꺼내 들고 필기를 하는 꼴이 우스웠다.

선생은 벚나무 이야기 끝에, "일본 사람이 '사람은 무사, 꽃은 벚'이라고들 하지만 실상 우리는 꽃을 보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먹으려고 심었다."고 말씀했다. 해방 후 이웃으로 오시어, 동저고리 바람으로 길에 나오신 선생을 가끔 뵈었다.

하루는 Y선생을 모시고 어디를 가다가, 단성사 앞에서 서성거리시는 선생을 뵈었다. Y선생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므로, 나도 따라 절을 했다. Y선생이 안부를 여쭙고 나서 나를 소개하므로 다시 절을 했더니선생은 웃으시느라고 실눈을 해가지고, "나, 최남선이요. 허허……"하고 웃으셨다. 참 좋은 할아버지 시었다. 그 뒤 중풍으로 오래 누우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위당 정인보(鄭寅普) 선생을 처음 뵙기는 해방 이듬해, 국사 강습회에서였다. 푹푹 찌는 한여름인데, 잘 잘 끌리는 옥색 모시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고 버선을 신고, 합죽선을 든 몸집의 호리호리한 노인이 단 위에 올라서셨다. 옛날 신사풍이랄까 조촐한 선비형이었다. 선생은 단 위에서 좌우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낭랑한 음성으로 구수하게 말씀하셨다. 합죽선을 펴서 수산스럽게 부채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접은 채로 들고, 왼손바닥을 톡톡 쳐 가면 말씀하시는데, 이마에 땀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선생은 초대 감찰 위원장이 되셨다. 선생은 여전히 한복 차림으로 다니시는데 호위하는 순경이 두어 명 총을 들고 따르는 것이 퍽 어색해 보였다. 선생의 애제자인 C선생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선생께서는 참으로 꼿꼿하고 깨끗한 어른이셨다 한다.

하루는 선생께서 C선생을 찾아 오셨더란다. "여보게, 나 급히 쓸 일이 생겨서 그러니 돈 X만 꾸어주게 X일 안으로 갚음세." C선생이 갑자기 수중에 없어, "무엇에 쓰실 겁니까?" "그건 알 것 없네. "

"네,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내일이나……" 선생은 우물쭈물하는 눈치를 알아차리시고,

"안 되겠다는 말일세그려, 그럼 그만두게."하고 휑하게 나가시더란다.

그런지 며칠 만에, 어느 친구가 와서, "아 오늘이 위당 선생 자제 결혼식이데그려."

선생님께서는 일체 청첩을 안 돌리셨던 모양이다. C선생은 부랴부랴 부조를 싸가지고 결혼식장으로 달려갔더란다. 부조를 내려고 살펴보니 접수처도 없고, 부조를 받을 사람도 문간에 서 있지 않더란다. 그렇다고 선생께 직접 드릴 수도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섰으려니까, 선생께서 등을 탁치시면서,

"어떻게 알고 왔나, 자네 축사 한 마디 해 주게나."

"제가 무슨……"하고 겸손해서 짐짓 사양했더니, 거절하는 줄 아셨는지, "응 ,그래, 안 할 텐가, 그럼 그만두게." 이렇게 모든 일을 칼로 치듯이 처리하셨다 한다. 선생도 6·25때 납치되셨거니와 그 깨끗한 얼굴이며 호리호리한 선생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요지경

석주선
〈동덕여대 교수〉

시간 약속이 늦었다고 보던 일을 허둥지둥 치우고 다방에 나가니 약속한 손님은 언제 오신 것인지 구석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간단히 끝마치고 사무적인 일을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연기로 공기가 탁하고 고음의 음악소리는 보통 음성 가지고는 맞은편 박스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말이 들리기는커녕 장내가 퍽이나 시끄러웠다. 이 지경이라면 조그마한 비즈니스도 단념하여 버리고 차만 한 잔씩 마시고 오래간만에 만난 손님이라 그간 지난 이야기 등 잡담으로 끝마치고 조용한 곳에 자리를 옮겨 보았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친구라기보다는 나와는 너무나 세대의 차이를 가진 내가 보기에는 한 젊은 애송이의 이야기였다. 이 친구는 순진하기가 짝이 없고 사회 경험도 짧은지라 심각한 표정을 하고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동정이 가리만큼 단순하였다.

새로운 꿈과 이상을 안고 새 직장에 들어가 칼라에 표시까지 단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한편 흐뭇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였다.

제삼자가 듣기에는 남이 새로 취직을 하였다는데 축하는 못 해줄망정 하필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할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의심하는 이도 있으리라.

어쩌다 이럭저럭 세월을 다 놓치고 보니 이미 인생황혼이라, 어느덧 종착역을 달리고 있다. 인생무상이라고나 할까, 여기까지 와보니 인생으로는 다 되었고 인간됨은 지금부터가 아닌가 느껴진다. 어쩐 일인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못한

사람이나 서로가 헐뜯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남이 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양심에 없는 말을 곧잘 하고 책임 없는 이야기를 눈도 깜빡하지 아니하고 곧잘 지껄여 댄다. 과거에는 겸손이 우리의 미덕인 것으로만 알아왔는데 요사이는 겸손이라기보다는 뽐을 내고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이 많고 자칭 대가연하는 사회가 되었으니 우리 같은 우둔한 머리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곤란하다.

요사이도 삼면기사를 보면 불우한 가운데서 식구를 못다 책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에 허덕이다가 순간적인 과오에서 철창에 걸린 사람, 형태는 다르다고는 하겠으나 우리들의 숨 가쁜 생활 양상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류계급의 일부 층은 점잖은 가운데서 가진 수단을 다 부려가며 허영을 만족시키느라고 불의의 협잡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나아가서는 잔악한 일을 해가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외래품 금지를 그렇게 내세우는데도 아직 근절 안 된 것,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사치로운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소행은 상부층에만 속하는 일이고 그날그날 허덕이는 생활 속에서는 생각도 못 할 일이다. 밑천도 없는 사람이 매끈히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재끼고 보기에는 점잖은 신사로 행세하나 알고 보면 일개 브로커로 하루 하루 종일 이 다방에서 저 다방으로 저 다방에서 다시 다른 다방으로 거짓말로 해를 지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이나 벌려고 한다 치자.

그런가 하면 인텔리 층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 물론 어떤 책에 근거를 두고 참고 문헌으로 해야만 되겠지만 어떤 책은 내용을 모아서 일본 말로 번역을 하면 다시 원본에 돌아가리만큼 한 자도 틀리지 않게 번역을 하여 아무개 저 라고 하셨으니 보기에 딱이 나고 공부한다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가 짝이 없다.

차라리 모모 씨 번역이라고나 했으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들끓고 있다.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구석에 약간의 양심은 있다고 한다. 요사이 추워지면서 이것도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흔히 보는 일인데 집집마다 타고 남은 석탄재를 치우느라고 내 집 문전은 더러워지니까 이웃집 담 밑에 그것도 거저 버리지 않고 메쳐서 흩어지게 벌려 놓는 것을 본다. 물론 덩어리 채 남의 문 앞에 놓기란 약간 미안한 데서의 태도이리라.

흔히 버스 속에서 보는 일인데 차장들의 그 저속한 언어와 불친절한 태도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워에는 진정 타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와락 달겨 들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하고 미처 못 오르는 사람은 등을 밀고 미처 못 내린 사람은 채 내리기도 전에 등을 밀어 짐짝 모양 굴리고 사람은 다쳤거나 아니 다쳤거나 돌아다보지도 않고 빽소니친다. 시간 관계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장이라면 전부가 여자라 좀 더 친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차장 개개인이 얼굴에서부터 발뒤꿈치, 입은 옷 할 것 없이 전부가 더러운 데는 또한 놀랐다.

버스는 교통의 현관이요 시민의 발이다. 어떻게 그리 교양이 없고 더러 울 수 있을까.

항차 교통은 우리나라의 문호라고 할 수 있는데 오고 가는 외국 손이 많은 서울 거리에서 너무나 눈에 띈다. 심한 것은 버스 속에서 무엇인가 첩첩 먹으면서 앞뒤 차장끼리 높은 목소리로 떠들어 대는 일이다.

보고 들은 대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둘 예를 든 것에 지나지 않고 이외에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남을 속여야 밥을 먹고 남을 중상하여야만 빨리 훌륭해질 수 있고 남이 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만 내 자리를 빛낼 수 있다면 생각만 하여도 피곤한 일이 아닌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시적 영예심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편히 살 수는 있다고 보겠으나 인간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일이다.

인간은 부하게 살거나 가난에 쪼들려 살거나 자기 자신의 중추를 흔들려서는 아니 되고 뚜렷한 주관 밑에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요지경 속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첫째 진실해야 하고 진위를 똑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대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하는 것이 탈이다. 분에 넘치는 자리도 감지덕지 요행으로만, 생각되고 인텔리 층에서 무식 층에 이르기까지 힘에 벅찬 자리라도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겸손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힘에 벅찬 것을 요리하느라고 무리가 있고 이것도 양심을 속여가며 아는 척하려니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여 집안 식구는 물론 직장에까지도 누를 끼치게 된다.

공연한 욕심에서 책상 하나에 전화 하나만 걸어 놓고도 사장입네 하고 명함을 손바닥만큼 크게 00사 사장이니 상무 취체역이니 이것 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또 우리는 단체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고 남을 아낄 줄 모르고 언제나 개인행동에서 질서를 문란히 하기 쉽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좀 더 진실하여야 하겠다. 남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잘살든 못살든 진실을 본의로 나가기만 한다면야 무엇 하나 두려울 것이 없고 마음의 중심이 뒤흔들릴 것도 없고 따라서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피곤한 생활을 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요즘 어떤 모임에 나가면 잘 쓰지도 못하는 붓을 들고 곧잘 '진(眞)'을 많이 써 주곤 한다. 너무도 사회상이 진실을 잃어버린 허탈한 마음에서일까 또는 진실 하게

매화(梅花)에 부치는 노래

신석초(申石艸)

매화는 오로지
높은 제 뜻으로
차디찬 눈 속에 핀다

매화는 온갖
잡 꽃이 싫어
봄 일찍이 핀다

매화는 아름다운
궁지로 하여
시인이 가꾸는 뜰에서 핀다

살자는 것일까. 허공에 대고 어떤 갈망에서 진실이 그립고 또 그립다. 그러나 실망은 않는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메마른 마음속에 이따금 기름을 준다.

미취학 아동이 처음으로 국민학교 일학년에 입학하여 교복도 처음 모자도 처음으로 모두가 신기하고 즐겁듯이 새로이 사회에 취직되어 새로 배지를 달고 기뻐하는 저 젊은 친구에게 신의 가호가 있어 여 이 어지러운 사회에 물들지 않고 그 단순하고도 순진한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빌어 마지않는다.

곁방살이

남 욱
〈한국일보 문화부장〉

꼭 1년 전이라고 생각된다. 대구에서 반가운 어른이 올라왔다. 5척 단구에 우동가락 만큼씩이나 굵은 털실로 짠 벙거지 같은 베레에 개화장(開化壯)을 짚고 긴 외투 옆구리에는 타임지와 책 몇 권을 낀 어진 노인이다. 이름하며 자타가 '야인'이라 불렀는데 원(原) 이름은 김익진(金益鎭)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별호(別號)의 한자가 야인(野人), 야인(也人), 야인(冶人)의 어느 것이기도 하고 삼위일체로 해석해도 무방한 듯 했다.

그날은 불광동 우리 곁방살이 집에서 하룻밤을 유했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이는 암산(岩山)을 향해 서울에서

이런 별천지가 있나며 음냉영한(吟冷詠寒)한 다음 삼 년간 각고해서 번출(飜出)했다는 중국학자 오경태원(吳經態原) 저(著)의 「동서의 피안」 한 권을 풀어두고 갔다.

야인은 대구의 우리 곁방살이 방에서도 유한 일이 있지만 이분이 유하고 가면 겹방살이가 마치 낭만을 위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 착각을 나는 늘 느꼈다. 그만치 야인은 물질의 소유욕이 희박한 분이다. 사실 그는 적잖은 가산을 자기 몸보다 귀히 여기는 성귀(聖貴)에 돌리고 무변의 청빈 속에서 '사람을 닦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종일의 경지라 할까- 야인이란 발가벗은 인간의 분위기 속에서 끌려들 때마다 나는 그의 정신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물질적인 곁방살이에도 영향을 미쳐 괴로움을 잊고 오히려 낭만을 갖게 하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나대로의 치차(齒車)같은 일과 속에 파묻혀 그 이튿날부터 야인을 잊었고 그가 겹쳐 당부하던 「동서의 피안」도 한 줄 읽지 못한 채 꼬박 1년 동안을 서가에 던져두었다.

그러던 것이 며칠 전 어떤 주사(酒肆)에서 구(具) 상선배(常先輩)가 우연히 말끝에 「동서의 피안」이란 책이 매우 깊이가 있고 구수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저자는 그 속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 한다.

어떤 서구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여인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함께 살 아내로 맞는 것이 동양의 미덕이냐"라고 빈정거리며 묻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인 오 씨는 "아내보다 가깝고 피를 나누어 가진 부모 형제인들 인간은 선택할 수 없지 않았던가"하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서가에서 먼지 오른 야인의 전역작(前譯作)을 들춰내어 그 이튿날부터 읽고 있다. 이럭저럭 일에 쫓겨 하루 몇 장도 읽지 못하지만 늘 손에 들고 다니며 합승이나 버스에서나 펼쳐 본다. 당분간은 저자 오경태씨의 취묘(臭妙)한 정신적 주택에서 나는 곁방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 × ×

지금도 곁방살이를 면치 못해 나는 '준금치산자(準禁治産者)'란 오호(誤號)를 받고 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구질구질한 나의 생활에 여태 끌려 온 아내나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사실 나 자신은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 늦게 들어가서는 하숙집처럼 자고 나오기만 하기 때문이다. 후덕스런 아내는 그것이 준금치산자적 타성이라고 은근히 비난을 하지만 나는 금치산자에 '준'자를 붙여주는 것만 해도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산능력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곁방살이 중에서도 가장 아내에게 고생을 시킨 것은 첫 놈을 얻었을 때인가 싶다.

대구 큰 시장 언덕바지에 곁방하나를 얻어 신혼 생활을 할 때인데 신혼여행이랍시고 석굴암 가까이에서 자고 돌아온 다음날부터 거의 매일 같이 구겨져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까지 주당들을 이끌고 닥쳐 들어서는 아내를 볶았다. 나보다 체구가 늠름한 신부는 별 군소리 없이 이 초기 절망파 문학청년들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때로는 미처 집에 이르지 못한 채 골목 어구의 주막방에서 펄적이들 술장을 페고 급기야는 말술을 청해서 바가지로 머리에 돌아가면 붓기를 했다. 이튿날 술기가 양조(良潮)하기도 전에 주막집 주인이 나타나 온 방에 술이 흥건히 고여 온돌은 죄다 꺼지고 구석에 쌓아 두었던 이부자리까지 못 쓰게 됐으니 손해를 물어달라는 청이 왔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갚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이 못난 짓들이었던 반면 그지없이 꿈같은 세월이기도 했다.

그러나 곁방살이의 설움이 이런 나의 무절제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 주인도 나 못지않은 애주가여서 내 정신이 맑은 날은 있어도 그의 '나니와부시'가 그치는 날은 없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본인의 상점에서 일하다가 특별 지원병 제1기생으로 자카르타, 수마트라, 라바우르 등 이른바 남방에서 역전 -그의 표현대로 하면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선량한 경상도 사나이였다. 6·25전까지만 해도 트럭으로 거래하는 생선도매상이었으나 섯다에 미쳐 며칠 만에 깡그리 가산을 털고 나앉았다가 그 생선도가의 '계미(計尾)'로 재기, 그 당시까지 집 한 채를 간신히 마련한 위인이었다.

그는 나와는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인지 '나니와부시'를 읊으며 마룻방 건너의 우리 곁방 문을 툭 치고는 으레 꼭, "남중위……우리 동기생은 지금 모두 장군이야" 일어 섞인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린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딸 넷의 이름을 부르다가 코고는 소리가 들리고 그 뒤를 잇던 가냘픈 부인의 핀잔마저 잦아들 듯이 멀어지면 조용해진다. 주인집 부인도 우리 신부와 마찬가지로 임신 9개월이었다.

× × ×

산기(産期)을 보름쯤 앞둔 어느 날 밤 술내를 뿜으며 돌아온 나에게 후덕스러운 신부가 조용히 말했다.

"한 지붕 밑에서 두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운수가 나뉜다고 우리더러 밖에서 낳고 오래요."

화를 내며 일어서는 나를 아내는 조용히 달래었다. 딸만 넷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줘야 할 것이고 또 곁방살이를 하는 당신이 무슨 낯으로 집 주인 앞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 언덕에서 더 높은 언덕의 어떤 곁방을 임시 빌어 사내놈을 낳아 안고 돌아왔다. 나는 며칠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섯 번째의 딸을 얻은 집 주인 공기가 초상집 같았기 때문이다. 주인의 '나니와부시'도 들리지 않았다. 이따금씩 큰 딸애들이 터뜨리는 맑은 웃음소리마저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우리에게는 10번 딸애라도 좋았다. 7대 독자이지만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실망할 만치 늙지도 않았고 또 나무랄 노부모도 없다.

우리는 곁방살이를 또 옮겨야 했다. 꽃밭 한 번 가꾸어 볼 마음도 못 가져 본채 그 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삼덕동으로 옮겼다.

<풍물시>

윷놀이 송(頌)

박두진(朴斗鎭)

먼 옛날에 불 밝혔을
그 활활한 화톳불
아늑한 호롱불
그 촛불 아래 소리했을

그 두메산골
그 벌 마을
그 도읍마다 소리했을

그 마당마다
사랑마다
그 안방마다 소리했을

툭툭한 멍석자리
밋밋한 삿갈자리
그 화안한 화문석서 소리했을

그 설이면
설 날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는 아버지와 더불어
젊은이는 젊은이
아낙은 아낙들과 더불어

문경 새재 박달 윷
밤나무 장작
밤나무 윷의

거칠은 손은 거칠은 손끼리
부드러운 손은 부드러운 손끼리
삼삼한 하얀 손은 하얀 손끼리

하늘로 번쩍 치뜨렸다 놓고치기
도르르 굴려 엎어치기
희떱게 흔들어 흰자위 보기

도, 개, 걸, 윷
모, 걸, 윷, 도

아,
지화자—
지화자—

걱정도 우수도 잊고
신명은 신명을 불러
세월도 시름도 잊고
성벽은 성벽을 불러

그 먼
옛날로 옛날로부터 온
저 윷놀이 소리 달그락 소리……
저 윷가락 소리 지화자 소리……

신판 토끼전 ②

제2장 중세사 (1)

- 보원이덕편 -

계문수(桂文樹)
삽화 · 고두현

토끼왕국의 왕자토끼가 불로초를 구하려 떠났다는 처녀토끼의 뒤를 좇아 서쪽나라로 조각배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 간지 몇 만 년, 몇 십만 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가도 가도 못 간다는 그 조각배 속에서 왕자토끼는 애타는 가슴을 안은 차 미라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자 토끼가 미라가 되는데서부터 토끼족의 중세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자토끼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토끼왕국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자토끼가 세상을 떠나자 아바마마 토끼의 뒤를 이어 공주토끼가 왕위를 계승하여 토끼왕국은 더욱 번성하면서 중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왕자토끼가 서쪽 나라로 떠나게 된 것은 거북족의 음모였음을 토끼족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 왕국의 첩보기관은 거북의 상인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고 거북왕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여 중세기에 이르는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싸움은 중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토끼는 우수한 레이더와 아풍속기(亞風速機)를 가진 반면에 거북은 수명이 길고 성능이 우수한 준 원자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고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투는 언제나 해변가에서 벌어졌습니다. 토끼는 잠수함이 없었기 때문에 거북의 본거지를 공격할 수 없었고 거북은 쾌속기를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산을 넘고 들을 건너 토끼의 궁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거북은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잠수함을 이용하여 바다 속으로 숨어 버리고 토끼는 형세가 불리하면 쾌속기로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양편은 수만 세기 동안에 걸친 싸움에도 피차가 한 마리의 희생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조각배 속에서 미라가 된 왕자토끼가 있음으로 해서 토끼 편이 한 마리의 희생자가 있었다는 결과가 되는 셈이지요.

이러던 중—

어느 날, 거북 왕국에서 한 마리의 거북이 흰 기를 들고 토끼왕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것은 왕거북이 보내 온 특별 사자이며 이 특사는 다음과 같은 화해안(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거북 왕국과 귀 토끼왕국의 끝없는 문제는 피차간에 쓸데없는 소비를 가져 올 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양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조건 평화조약의 체결을 제의한다—

토끼 왕국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고 거북특사가 가져온 평화안을 협의한 결과 그 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습니다. 토끼왕국은 거북왕국이 먼저 평화안을 제의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토끼왕국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양국은 상호 불가침조약에 서명하고 그 끝없는 전쟁에 종말을 가져갔다는 의미에서 양국 통합 올림픽 대회가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가장 형식적인 것이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마나 승부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라톤이 시작되기 전에 특히 거북 측 올림픽선수단장은 다음과 같이 뜻있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란 반드시 승부에만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심신을 기르는데 뜻이 있는 것이며 경기규칙을 지키고 협동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스포츠정신이므로 마라톤에 있어서 우리 거북측이 전연 승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참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회장에 모인 양국의 관중들은 모두가 박수를 보내 왔습니다.

물론 관중들도 이 마라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반전에 들어가서 대단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토끼가 너무 자신을 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거북선수가 골인 선에 가까웠을 때 잠이 깨어 뒤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토끼선수는 그 자랑스러운 쾌속각의 총마력을

발휘하였으나 거북을 깔보고 자만심에 도취하여 스포츠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에 거북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토끼선수는 매우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습니다.

여보 여보 거북님 내 말 들어 보오 천지간 동물 중에 네 발 가지고 너같이 느림보 천 보아라—

이 노래는 올림픽 토끼 응원단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토끼 응원단은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양국 불가침조약 조인 기념 올림픽 대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거북대표는 토끼왕국의 셋째 왕자를 정식으로 거북 왕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양국의 국교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의미에서 토끼왕자를 용왕궁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왕궁이라면 용왕국의 왕이 있는 곳이며 모든 동물 왕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거대하고 화려하며 어떤 동물 왕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구경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거북왕국은 용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왕국은 용왕국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으며 많은 연공을 상납하고 있었으나 그 반면 모든 동물 왕국이 선망하면서도 한 번도 구경 못한 용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북 대표는 왕자토끼를 초청함에 있어서 용왕의 허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토끼왕국으로 보아서 대단한 영광이며 거국적인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토끼 왕국은 이 영광과 경사로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궁성은 셋째 왕자토끼를 용왕궁에 보내는 차비에 바빴습니다. 많은 궁녀토끼들이 셋째 왕자토끼의 차림을 마련하는 한편 거북대표를 접대하느라고 골몰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짜가 왕국의 특사에 의하여 통첩이 왔습니다.

왕자토끼는 아바마마 토끼에게 인사를 드리고 거북특사를 따라 궁성을 출발하였습니다. 가도에는 많은 토끼백성들이 왕자토끼의 행차를 축하하는 길다란 행렬을 지었습니다.

궁성대신을 비롯한 고관들은 거북국의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는 해변가까지 전송을 나갔습니다. 토끼왕국

의 전 사찰 기관이 동원되고 수도사단의 정예부대가 경호임무를 띠고 해변가에 삼엄한 경비망을 펼쳤습니다. 해변가에는 거북왕이 보내온 완강한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자 토끼는 만조백관들의 환송을 받고 수의사단의 "받드려 총"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잠수함에 올라탔습니다. 잠수함은 거품을 풍기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수함은 차츰차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증가되어 갔습니다. 왕자토끼의 눈앞에는 점차 신기한 세계가 전개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토끼 나라에서는 도저히 구경할 수 없는 신기한 것이 모두였습니다.

잠수함은 일로 용왕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용왕국까지 가자면 여러 가지 위험 지구도 있었습니다. 바다 속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으며 잠수함을 기습하는 어족국(魚族國)이 있었습니다. 함장은 오랜 훈련으로 비밀항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지구를 모두 무사히 돌파하여 마침내 용왕국 영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 대사는 안심한 듯 왕자토끼의 건승함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북특사는 빙그레 웃으며 갑자기 괴상한 말을 했습니다.

"왕자토끼님 물론 간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왕자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

"왕자토끼님 대단히 죄송하오나 실은 용왕폐하께서 중환으로 사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왕 폐하서 회춘하시려면 토끼의 간을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왕자님을 이렇게 초청한 것은 왕자님의 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자토끼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속았구나 거북들이 화해를 청해 온 것은 토끼의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민 음모였구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이제는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왕자토끼는 거북들의 교묘한 작전을 깨달았으나 대책을 강구할 아무런 방법도 이미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서 간을 빼 주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토끼는 하나의 기발한 수단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왕자토끼는 무릎을 탁치며 말했습니다.
"원, 그러시다면 그 뜻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생각하니 떠날 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간을 그만 두고 왔습니다 그려."
하고 배를 어루만지며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북대사는 눈이 똥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빛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북대사로 보아서는 이보다 더한 낭패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눈치를 재빨리 간취한 왕자토끼는 한수를 더 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사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북왕국에서는 토끼의 간을 구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남아돌아서 버리는 것이 간이랍니다. 잠깐 되돌아가면 얼마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 걱정 마시고 돌아갑시다. 금번 체결한 양국의 불가침조약과 양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도 꼭히 간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북대사는 크게 안심하고 왕자토끼의 후의에 몇 번이나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거북 잠수함은 다시 육지를 향해 항행하기 시작하자 왕자토끼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콩알만치나 오무러뜨렸던 간이 간신이 풀렸습니다.
잠수함은 최대 속력을 발휘하여 얼마 후 아까 떠났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가실까요. 궁성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산을 넘으면 토끼의 부락이 있는데 그곳에만 가도 간쯤이야 얼마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거북특사는 왕자토끼의 말을 믿고 좋아하며 어서 가자고 재촉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왕자 토끼는 시치미를 딱 떼고 거북특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로소이다."
거북특사는 희색이 얼굴에 만면했습니다.
산을 넘고 토끼부락에 도착한 왕자토끼는 부락의 어느 사당으로 거북특사를 모셔 부락의 유지토끼를 모아 특사를 정중히 대접하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락에 파견되어 있는 CIC대원토끼를 불러서 사건의 전모를 얘기한 다음 연극을 꾸몄습니다. 왕자토끼는 거북특사 앞에서 CIC토끼를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지네, 빨리 토끼의 간을 구해오게. 용왕폐하께서 중환으로 신음하고 계시며 토끼 간을 잡수시면 즉효가 있다하여 거북특사께서 특별한 부탁인 것이니 빨리 구해오게. 다다익선이네."
CIC 토끼는 "네이-"하고 왕자토끼 앞을 물러났습니다. 거북 특사는 자못 만족하여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CIC 토끼는 일로, 수도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CIC대장 토끼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 토끼는 깜짝 놀라 왕토끼에게 보고하고 수도 경비대를 동원하여 거북특사를 체포해 가지고는 궁성으로 압송했습니다.
하룻밤을 감옥에서 세운 거북대사는 이튿날 무장한 토끼왕국의 삼엄한 경호하에 왕토끼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왕토끼는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거북나라가 우리 토끼나라와 친선 조약을 맺고 경축 올림픽 대회를 연다던가 왕자 토끼를 용왕궁에 초청한다던가 하는 것이 모두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토끼의 간을 빼으려는 음모였구나. 과인은 귀공의 간을 뽑아 까마귀 나라에 던져줄 테다!"
화가 치밀어 오른 왕토끼의 눈알은 올빼미 눈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거북대사는 그만 질려서 목을 틀어막고 돌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장 이 놈의 간을 빼라!"
하고 왕토끼는 호령했습니다. 혼비백산한 거북대사는 다시 목을 쑥 뽑아 주위를 휘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달아날까 생각해 보았으나 곧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거북대사는 스스로가 느림보임을 깨닫고 죽음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북 대사의 눈앞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장한 경호병들과 시퍼런 비수를 들고 자기의 배를 겨누어 보는 형무 토끼가 버티어 서 있었고 왕토끼 옆에는 언제 나타나는지 왕자토끼와 정부의 요인 토끼들이 즐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득한 그 옛날, 우리 왕실의 선조께서도 거북의 오열들에 의해서 천추의 한을 품으시고 저 머나먼 은하수 조각 배속에 미라가 되시고 말았다. 우리는 아직 그 원수도 갚지 못하고 있는 터인데 거북들은 또 다시 왕자 토끼의 간을 빼려했다.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선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왕토끼는 신하들을 바라보 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 나이 많고 털이 거무스레한 토끼가 왕자토끼에게 눈을 금뻑금뻑하고 눈짓을 했습니다. 이 토끼는 토끼왕국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원 기밀국 국장토끼였습니다. (계속)

연재중이던『다용도단좌전투기운용론』하(下)는 사정에 의하여 이번호에도 휴재합니다.

<단편소설>

눈 내리는 밤

홍성유(洪性裕)

효철(孝澈)은 새집으로 이사를 온 이후, 집으로 일찍 돌아오는 버릇이 생겼다.
통행금지 시간을 용케 알아차리고 돌아온다고 감탄(?)해 오던 아내 혜옥(惠玉)이, 이번에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귀가하는 남편에게 정말 감탄해 마지않았다.
아냐 혜옥은 새집을 마련한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이라고 했고, 좋은 습성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미리부터 불안해했다.
효철이 일찍 귀가하게 된 데에는 그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문자 그대로 이번에 신축한 "새집"인데 다가 그것은 순전히 효철 자신의 독력으로 마련한 내 집인 때문이었다.
삼십여 평생, 내 집이란 것을 처음 가져보는 기쁨과 애착심 때문에, 퇴근을 하면 부지런히 집을 찾아 들게 되는 것이다.
효철의 독력으로 마련한 집이라고는 했지만, 기실 ICA 원조 부흥주택이라 앞으로 상환금액도 적지 않은 터요, 이 집에 입주하기까지 번잡한 일들은 거의 아내 혜옥이 치루어 낸 것이었으며, 그밖에도 은행에 있는 친구며 주택조합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큰 것이었다.
그러나 효철의 실감은 아무래도 자기 혼자서 이 집을 마련했거니, 생각되었다.
결혼 후 5년, 내외가 함께 번 데다가 아직 아이가 없는 도움(?)을 받아, 다소의 여축이 밑천이 되어 이집을 이룩해 놓은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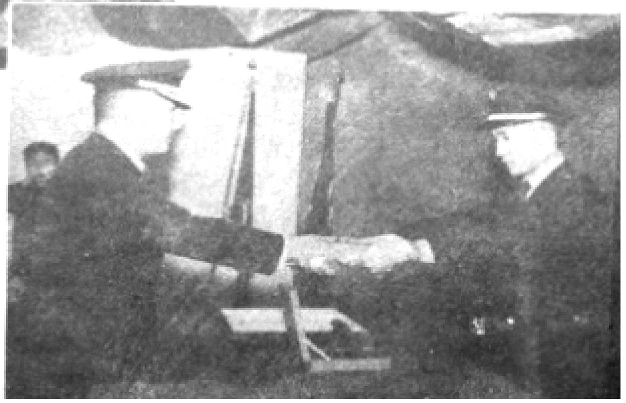
여간 대견한 것이 아니었다.
집이래야 되지 가 60평 미만에, 건평이 10평의 이른바 문화주택에 지나지 않았다.
효철의 단출한 식구끼리는 더 없이 아담한 집이었지만, 나이 근40에 근근이 마련한 것이, 크게 자랑할 것도 못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효철은 어느 광대한 대저택 못지않게, 이 집에 자부를 갖고 있었다.
늦가을, 야산에 홍엽이 얼룩져 올 무렵에야 겨우 택지를 하고 한파가 고비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집 모양을 갖추게 된 이 문화주택은 겨울집이라서 역시 건물로서 부실한 데가 많았다. 미처 정지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풀포기 하나 볼 수 없는 마당이며, 유난히 우풍이 강한 방안이며, 모두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집안의 악세서리는 고사하고, 살림에 직접 요긴한 전기장치며, 하수도 공사도 미비했고 방범을 위한 철창 등 손이 가야 할 곳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워낙 적은 살림여서, 고작 20평 밖에 되지 않는 집안을 채울만한 세간이 없는 것이 한이었으나, 그런대로 일이 많은 것이 효철로써는 오히려 즐거운 것이었다.
매만져야 할 것을 매만지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는 즐거움은 저녁 늦게 이렇다 할 일 없이 거나하게 취해서 거리를 쏘다니는 즐거움에 비할 바가 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효철이 집에 일찍 돌아오게 된 것은 삶의 보람을 느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셋방살이를 떠돌면서 하찮은 이웃과 말다툼을 하고 거리에 나앉은 듯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지내 오다가 이렇게나 한적한 곳에 집을 마련하니 그 정숙 속에서는 저절로 상이 떠오르고 집필생활도 용이해 지는 듯싶었다.
이사를 한 후 근 20일, 효철은 단 하루도 늦어 돌아온 일이 없었다. 귀가를 하면 저녁을 먹기 전에 먼저 집안일을 찾아서 했고, 저녁 후면 다음에 있을 연재소설의 준비를 한다고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달라진 생활에 효철이 보람을 느낀 것은 당연하지만, 혜옥이 반기는 것도 물론이었다. 새로 인생을 마련한 듯 기뻤을 것이다.
그렇게나 착실해 효철이 하루는 일찍 집에 돌아오기는커녕 밤새껏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효철이 근무하는 출판사 동료들과 함께 망년회를 겸한 성탄축하회를 갖고 즐기다가 밤을 드새고 만 것이다.
"나, 오늘 밤 좀 늦을 것 같아……"
아침결에 출근을 하면서, 효철은 아내에게 말을 했었다.
"왜요?"
"오늘, 회사 사람들끼리 좀 놀기로 했거든……"
"그렇게 혼자 즐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크리스마스이브에는 다들 부부동반으로 즐긴다던데……"
"우리도 그러고는 싶었지만,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애송이 총각들이여서 그럴 수가 있어야지? 다른 날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아?"
그렇게 달래는 말에 혜옥은 더 언짢은 얼굴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막상 집에 못 돌아가게 되니 부쩍 미안한 생각이 드는 효철이 었다. 그러나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 못지않게, 집에 못 돌아가는 일이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를 파헤치기나 한 것과 같은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늦게야 효철은 집으로 돌아왔다.
한잠도 자지 못한 부은 눈과, 피로한 몸으로 휘청휘청 기어드는 효철에게 혜옥은 처음에는 뾰통한 얼굴로 대했으나, 어루선을 치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노한 얼굴로만 있을 수 없었던지, 이부자리를 깔아주기까지 하며 빨리 쉬도록 하라고 서둘러 주는 것이다.

효철은 폭신한 이불 속에, 그 폭신한 이불 속과 같은 안온한 행복감을 느끼며 잠들 수 있었다.
얼마나 잤을까! 꿈도 하나 꾸지 않고 늘어져서 잠을 잤다.
"이제 그만 주무셔도 되요 ……이렇게 손님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효철은 아내가 뒤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무거운 잠에서 깨어났다.
"어, 어, 누가 왔기에?"
효철은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얼떨 목소리로 물으며 , 일어나 앉았다.
"형님 제가 왔어요……"
"어, 규철이가 왔구나! 어쩐 일이냐?"
규철은 효철의 8촌 동생이다.
작년 여름 장사의 실패를 한 후 줄곧 고향에 내려가 있더니, 소문도 없이 불쑥 올라와 지금 효철의 앞에 와 앉아있는 것이다.
효철은, 늘 덜렁거리고 헌소리만 하는 규철을 시큰둥하게 생각해왔지만 규철 편에서는 효철을 각별하게 대하고 있는 듯, 뻔질나게 문안 편지와 함께 취직 부탁을 해 오곤 했던 것이다.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효철은 눈을 비비적거리며, 거듭 물었다.
"이러다간 또 한 해를 그냥 넘길 것만 같아서요……"
규철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규철의 말을 종합하면, 이러고 우물쭈물 지내다가는 또 한 해를 시골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말 것이니, 담판을 하는 셈 치고 취직을 부탁하러 올라왔다는 것이다. 취직을 시켜 줄 때까지 이집에 늘어 붙어 있으면 귀찮아서도 한 자리를 구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고, 규철은 너털거리고 웃는 것이었다.
"연말연시에 무슨 자리가 있겠다구?"
효철은 좀 어이없는 얼굴이 되어서 말했다.
"뭐, 형님쯤 되는 소설가면 여기저기 아는 데도 많이 있으실 게구……, 그리고 어디 제가 취직 부탁한 것이요 며칠인 연말 들어서의 얘깁니까?"
규철은 넉살좋게 도사리고 앉아서 은연중 항변까지 했다.
"여보, 건너 방에 숙부님 내외도 와계셔요"
혜옥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좀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뭐, 숙부님이?"
효철은 주섬주섬 옷을 줏어 입고 일어섰다 건너 방은 마룻바닥과 면한 방이어서, 효철이 혼자 기거할 때 쓰는 방이며, 서재와 응접실을 겸한 방이었다.
건너 방으로 건너가니 숙부는 효철의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고, 숙모는 무릎위에 턱을 고이고 바싹 텔레비 앞에 다가앉아서 깜짝 놀란 얼굴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물론 처음 보는 텔레비일 것이다.
"숙부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효철이 들어서자, 그제서야 숙부는 베드에서 일어나 앉았다.
"오냐, 네가 이름이 나서 고향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거기다가 이런 커다란 집을 덩그러니 지어놨대서, 집구경도 할 겸 왔구나……,어디 바쁘고 이름이 난 너더러 시골로 내려 오랠 할 수야 있더냐?"
효철이 큰절을 하고 숙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숙부는 염소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넌 참 제주도 좋구나! 글을 잘 써서 이름 두 나고, 이런 고랫장 같은 양옥집을 다 짓고, 늙마에 조카 덕 좀 볼래나 부다……"
숙모는 텔레비의 스크린 반, 효철의 얼굴 반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탄해서 말했다.
"원, 작은 어머님두……, 이름이 나긴 뭐 이름이 났으니까? 빈 쭉쟁이랍니다……"
효철은 난처한 듯 대답했다.
그러는데 혜옥이 따라 효철의 곁으로 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숙이 내외가 곧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혜숙이가?”
혜숙은 효철의 처제였다.
지난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림을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할 때까지 효철의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철과 처제는 친 남매나 다름없이 친근하게 지내 온 터였다.
결혼 후 처음 대학에 되는 셈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부터 틈을 내어 상경해서 즐거운 날을 가져보자고, 권해왔던 터였다.
크리스마스 때나 틈이 날 것 같다고 하더니, 정말 틈을 내어 혜숙은 내외동반 상경한 것이었다.
전화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역에서 건 것이었다.
효철은 무척 반가웠다. 사랑스러운 혜숙 내외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갖게 된 것이 좋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숙부 내외와 규철의 존재였다.
먼 곳에서 모처럼 찾아오기는 혜숙 내외나 다를 바 없었다. 싫은 얼굴은 그 어느 편에나 나타낼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숙부 내외는 열심히 텔레비 감상을 하고 있었고, 규철은 철부지 모양 안방에 도사리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혜옥 내외는 이내 달려들었다. 한 아름 선물 꾸러미를 안아 들고 들어 온 것이다.
그들은 재회를 마음껏 반기며 기뻐했다. 그러나 다른 때 같았으면 기성을 올리며 떠들썩했을 것이지만 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역시 숙부 내외와 규철 때문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네 사람은 밤이 이슥하도록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자, 오늘은 오느라고 무척 피곤할 테니 일찍 쉬도록 해요……내일 놀도록 하고……”
혜옥의 말에 효철도 이를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잠자리를 마련할 것을 생각하니 미상불 난감한 일이었다. 규철은 숙부 내외의 방에 가서 자고 있지만, 안방은 혜숙 내외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뉘동생 귀연과 부리는 계집아이가 쓰는 방이 따로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자는 것이, 방도 비좁지만 구질구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마루방에서 잘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보 나갑시다……”
효철은 아내를 복도로 불러내어 나직이 말했다.
“어디루요?”
역시 잠자리 문제 때문에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혜옥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끼리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고 하지 않았었어……”
혜옥도 별도리가 없었던지 시누이인 귀연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일러놓고, 잠자코 남편을 따라 집을 나왔다.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라고는 하지만 거리는 죽은 듯 고요했다. 거기다가 흰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의외로 낭만적인 밤이 되겠는데요?”
혜옥이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암! 이것도 집이 없어 쫓겨 다니는 몸이면 얼마나 서럽겠어?”
효철은 진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눈송이는 점점 굵어졌다.
시내로 통하는 아스팔트길은 한없이 길고 먼 것만 같았다. 그러나 효철은 조금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효철의 팔을 꽉 붙들며 걷는 혜옥의 마음도 조금도 갑갑하지 않았다.
이대로 눈 내리는 밤을 마냥 드새며 걸어도 춥지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 같았다.
“집이 없으면 서러웠겠지……”
진정, 효철의 가슴에도, 혜옥의 마음에도 떠도는 감회였다.

당당(堂堂)2만시간 무사고 비행돌파(突破)!

장 참모총장 1훈비에 비행안전상
1월 23일 2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 1훈련비행단에 영예의 참모총장 부대표창 및 개인 표창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사진은 (위(上)) 동식전에서 훈시하는 박 참모총장
(아래(下)) 부대 표창 트로피를 받은 이희근 부단장



1초훈전대(一初訓戰隊)서도 1만(一萬) 시간(時間) 무사고기록(無事故記錄)

한편 이날 1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동단예하 제1초등비행 훈련전대에도 참모총장 부대표창 및 개인 표창장이 수여 되었다.
사진 (위(上)) 동신전에서 훈시하는 박 참모총장
(아래(下)) 동 표창광경

공군2154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